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행동 영역별 예시 문항

- 언어 영역 -

2007. 10.

차 례

| | |
|--|----|
| 1. 언어 영역 행동 영역별 개념과 평가 요소 | 1 |
| A. 어휘·어법 | 1 |
| B. 사실적 사고 | 1 |
| C. 추론적 사고 | 2 |
| D. 비판적 사고 | 2 |
| E. 창의적 사고 | 3 |
| | |
| 2. 언어 영역 행동 영역별 수능 문항 유형 분류 | 4 |
| | |
| 3. 언어 영역 예시 문항 | 9 |
| A. 어휘·어법 | 9 |
| A01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 9 |
| A02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 10 |
| A03 한자 성어의 이해 | 12 |
| A04 속담의 이해 | 13 |
| A05 유의어의 의미 파악 | 14 |
| A06 반의어의 이해 및 적용 | 16 |
| A07 어휘 간의 관계 파악 | 18 |
| A08 문맥에 적절한 어휘 선택 | 19 |
| A09 단어의 구조 파악 | 21 |
| A10 문장 구조/성분의 이해와 탐구 | 22 |
| A11 표준어 규정의 이해 및 적용 | 24 |
| A12 어법의 탐구 | 25 |
| B. 사실적 사고 | 26 |
| B01 정보의 개괄적 확인 | 26 |
| B02 세부 정보의 확인 | 30 |
| B03 정보(개념, 인물) 간의 관계 파악 | 34 |
| B04 핵심 정보의 파악 | 37 |
| B05 조직과 구성 원리 파악 | 40 |
| C. 추론적 사고 | 42 |
| C01 숨은 정보의 추론 | 42 |
| C02 전개될/전개된 내용 추론 | 45 |
| C03 세부 정보의 추론 | 48 |
| C04 생략된 정보의 추론 | 51 |
| C05 새로운 정보의 추론 | 52 |
| C06 개념/원리의 구체적 적용 | 55 |
| C07 개념/원리의 유추 적용 | 59 |

| | |
|--------------------------------|-----|
| C 08 논거의 추론 | 61 |
| C 09 전제의 추론 | 65 |
| C 10 함축적 의미 파악 | 67 |
| C 11 요소의 기능과 효과 파악 | 69 |
| C 12 필자의 관점/태도/심리/의도의 추론 | 73 |
| C 13 화자의 심리/정서/태도/의도 추론 | 78 |
| C 14 인물의 심리/성격/태도 추론 | 81 |
| | |
| D. 비판적 사고 | 85 |
| D 01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평가 | 85 |
| D 02 개요의 수정과 평가 | 87 |
| D 03 글감 분류 및 활용 | 89 |
| D 04 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 90 |
| D 05 논지 전개(서술) 방식 평가 | 92 |
| D 06 서술상의 특징 파악 | 96 |
| D 07 말하기 방식의 평가 | 100 |
| D 08 표현상의 특징 및 효과 파악 | 103 |
| D 09 작품의 공통적 특징 파악 | 106 |
| D 10 작품의 종합적 감상 | 110 |
| D 11 해석의 적절성 평가 | 115 |
| D 12 수용의 타당성 평가 | 120 |
| D 13 인물의 언행 평가 | 124 |
| D 14 견해의 타당성 비판 | 126 |
| | |
| E. 창의적 사고 | 129 |
| E 01 연상을 통한 새로운 정보의 구성 | 129 |
| E 02 조건에 맞는 내용 생성 | 130 |
| E 03 자료 활용한 글감의 생성 | 133 |
| E 04 매체 변용에 따른 내용 생성 | 135 |
| E 05 유추를 통한 내용 생성 | 138 |
| | |
| <부록> 정답표 | 140 |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140 |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 140 |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141 |
|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142 |
|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 142 |
|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표 | 142 |
|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143 |
|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 143 |
|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144 |
|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145 |
|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 145 |

1. 언어 영역 행동 영역별 개념과 평가 요소

A. 어휘·어법

어휘의 뜻을 알고, 모르는 어휘의 뜻을 추리해 내며, 지시적·문맥적·비유적 의미를 유추·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기초적인 한자(어)의 판별 능력이나 고사성어와 같은 관용 표현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또한, 문장과 문단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의미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능력도 어휘·어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휘 능력과, 문법의 정확한 이해 및 적용 능력, 그리고 창조적인 사용 능력 등이 '어휘와 어법'의 측정 요소가 된다.

- A01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 A02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 A03 한자 성어의 이해
- A04 속담의 이해
- A05 유의어의 의미 파악
- A06 반의어의 이해 및 적용
- A07 어휘 간의 관계 파악
- A08 문맥에 적절한 어휘 선택
- A09 단어의 구조 파악
- A10 문장 구조/성분의 이해와 탐구
- A11 표준어 규정의 이해 및 적용
- A12 어법의 탐구

B. 사실적 사고

언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사실에 맞게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글의 내용이나 구성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들을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과정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사실적 이해 능력의 측정 요소가 된다.

- B01 정보의 개괄적 확인
- B02 세부 정보의 확인
- B03 정보(개념, 인물) 간의 관계 파악
- B04 핵심 정보의 파악
- B05 조직과 구성 원리 파악

C. 추론적 사고

언어의 표현과 이해 과정에서 추론을 통하여 보다 깊고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능력은 설명문이나 논설문과 같은 언어 표현의 내적 연관성을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과 문학 작품과 같은 언어 표현에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 능력에서는 내용, 과정, 구조의 추론이라는 세 측면을 측정한다.

- C01 숨은 정보의 추론
- C02 전개될/전개된 내용 추론
- C03 세부 정보의 추론
- C04 생략된 정보의 추론
- C05 새로운 정보의 추론
- C06 개념/원리의 구체적 적용
- C07 개념/원리의 유추 적용
- C08 논거의 추론
- C09 전제의 추론
- C10 함축적 의미 파악
- C11 요소의 기능과 효과 파악
- C12 필자의 관점/태도/심리/의도의 추론
- C13 화자의 심리/정서/태도/의도 추론
- C14 인물의 심리/성격/태도 추론

D. 비판적 사고

언어 표현과 이해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거에 의하여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그 정당성이나 적절성 또는 가치 및 우열에 대하여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흔히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이 이에 해당하지만, 비문학적인 글에서도 글의 내용이나 표현 및 태도에 관한 비판 능력 등은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대학 교육이 지식의 단순한 암기를 넘어서 문제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능력은 중요한 측정 대상이 된다. 여기서 '비판적'이라는 말이 지니는 의미는, 어떤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또는 비평과 관련된 긍정적 판단을 포함한다.

- D01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평가
- D02 개요의 수정과 평가
- D03 글감 분류 및 활용
- D04 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 D05 논지 전개(서술) 방식 평가

- D06 서술상의 특징 파악
- D07 말하기 방식의 평가
- D08 표현상의 특징 및 효과 파악
- D09 작품의 공통적 특징 파악
- D10 작품의 종합적 감상
- D11 해석의 적절성 평가
- D12 수용의 타당성 평가
- D13 인물의 언행 평가
- D14 견해의 타당성 비판

E. 창의적 사고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게 어떤 언어 자료를 변형하거나 새롭게 표현하는 고차원적인 언어활동이다. 창의적 사고는 언어활동의 과정에서 자료나 텍스트의 표면에 제시되지 않은 요소를 창출해 낸다는 점에서 추론적 사고와 비슷하지만, 추론적 사고가 수평적인 확산인데 비해 창의적 사고는 수직적인 수준 오름(shift-up)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 E01 연상을 통한 새로운 정보의 구성
- E02 조건에 맞는 내용 생성
- E03 자료 활용한 글감의 생성
- E04 매체 변용에 따른 내용 생성
- E05 유추를 통한 내용 생성

2. 언어 영역 행동 영역별 수능 문항 유형 분류

언어 영역의 행동 영역별 평가 요소에 해당 문항과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행동 영역 | 평가 요소 | 해당 문항 | 예시 문항 |
|----------|-----------------------|---|---|
| A. 어휘·어법 | A 01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 • 05-6모-52 • 05-본-32 | • 05-본-32 |
| | A 02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 • 05-9모-59 • 05-본-43 • 05-본-51 • 05-본-55 • 06-본-30 • 07-본-22 • 07-본-36 • 07-본-50 • 08-6모-22 • 08-9모-50 | • 05-본-43 • 07-본-22 • 07-본-36 • 08-9모-50 |
| | A 03 한자 성어의 이해 | • 05-9모-56 • 05-본-36 • 06-9모-34 • 07-6모-28 • 07-9모-47 • 08-6모-46 • 08-9모-32 | • 05-본-36 • 08-9모-32 |
| | A 04 속담의 이해 | • 07-9모-19 • 07-본-45 | • 07-9모-19 • 07-본-45 |
| | A 05 유의어의 의미 파악 | • 05-본-14 • 06-9모-60 • 07-6모-51 • 07-9모-13 • 07-9모-38 • 07-본-19 | • 07-본-19 • 07-9모-13 |
| | A 06 반의어의 이해 및 적용 | • 06-본-14 • 07-9모-43 | • 06-본-14 • 07-9모-43 |
| | A 07 어휘 간의 관계 파악 | • 06-6모-41 • 07-6모-45 • 07-6모-60 • 07-본-27 | • 07-6모-45 • 07-6모-60 |
| | A 08 문맥에 적절한 어휘 선택 | • 06-6모-45 • 06-본-23 | • 06-6모-45 • 06-본-23 |
| | A 09 단어의 구조 파악 | • 05-9모-13 • 06-9모-41 • 06-본-38 • 08-6모-11 | • 06-9모-41 • 06-본-38 • 08-6모-11 |
| | A 10 문장 구조/성분의 이해와 탐구 | • 05-본-13 • 06-9모-14 • 07-9모-14 | • 05-본-13 • 06-9모-14 • 07-9모-14 |
| | A 11 표준어 규정의 이해 및 적용 | • 06-본-13 | • 06-본-13 |
| | A 12 어법의 탐구 | • 05-6모-13 • 05-6모-14 • 06-6모-13 | • 06-6모-13 |

| | | | | |
|-----------|-------------------------|---|---|---|
| B. 사실적 사고 | B01 정보의 개괄적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본-44 • 06-본-20 • 06-본-44 • 07-본-24 • 07-본-37 • 07-본-5 • 08-6모-4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본-5 • 06-본-35 • 06-본-52 • 07-본-33 • 07-본-41 • 07-본-57 • 08-9모-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본-5 • 07-본-41 • 07-본-57 |
| | B02 세부 정보의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본-25 • 05-본-34 • 06-본-1 • 06-본-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본-30 • 05-본-45 • 06-본-39 • 08-6모-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본-25 • 05-본-45 |
| | B03 정보(개념, 인물) 간의 관계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본-60 • 06-6모-47 • 06-본-29 • 07-6모-26 • 07-9모-45 • 08-6모-3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6모-21 • 06-6모-54 • 06-본-43 • 07-6모-35 • 07-9모-5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본-29 • 07-6모-26 • 07-9모-52 • 08-6모-38 |
| | B04 핵심 정보의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본-24 • 07-본-20 • 08-6모-3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본-2 • 07-본-46 • 08-9모-3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본-2 • 07-본-20 • 08-6모-37 |
| | B05 조직과 구성 원리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6모-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6모-4 |
| C. 추론적 사고 | C01 숨은 정보의 추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6모-37 • 07-9모-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9모-50 • 07-6모-3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6모-37 • 07-9모-25 |
| | C02 전개될/전개된 내용 추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6모-2 • 07-6모-2 • 07-9모-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본-3 • 07-6모-8 • 08-6모-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6모-8 • 07-9모-5 • 08-6모-3 |
| | C03 세부 정보의 추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본-50 • 06-본-21 • 06-본-55 • 08-6모-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6모-32 • 06-본-53 • 07-6모-59 • 08-6모-4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본-53 • 08-6모-21 • 08-6모-47 |
| | C04 생략된 정보의 추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본-40 • 06-9모-11 • 08-6모-3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6모-34 • 06-9모-3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6모-34 |
| | C05 새로운 정보의 추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본-22 • 06-본-37 • 07-6모-7 • 08-6모-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본-31 • 07-6모-46 • 07-9모-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본-37 • 07-6모-7 • 08-6모-29 |

| | | | |
|--------------------------|---|---|---|
| C 06 개념/원리의 구체적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6모-23 • 05-본-31 • 06-6모-36 • 07-9모-23 • 07-본-34 • 08-6모-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6모-26 • 05-본-33 • 06-9모-38 • 07-9모-41 • 07-본-4 • 08-9모-4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본-31 • 07-9모-41 • 07-본-34 |
| C 07 개념/원리의 유추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9모-58 • 07-본-25 • 08-9모-3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9모-42 • 08-9모-3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9모-58 • 07-9모-42 • 08-9모-35 |
| C 08 논거의 추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본-47 • 06-9모-42 • 07-9모-58 • 07-본-40 • 08-9모-4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6모-2 • 07-6모-44 • 07-본-26 • 08-6모-39 • 08-9모-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본-47 • 07-6모-44 • 07-9모-58 • 08-6모-39 |
| C 09 전제의 추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6모-48 • 07-본-3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본-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본-23 • 07-본-35 |
| C 10 함축적 의미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본-16 • 06-본-25 • 07-본-54 • 08-9모-3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본-17 • 06-본-47 • 08-6모-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6모-15 • 08-9모-33 |
| C 11 요소의 기능과 효과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본-56 • 06-6모-57 • 07-9모-30 • 08-9모-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본-23 • 07-6모-38 • 07-본-53 • 08-9모-4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본-56 • 07-9모-30 • 08-9모-31 • 08-9모-41 |
| C 12 필자의 관점/태도/심리/의도의 추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6모-19 • 06-6모-60 • 06-본-34 • 08-6모-40 • 08-9모-34 • 08-9모-4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6모-24 • 06-본-28 • 06-본-40 • 08-6모-49 • 08-9모-4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본-34 • 06-본-40 • 08-9모-34 • 08-9모-44 |
| C 13 화자의 심리/정서/태도/의도 추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6모-44 • 06-6모-19 • 07-9모-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9모-24 • 06-6모-58 • 07-9모-3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6모-19 • 06-6모-58 • 07-9모-29 |
| C 14 인물의 심리/성격/태도 추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6모-55 • 06-9모-35 • 06-본-42 • 07-9모-17 • 07-본-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6모-25 • 06-9모-47 • 07-6모-27 • 07-9모-59 • 08-6모-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6모-25 • 06-본-42 • 07-9모-17 |

| | | | | |
|-----------|---------------------|--|---|--------------------------------------|
| D. 비판적 사고 | D01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평가 | • 05-본-9 • 07-9모-10 | • 06-9모-8 • 07-본-8 | • 05-본-9 • 07-9모-10 |
| | D02 개요의 수정과 평가 | • 05-6모-10 • 06-6모-12 • 07-9모-8 • 08-6모-9 | • 05-본-8 • 06-본-9 • 07-본-9 | • 05-본-8 • 06-본-9 |
| | D03 글감 분류 및 활용 | • 05-9모-10 | • 05-9모-8 | • 05-9모-8 |
| | D04 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 • 05-본-12 • 07-6모-12 • 07-본-12 • 08-9모-10 | • 06-본-12 • 07-9모-11 • 08-6모-10 | • 06-본-12 • 08-6모-10 |
| | D05 논지 전개(서술) 방식 평가 | • 05-6모-49 • 05-9모-25 • 05-본-52 • 06-6모-43 • 06-본-32 • 07-6모-21 • 07-9모-49 • 07-본-58 • 08-9모-3 | • 05-9모-15 • 05-본-29 • 06-6모-33 • 06-9모-27 • 06-본-36 • 07-9모-39 • 07-본-15 • 08-6모-33 • 08-9모-45 | • 05-본-29 • 07-9모-39 • 07-본-58 |
| | D06 서술상의 특징 파악 | • 05-6모-53 • 05-본-48 • 06-본-48 • 07-9모-15 • 08-9모-40 | • 05-9모-52 • 06-6모-24 • 06-본-56 • 07-9모-44 | • 05-본-48 • 06-본-48 |
| | D07 말하기 방식의 평가 | • 05-6모-6 • 05-본-6 • 06-9모-5 • 07-6모-6 • 08-6모-5 | • 05-9모-6 • 06-9모-33 • 06-본-6 • 07-9모-6 | • 05-본-6 • 08-6모-5 |
| | D08 표현상의 특징 및 효과 파악 | • 05-본-39 • 07-본-42 • 08-6모-23 • 08-9모-21 | • 07-본-29 • 07-본-52 • 08-9모-16 | • 05-본-39 • 07-본-29 • 08-9모-16 |
| | D09 작품의 공통적 특징 파악 | • 05-6모-38 • 05-9모-23 • 06-본-15 • 07-6모-37 • 08-9모-13 | • 05-9모-20 • 05-본-37 • 06-본-24 • 08-6모-13 • 08-9모-20 | • 05-본-37 • 06-본-15 |

| | | | | |
|-----------|-----------------------|---|---|---|
| | D10 작품의 종합적 감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9모-44 • 07-본-30 • 08-6모-17 • 08-6모-44 • 08-9모-30 • 08-9모-4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본-19 • 07-본-32 • 08-6모-31 • 08-9모-15 • 08-9모-4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본-30 • 08-6모-44 • 08-9모-43 |
| | D11 해석의 적절성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본-59 • 06-9모-55 • 07-9모-46 • 07-9모-54 • 07-본-31 • 08-6모-16 • 07-6모-50 • 07-본-5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9모-39 • 06-본-33 • 07-9모-50 • 07-본-18 • 07-본-59 • 08-6모-41 • 07-6모-58 • 08-6모-3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9모-50 • 07-본-59 • 07-6모-50 |
| | D12 수용의 타당성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6모-51 • 06-6모-23 • 06-6모-46 • 06-9모-28 • 06-9모-3 • 06-9모-59 • 07-9모-22 • 07-본-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9모-4 • 06-6모-27 • 06-6모-5 • 06-9모-29 • 06-9모-46 • 07-6모-55 • 07-9모-37 • 07-본-4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6모-55 • 07-본-1 • 07-본-49 |
| | D13 인물의 언행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본-2 • 07-6모-5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6모-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본-2 • 07-6모-3 |
| | D14 견해의 타당성 비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6모-53 • 08-6모-3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6모-54 • 08-6모-4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6모-35 • 08-6모-4 |
| E. 창의적 사고 | E01 연상을 통한 새로운 정보의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9모-7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9모-7 |
| | E02 조건에 맞는 내용 생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본-10 • 05-본-58 • 06-9모-10 • 07-6모-11 • 08-6모-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본-47 • 06-6모-8 • 06-본-10 • 07-9모-12 • 08-9모-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본-47 • 05-본-58 • 06-6모-8 |
| | E03 자료 활용한 글감의 생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본-7 • 07-본-10 • 08-6모-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본-8 • 08-6모-6 • 08-9모-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본-10 • 08-6모-6 |
| | E04 매체 변용에 따른 내용 생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9모-54 • 07-6모-3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본-50 • 07-9모-3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본-50 • 07-6모-39 |
| | E05 유추를 통한 내용 생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6모-7 • 07-본-7 • 08-9모-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9모-7 • 08-9모-3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본-7 • 07-9모-7 • 08-9모-7 |

3. 언어 영역 예시 문항

A. 어휘·어법

A 01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후보 지지 선언이 언론의 공정성을 ㉠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쟁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언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선거에서는 후보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선점하려는 비민주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 세력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을 정치 선전에 이용하는 문제점 또한 이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신문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신문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행위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보도의 공정성을 ㉡ 담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따라서 신문은 지지 후보의 ㉢ 표명이 보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하며, 독자 역시 지지 선언의 ㉣ 함의를 분별할 수 있는 ㉤ 해안을 길러야 할 것이다.

1.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05-본수-32)

- ① ㉠: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함.
- ② ㉡: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함.
- ③ ㉢: 의사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냄.
- ④ ㉣: 말이나 글 속에 들어 있는 뜻.
- ⑤ ㉤: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

A 02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뗏’,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道)’라 하고 ‘일물(一物)’이라 하고 ‘일심(一心)’이라 하고 ㉠ 대중이 없는데, 하여간 도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늘 밤엔 ‘뗏’이다.

2.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와 이질적인 것은? (05-본수-43)

- ① 상황에 따라 답변을 이리저리해 대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 ② 갈팡질팡하는 정책은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요.
- ③ 항간에선 그가 나랏일을 좌지우지한다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④ 일을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까?
- ⑤ 설명에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2차 세계 대전 중, 태평양의 한 전투에서 일본군은 미군 흑인 병사들에게 자신들은 유색인과 전쟁할 의도가 없으니 투항하라고 선전하였다. 이 선전물을 본 백인 장교들은 그것이 흑인 병사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급하게 부대를 철수시켰다. 사회학자인 데이비슨은 이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 언어서 대중 매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제3자 효과(third-person effect)’ 이론을 발표하였다.

3.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07-본수-22)

- ① 돈을 얻을 곳이 또 어디 없을까?
- ② 책에서 얻은 지혜로 성공할 수 있었다.
- ③ 여행 중에 얻은 병이 아직도 낫지 않았다.
- ④ 발언권을 먼저 얻고 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 ⑤ 늘그막에 자식을 얻더니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 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 드러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를 탈 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 정보 없이 그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될 수도 있다.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라’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 배운 사람이라도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게 된 후에는 그러한 정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다. 자전거 타기

같은 절차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를 마음에 떠올릴 필요는 없다.

표상적 지식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경험적 지식이란 감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지식으로,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가 그 예이다. 물리적 사물들의 특정한 상태, 즉 사과의 둥근 상태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고, 인지 과정을 거쳐 하나의 표상적 지식이 ㉡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한편, 같은 표상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2 + 3 = 5'를 아는 것은 '이 사과가 둥글다'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 '2 + 3 = 5'라는 명제는 감각 경험의 사례들에 의해서 반박될 수 없는 진리이다. 예컨대 물 2리터에 알코올 3리터를 합한 용액이 5리터가 안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감각 경험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 선험적 지식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경험 이외에 지식을 산출하는 ㉢ 다른 인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수학적 지식이 그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믿는다.

4. ㉠~㉢를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본수-36)

- ① ㉠: 천명(闡明)되기도 ② ㉡: 습득(習得)한
- ③ ㉢: 의거(依據)하여 ④ ㉣: 형성(形成)된
- ⑤ ㉤: 별개(別個)의



은행의 핵심 업무는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 유치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하는 일이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경제 관념이 ㉡ 희박하고 소득 창출 능력 또한 ㉢ 떨어지므로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 배제층에게 소액의 창업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 주면서도 은행을 무색케 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 거두는 사례도 있다. 빈곤층의 자활을 지향하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가 그것이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자기 사업을 ㉤ 벌일 인적·물적 자본의 확보가 자활의 핵심 요건이라고 본다.

5. ㉠~㉤의 문맥적 의미를 살려 문장을 만들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9모-50)

- ① ㉠: 정부는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 ② ㉡: 그 사람은 응석받이로 자라 자립심이 희박하다.
- ③ ㉢: 이 옷은 다른 옷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
- ④ ㉣: 그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 ⑤ ㉤: 그 둘은 만나기만 하면 입씨름을 벌인다.

A03 한자 성어의 이해



이와 같이 기술 혁신의 과정은 과도한 비용 지출이나 실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험난한 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술 혁신에 도전했던 기업가와 기술자의 노력 덕분에 산업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 기술 혁신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짚는 이유는, 그러한 위험 요인들을 예측하고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만이 앞으로 다가올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6. ㉠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05-본수-36)

- ① 온고지신(溫故知新) ② 다다익선(多多益善)
- ③ 연목구어(緣木求魚) ④ 일거양득(一舉兩得)
- ⑤ 동상이몽(同床異夢)



“과인이 박덕(薄德)하여 ㉠ 곳곳에 도적이 일어나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오.”
 하고 금부와 포청으로 잡으라 하시니,
 상이 진노하사 형틀에 올려 매고 죄를 추궁하여 왈,
 “네 전일 나라를 속이고 도처마다 장난함도 용서치 못할 일이거늘, 이제 또 역적죄에 들었으니 ㉡ 변명한들 어찌 면하리오.”
 하시고, 나졸을 호령하사 한 매에 죽이라 하시니, 집장과 나졸이 힘껏 치나 능히 또 매를 들지 못하고 ㉢ 팔이 아파 치지 못하거늘,
 우치 아뢰기를,
 “신이 본대 그림 그리기를 잘하니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짐승이 걸어가고 산을 그리면 초목이 나서 자라니 이리므로 명화라 하오니, 이런 그림을 전하지 못하고 죽사오면 ㉣ 어찌 원통치 아니리오.”
 상이 묻기를,
 “너는 ㉤ 방금 죽을 놈이라, 이제 사은함은 무슨 뜻이뇨?”
 - 「전우치전」 -

7. ㉠~㉤를 바꾸어 쓴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8-9모-32)

- ① ㉠-침소봉대(針小棒大)하니
- ② ㉡-목불인견(目不忍見)이리라
- ③ ㉢-수수방관(袖手傍觀)하거늘
- ④ ㉣-각골통한(刻骨痛恨)하리이다
- ⑤ ㉤-기사회생(起死回生)하리니

A 04 속담의 이해



㉠ “세상은 먹구 살게는 마련이야…….”

서 참위가 흔히 하는 말이다. 칼을 차고 훈련원에 나서 병법을 익힐 때는 한번 호령만 하고 보면 산천이라도 물러설 것 같던 그 기개와 오늘의 자기, 한낱 가쾌(家僧)*로 복덕방 영감으로 기생 작부 따위가 사글세 방 한 칸을 얻어 달래도 내에내 하고 따라 나서야 하는 만인의 심부름꾼인 것을 생각하면 서글픈 눈물이 아니 날 수도 없는 것이다. 워낙 술을 즐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남몰래 이런 감회를 이기지 못해서 술집에 들어선 적도 여러 번이다.

- 이태준, 「복덕방」 -

8. ㉠을 속담으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07-9모-19)

- 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 ② 산 입에 거미줄 치라.
- ③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
- ④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다.
- 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마) [엇모리] 이 말이 지듯 마듯 오림산곡 양편에서 고성 화광이 충천, 한 장수가 나온다. 얼굴은 형산백옥 같고 눈은 소상강 물결이다. 이리 허리 곰의 팔, 녹포엄신 갑옷, 팔척 장창 비껴들고 당당위풍 일 포성, 큰 소리로 호령하되,

“네 이놈 조조야. 상산 명장 조자룡(趙子龍)을 아는다 모르는다? 조조는 달지 말고 창 받으라!”

말 놓아 달려들어 등에 얼른 서를 쳐, 남에서 얼른 북을 쳐, 생문으로 내리달아 사문에 와 번뜻! 장졸의 머리가 추풍낙엽이라. 예 와서 번뜻하면 저 가 덩기령 베고, 저 와서 번뜻하면 예 와 덩기령 베고, 백송골이 꿩 차듯, 두꺼비 파리 차듯, 은장도 칼 베듯, 여름날 번개 치듯 흥행행 쳐들어갈 제, 피 흘러 강물 되고 주검이 여산이라.

- 「적벽가(赤壁歌)」 -

9.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마)에서 ‘조조’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07-본수-45)

- ① 범을 피하니 이리가 앞을 막는다.
- ②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⑤ 병 주고 약 준다.

A 05 유의어의 의미 파악

10. 비슷한 뜻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단어들을 모아 의미를 분석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보기>에 제시된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9모-13)

<보 기>

[대상 어휘]

틈, 겨를, 사이

[분석 방법]

1. 주어진 문장의 { }에 있는 단어들을 교체해 보면서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문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단어 앞에 *를 표시한다.
2. 문장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단어의 의미 특성을 파악한다.

[1차 분석 결과]

- ㄱ. 나는 요즘 너무 바빠 쉴 {틈, 겨를, 사이}이/가 없다.
- ㄴ.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벽의 갈라진 {틈, *겨를, *사이}에서 물이 새요.
- ㄷ. 서울과 인천 {*틈, *겨를, 사이}에 신도시가 들어섰다.
- ㄹ. 언니와 나는 {틈, *겨를, *사이}만 나면 싸웠다.

- ① ㄱ을 보면 ‘틈’, ‘겨를’, ‘사이’는 모두 [시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② ㄱ과 ㄴ을 종합하면 ‘틈’은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③ ㄱ과 ㄷ을 종합하면 ‘사이’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④ ㄷ과 ㄹ을 종합하면 ‘사이’와 ‘틈’은 [시간]의 의미를 세분해야 구별할 수 있어.
- ⑤ ㄱ~ㄹ을 종합하면 ‘겨를’은 [시간]의 의미만 지니고 있어.



응오는 진실한 농군이였다. 나이 서른하나로 무던히 철났다 하고 동리에서 ㉠ 쳐주는 모범 청년이였다. 그런데 벼를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거뒀들였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벨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해 동안 애를 ㉡ 졸이며 혼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거뒀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가득한데 옆치고 덮치더라고 올해는 고나마 흉작이였다. 셋바람과 비에 벼는 깨개 비틀렸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빛도 다 못 ㉢ 가릴 모양.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였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이만치 어지간히 속이 튼 건

달이었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 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암말 없이 고개를 ㉠ 모로 흔들었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뭘지 형겅이 가리었다. 붓짐을 등에 짊어 메고는 허리를 구부러 뺩소니를 ㉡ 놓는다.

11. ㉠~㉡를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본수-19)

- | | |
|-----------|----------|
| ① ㉠: 알아주는 | ② ㉡: 태우며 |
| ③ ㉠: 갓을 | ④ ㉡: 거칠게 |
| ⑤ ㉠: 친다 | |

A 06 반의어의 이해 및 적용

12. <보기 1>을 참조하여 <보기 2>의 빈칸을 채울 때, [A]~[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06-본수-14)

—<보기 1>—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그래서 반의어도 여러
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뛰었다.”에서 ‘뛰다’의 반의어
는 ‘걸다’이지만 “물가(物價)가 뛰었다.”에서는 ‘떨어지다’가 된
다.

—<보기 2>—

| 단어 | 예 문 | | 반의어 |
|----|--------------------------|---|-------|
| 서다 | 버스에 자리가 없어서 한참 동안 서서 왔다. | ↔ | 앉다 |
| | 고장이 나서 시계가 서 버렸다. | ↔ | [A] |
| | [B] | ↔ | 깨이다 |
| | 기강이 서야 사회가 안정된다. | ↔ | [C] |

- | [A] | [B] | [C] |
|------|--------------------|------|
| ① 가다 | 가족에게 위신이 서서 기뻐다. | 내리다 |
| ② 가다 | 토끼의 귀가 쫑긋 섰다. | 내리다 |
| ③ 가다 | 회장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았다. | 무너지다 |
| ④ 죽다 | 바지의 주름이 잘 섰다. | 무너지다 |
| ⑤ 죽다 | 친구와 같은 입장에 서서 말했다. | 벗어나다 |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후(後) 채택 이론(post-adoption theory)’에 따르면, 정보 격차는 다차원으로 존재하며 지속된다. 저렴한 디지털 매체의 보급과 함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로 정보 격차를 설명하는 이분법적 논리는 설득력이 ㉞ 떨어진다.

13. ㉞는 <보기 1>에서 보듯이 ‘기본적 의미’의 반대말과 ‘확장된 의미’의 반대말이 다르다. <보기 2>에서 이와 같은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07-9모-43)

<보기 1>

| | ‘기본적 의미’의 반대말 | ‘확장된 의미’의 반대말 |
|------|------------------|-----------------------------|
| 떨어지다 | 올라가다 | (설득력이) 떨어지다 ↔ (설득력이) [높다] |

<보기 2>

| | ‘기본적 의미’의 반대말 | ‘확장된 의미’의 반대말 |
|-------|------------------|----------------------|
| ㄱ. 풀다 | 묶다 | (감정을) 풀다 ↔ (감정을) [] |
| ㄴ. 주다 | 받다 | (겉을) 주다 ↔ (겉을) [] |
| ㄷ. 열다 | 닫다 | (입을) 열다 ↔ (입을) [] |
| ㄹ. 빨다 | 삼키다 | (말을) 빨다 ↔ (말을)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07 어휘 간의 관계 파악



연상이라는 것이 비록 언어의 규칙 기반적인 다른 측면들처럼 명쾌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한다 해도, 그동안의 연구 결과 사람들은 주로 ㉠ 등위적, 배열적, 상위적, 동의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4. <보기>의 예들을 ㉠의 구분에 따라 알맞게 나열한 것은? (07-6모-45)

<보 기>

ㄱ. 고무 - 줄 ㄴ. 잠자리 - 채 ㄷ. 두껍다 - 얇다
 ㄹ. 남자 - 사람 ㅁ. 북쪽 - 남쪽

| | <u>등위적 연결</u> | <u>배열적 연결</u> | <u>상위적 연결</u> |
|---|---------------|---------------|---------------|
| ① | ㄱ | ㄴ | ㄷ |
| ② | ㄷ | ㄱ | ㄷ |
| ③ | ㄷ | ㄱ | ㅁ |
| ④ | ㅁ | ㄷ | ㄷ |
| ⑤ | ㅁ | ㄷ | ㄴ |



소리굽쇠는 굽기가 일정한 금속 사각 막대를 U자형으로 구부리고 아래쪽에 쇠기둥을 ㉠ 단단하게 용접한 것으로, 작은 망치로 때리면 일정한 진동수의 음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샤이블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른 진동음을 내는 두 개의 소리굽쇠가 만들어 내는 맥놀이 진동수를 세는 방법을 사용했다. 맥놀이란 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개의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 소리가 주기적으로 ㉡ 세어졌다 ㉢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다.

15. ㉠, ㉡, ㉢의 의미 관계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이런 배열로 보기 어려운 것은? (07-6모-60)

<보 기>

단단하다 ← 반의 관계 → 약하다 ← 반의 관계 → 세다

- ① 어리다 ↔ 젊다 ↔ 늙다
- ② 나쁘다 ↔ 좋다 ↔ 싫다
- ③ 받다 ↔ 주다 ↔ 빼앗다
- ④ 밟다 ↔ 굽다 ↔ 거칠다
- ⑤ 밀다 ↔ 당기다 ↔ 늦추다

A 08 문맥에 적절한 어휘 선택



- (가) 최근 미국의 한 대학 총장이 “여성은 선천적으로 수학과 과학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발언했다가 거센 반발을 샀다. 이처럼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남녀 사이의 특성 차이를 거론한다. 지능 지수의 평균 점수는 차이가 없지만, 검사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성은 언어적 능력에서, 남성은 수학적 능력과 공간 지각 능력에서 우수하다는 증거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지적인 능력은 아니지만 공격성이라는 특성에서도 성차(性差)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 (나) 남녀 간에 성차가 존재한다고 보는 이들은 그 원인을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한다. 유전적 설명에서는 남녀가 몇 가지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환경적 설명에서는 성차가 사회적·교육적 환경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유전적인 설명 자체에 강하게 반발한다.
- (다) 그러나 적어도 평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차에 대한 유전적 설명이 옳은가 환경적 설명이 옳은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대신 이런 설명들이 평등이라는 이상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유전적 설명이 그런 것으로 드러난다면 성차에 근거한 차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녀 간의 차별을 옹호하고 평등의 원칙을 거부하는 근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다. 유전적 설명이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그 시도 자체에 반대할 경우, 뜻밖에도 유전적 증거들이 확인된다면 아주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가정해서 그 의미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 (라) 성차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차이는 오직 평균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남성의 공간 지각 능력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유전적 가설까지도 여성의 1/4이 남성의 절반보다 공간 지각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실제로 주변에서 남정보다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여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전적 설명이 맞든 안 맞든 간에, 너는 여자니까 엔지니어가 될 수 없다든지 너는 남자니까 야기를 돌볼 수 없다든지 하는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
- (마) 우리가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 각각을 하나의 개별체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성차가 유전적으로 존재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다고 해도 그렇다. 하물며 단순히 편견에 의존해서 집단 간에 차이를 부여하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16. <보기>의 문맥을 고려할 때, ㉠~㉤에 적합한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06-6 모-45)

<보 기>

○ 이 문제는 아직까지 (㉠)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 어떤 학설이든 (㉡)이 되기 전에는 정설이라고 할 수 없다.
 ○ 이 작품은 어려워서 (㉢)을 듣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 모두 자신이 옳다는 (㉣)을 굽히지 않아서 합의하기가 어렵다.

- ㉠ ㉡ ㉢ ㉣
- ① 거론 - 설명 - 입증 - 주장
 ② 거론 - 입증 - 설명 - 주장
 ③ 입증 - 주장 - 설명 - 거론
 ④ 주장 - 설명 - 거론 - 입증
 ⑤ 주장 - 입증 - 거론 - 설명



발명가 디젤은 디젤 엔진이 작고 경제적인 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전에는 크고 육중한 것만 만들어졌다. 하지만 ㉠ 그 후 디젤의 기술적 유산은 이 발명가가 꿈꾼 대로 널리 보급되었다. 디젤 엔진은 원리상 가솔린 엔진보다 더 튼튼하고 고장도 덜 난다. 디젤 엔진은 연료의 품질에 민감하지 않고 연료의 소비 면에서도 경제성이 뛰어나 오늘날 자동차 엔진용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17. ㉠의 이유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문맥상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6-본수-23)

<보 기>

디젤 엔진 제작 기술이 ()되어 보다 작고 경제적인 것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 ① 개조(改造) ② 개선(改善) ③ 진보(進歩)
 ④ 향상(向上) ⑤ 발전(發展)

A 09 단어의 구조 파악



[A] 이른바 사은유(死隱喩)의 대부분이 신체 일부의 이름을 빌려 쓰는 현상도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언어 표현이다. 바늘에서 실을 꿰는 부분을 ‘바늘귀’라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인 ‘귀’를 빌려 바늘의 특정 부분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 나왔다. 영어에도 ‘eye of a needle’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은, 신체 부분이 화자와 가장 가깝고 친숙한 것이므로 이를 빌려서 사물을 표현하는 현상이 범언어적임을 말해 준다.

18. [A]의 논지로 볼 때, ‘바늘귀’와 같은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06-9모-41)

- ① 입방아를 찧다. ② 말허리를 자르다.
- ③ 상다리가 부러지다. ④ 병목 현상이 생기다.
- ⑤ 치마가 버선코를 가리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눈 ㉠ 벽돌집을 얼음집으로 변하게 한다.

19. <보기>를 참조할 때, 단어의 구조가 ㉠과 다른 것은? (06-본수-38)

<보 기>

‘벽돌집’은 ‘재료 + 대상’의 의미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뜻이다.

- ① 두부콩 ② 유리창 ③ 보리밥
- ④ 비단옷 ⑤ 밀짚모자

20.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08-6모-11)

<보 기>

- ‘쇠고기’와 ‘소고기’는 모두 표준어이다.
- 옛날에는 ‘쇠고기’를 ‘쇠고기(쇼+익+고기)’라고 했다. 이 경우 ‘쇼+익(관형격 조사)’는 ‘쇠’로 축약된다.
- 옛날에는 ‘돼지고기’를 ‘도티고기(둘+익+고기)’라고 했다.

- ① ‘쇠고기’는 옛말의 구조를 고려할 때 소의 고기라는 뜻이군.
- ② ‘쇠고기’는 여러 단어가 합쳐져 한 단어로 발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쇠고기’의 옛말은 ‘돼지고기’의 옛말과 그 구조가 달랐다는 말이군.
- ④ ‘소고기’는 동물 이름에 바로 ‘고기’가 붙은 단어이군.
- ⑤ ‘닭고기’의 옛말은 ‘들기고기(둘+익+고기)’라고 했겠군.

A 10 문장 구조/성분의 이해와 탐구

21.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5-본수-13)

<보 기>

ㄱ. 담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ㄴ.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ㄷ.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

- ① 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 문장입니다.
 - ② 그런데 ㄱ, ㄴ, ㄷ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 ③ ㄱ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생략된 주어는 ‘담정’입니다.
 - ④ ㄴ에서는 밑줄 친 부분뿐 아니라 ‘그가 착한’과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도 안긴 문장입니다.
 - ⑤ 이처럼 우리말은 문장 속에 문장을 안은 형태로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2. 문장에서 일부 문장 성분들을 생략하거나 보충하는 활동을 통해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9모-14)

<보 기>

ㄱ.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
 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ㄷ. 그 아이는 예쁘게 생겼다.
 ㄹ. 작은 것이 아름답다.
 ㅁ. 우리도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 ① ㄱ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서술어야.
- ② ㄴ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네 개야.
- ③ ㄷ을 보면 부사어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 ④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될 수 있지만 ㄷ처럼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
- ⑤ ㅁ에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를 보충해야 해.

23. <보기>를 참고할 때, 문장 구조가 다름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06-9모-14)

<보 기>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놓다'는 '...에 ...을 놓다' 구조로 쓰이느냐, '...을 놓다'의 구조로 쓰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전자는 "(어떤 장소에 무엇을) 두다[置]"의 뜻에 가까우나, 후자는 "(잡고 있던 것을) 풀다[放]"에 가깝다.

- ① ┌우리 형은 세상 물정에 밝다.
 └오늘밤은 유난히 달이 밝다.
- ② ┌나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
 └그 설명은 수궁이 간다.
- ③ ┌우리 팀은 상대 팀에 깨지고 말았다.
 └둘 사이의 약속이 깨진 원인은 무엇일까?
- ④ ┌철수는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싫어한다.
 └이 집안에는 딸의 행동을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다.
- ⑤ ┌선생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커피 잔을 기울이는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다.

A 11 표준어 규정의 이해 및 적용

24. <보기 1>과 같은 표준어 규정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6-본수-13)

—<보기 1>—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오뚝이(x) → 오뚝이(○), 쌍둥이(x) → 쌍둥이(○) 등.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ㄱ | ㄴ | 비 고 |
|--------|----|--------|
| 부조(扶助) | 부주 | ~돈, ~금 |
| 사돈(查頓) | 사둔 | 발~, 안~ |
| 삼촌(三寸) | 삼춘 | 외~, 처~ |

—<보기 2>—

㉠ 그 아이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며 어쩔 줄 몰라 했다.

㉡ 내가 그 애와 똑같다며 쌍둥이가 아니냐고 묻곤 했다.

㉢ 어릴 때부터 삼촌은 나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 ① ㉠의 '깡충깡충'을 '깡충깡충' 대신 표준어로 정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겠군.
- ② ㉡의 '쌍둥이'를 보니 '막둥이'나 '흰둥이'도 예전에는 '막둥이', '흰둥이'였겠군.
- ③ ㉢의 '삼촌' 대신 '삼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원을 고려하여 '삼촌'으로 사용하는 것이군.
- ④ ㉠의 '깡충깡충'과 ㉢의 '삼촌'은 둘 다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겠군.
- ⑤ 대다수 언중들의 발음 습관이 달라져 굳어지면, 그 어휘들의 표준어형도 달라질 수 있겠군.

A12 어법의 탐구

25. 국어 수업 시간에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6-6모-13)

<보 기>

-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철수야, 어디로 갈까?
- 선생님, 빨리요.
철수야, 빨리.
- 더우면요 창문을 열까요?
더우면 창문을 열까?
- 마음은요 더없이 좋지요.
마음은 더없이 좋지.

- ① '요'가 빠져도 문장이 성립하는구나.
- ② 생략되더라도 존대 여부만 달라지는구나.
- ③ '요'가 붙어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구나.
- ④ 종결 어미 뒤에 쓰일 때만 듣는 사람을 존대하는구나.
- ⑤ 주어나 부사어, 연결 어미나 종결 어미 뒤에 나타나는구나.

B. 사실적 사고

B01 정보의 개괄적 확인



사회자 : 안녕하세요? 최근 유네스코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문화 다양성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 교수님, 이 협약이 갖는 성격과 의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 교수(여) : 문화 다양성 협약이란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즉, 각 나라가 자국의 문화 정책을 자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국제 규범이죠. 따라서 각 나라가 자국의 다양한 문화 지원 정책이나 재정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사회자 : 네, 그러면 이 협약이 채택된 배경에 대해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교수(남) : 네, 그동안 세계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모든 영역에서 자유시장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문화 영역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 결과 몇몇 강대국의 소비적인 대중문화가 전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여 각국이 지닌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파괴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문화 상품은 다른 상품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사회자 : 이 협약이 우리 문화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교수 : 네, 앞으로 우리 문화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산업 육성과 관련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문화 산업이 장차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교수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협약의 근본정신인 문화 다양성의 뜻을 감안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도 균형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는 말을 보태고 싶습니다.

사회자 : 네, 그렇겠군요. 그런데 이 협약이 앞으로 얼마나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 협약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효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교수 : 글썄요. 대다수 국가가 이 협약에 찬성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이를 비준하지 않는다면 이 협약은 선언적인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교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와 입장이 같은 나라들과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한다면, 국제법으로 충분히 효력이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문화와 관련한 통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6. (물음) 이 좌담을 통해 알 수 없는 내용은? (06-본수-5)

- ① 협약의 의의
- ② 협약의 채택 배경
- ③ 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전망
- ④ 협약에 규정된 분쟁 조정 절차
- ⑤ 협약이 우리 문화 산업에 미칠 영향



언어는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야 지속된다. 그러므로 성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진 셈이다. 언어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추리하여 인류 역사에 드리워진 비극에 대해 경고한다. 한 언어학자는 현존하는 북미 인디언 언어의 약 80%인 150개 정도가 빈사 상태에 있다고 추정한다.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북부에서는 기존 언어의 90%인 40개 언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23%인 160개 언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90%인 225개 언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기존 언어의 50%인 대략 3,000개의 언어들이 소멸해 가고 있다고 한다.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약 600개의 언어들은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 있지만, 세계 언어 수의 90%에 달하는 그 밖의 언어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소멸할지도 모른다.

언어가 이처럼 대규모로 소멸하는 원인은 중첩적이다.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가 파괴되고, 종족 말살과 동화(同化)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 외에 '문화적 신경가스'라고 불리는 전자 매체가 확산되는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물론 우리는 소멸을 강요하는 사회적, 정치적 움직임들을 중단시키는 한편, 토착어로 된 교육 자료나 문학 작품,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함으로써 언어 소멸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라도 20세기의 히브리 어처럼 지속적으로 공식어로 사용할 의지만 있다면 그 언어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

합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나 식물 종들을 보존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언어를 보존할 수는 없으며, 어쩌면 그래서는 안 되는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언어 공동체가 경제적 발전을 보장해 주는 주류 언어로 돌아설 것을 선택할 때, 그 어떤 외부 집단이 이들에게 토착 언어를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공동체 내에서 이질적인 언어가 사용되면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전 세계 언어의 50% 이상이 빈사 상태에 있다면 이를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다.

왜 우리는 위험에 처한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가 지닌 언어 능력의 범위를 보여 준다. 언어는 인간의 역사와 지리를 담고 있으므로 한 언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역사적 문서를 소장한 도서관 하나가 통째로 불타 없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또 언어는 한 문화에서 시, 이야기, 노래가 존재하는 기반이 되므로, 언어의 소멸이 계속되어 소수의 주류 언어만 살아남는다면 이는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해치는 셈이 된다.

2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07-본수-57)

- ① 언어의 소멸 가능성은 사용 인구의 수와 연관이 있다.
- ② 언어의 소멸은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를 파괴한다.
- ③ 언어의 소멸에는 전자 매체도 영향을 미친다.
- ④ 언어의 소멸을 막으려는 노력은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 ⑤ 언어의 소멸은 문화의 손실을 가져온다.



(가) [중모리] 창황분주 도망을 갈 제 새만 푸루루루 날아 나도 복병인가 의심하고, 낙엽만 퍼뜩 떨어져도 추병인가 의심하여, 엎어지고 자빠지며 오림산 험한 산을 반생반사 도망을 간다.

(나) [아니리] 조조(曹操) 가다 목을 움쭉움쭉하니 정욱(程昱)이 여짜오되,

“승상님 무게 많은 중에, 말 허리에 목을 어찌 그리 움치시나이까?”

“야야, 화살이 귀에서 앵앵하며 칼날이 눈에서 번뜻번뜻 하는구나.”

“이제는 아무 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여 사면을 살펴보옵소서.”

“야야, 진정으로 조용하나?”

조조가 목을 막 늘여 좌우 산천을 살펴보려 할 제, 의외에 말 굽통 머리에서 메추리 표루루루 하고 날아 나니 조조 깜짝 놀라,

“아이고 정욱아, 내 목 떨어졌다. 목 있나 봐라.”

“눈치 밝소. 조그만한 메추리를 보고 놀랄진대 큰 장끼를 보았으면 기절할 뻔하였소그려.”

조조 속없이,

“야 그게 메추리냐? 그놈 비록 자그마한 놈이지만 냄비에다 물 붓고 갖은 양념 하여 보글보글 볶아 놓으면 술안주 몇 점 참 맛있느니라만.”

“입맛은 이 통에라도 안 변하였소그려.”

조조가 좌우 산천을 살펴보니,

(다) [중모리]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총잡한데, 골짜기 눈 쌓이고 봉우리 바람 칠 제, 화초 목실 없었으니 앵무 원앙이 그쳤는데 새가 어이 올라마는, 적벽 싸움에 죽은 군사 원조(怨鳥)라는 새가 되어 조 승상을 원망하여 지지거려 우더니라. 나무 나무 끝끝 트리 앉아 우는 각 새 소리. 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런고. 귀촉도 귀촉도 불여귀라, 슬피 우는 저 초혼조. 여산 군량이 소진하여 촌비 노략 한때로구나, 소텡 소텡 저 흥년새. 백만 군사를 자랑터니 금일 패전이 어인 일고, 입뺨쪽 입뺨쪽 저 뺨쪽 새. 자칭 영웅 간곳없고 도망할 길을 피로만 낸다, 피꼬리 수리루리루 저 피꼬리. 들판 대로를 마다하고 심산 숲 속에 고리각 까옥 저 까마귀. 가련타 주린 장졸 냉병인들 아니 들라, 병에 좋다고 쑥국 쑥쑥국. (중략)

처량하구나 각 새 소리. 조조가 듣더니 탄식한다.

“울지를 말아라. 너희가 모두 다 내 제장 죽은 원귀가 나를 원망하여서 우는구나.”

(라) [아니리] 탄식하던 끝에 ‘히히히, 해해해’ 대소하니 정육이 기가 막혀,
“여보시오 승상님, 근근도생 창황 중에 슬픈 신세 생각지 않고 무슨 일로 웃나이까?”
조조 대답하되,

“내 웃는 게 다름 아니라 주유(周瑜)는 피가 없고 공명(孔明)은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노라.”

(마) [엇모리] 이 말이 지듯 마듯 오림산곡 양편에서 고성 화광이 충천, 한 장수가 나온다. 얼굴은 형산백옥 같고 눈은 소상강 물결이라. 이리 허리 곰의 팔, 녹포엄신 갑옷, 팔척 장창 비껴들고 당당위풍 일 포성, 큰 소리로 호령하되,

“네 이놈 조조야. 상산 명장 조자룡(趙子龍)을 아는다 모르는다? 조조는 단지 말고 창 받으라!”

말 놓아 달려들어 동에 얼른 서를 쳐, 남에서 얼른 북을 쳐, 생문으로 내리닫아 사문에 와 번뜻! 장졸의 머리가 추풍낙엽이라. 예 와서 번뜻하면 저 가 탕기령 베고, 저 와서 번뜻하면 예 와 탕기령 베고, 백송골이 꿍 차듯, 두꺼비 파리 차듯, 은장도 칼 베듯, 여름날 번개 치듯 흥행행 쳐들어갈 제, 피 흘러 강물 되고 주검이 여산이라.

- 「적벽가(赤壁歌)」 -

2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07-본수-41)

- ① 봄빛이 완연한 산속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② 군사를 다 잃은 조조가 정육과 단둘이 도망가고 있다.
- ③ 조조는 숲에 숨어들어 적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다.
- ④ 조조는 큰 낭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
- ⑤ 조조는 전쟁 중에 죽은 장졸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B02 세부 정보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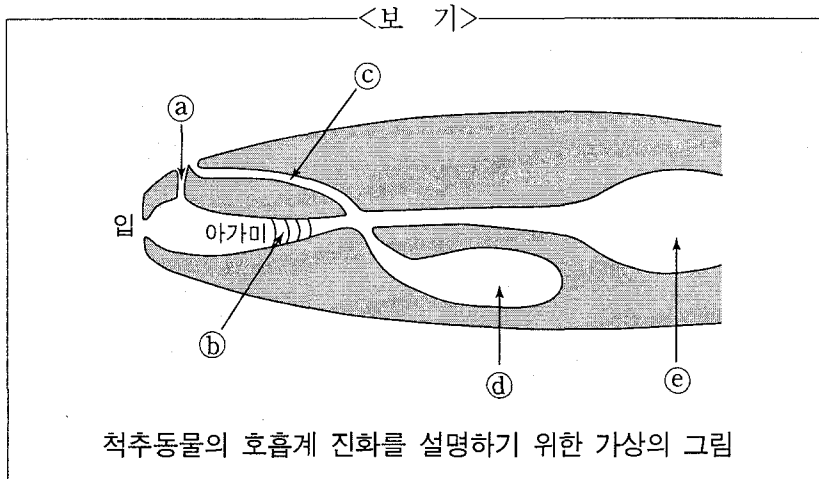
지구상에서는 매년 약 10만 명 중의 한 명이 목에 걸린 음식물 때문에 질식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호흡 기관[기도]과 소화 기관[식도]이 목구멍 부위에서 교차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인간과 달리, 곤충이나 연체동물 같은 무척추동물은 교차 구조가 아니어서 음식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없다. 인간의 호흡 기관이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바다 속에 서식했던 척추동물의 조상형 동물들은 체와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물 속의 미생물을 걸러 먹었다. 이들은 몸집이 아주 작아서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가 몸 깊숙한 곳까지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호흡계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몸집이 커지면서 먹이를 거르던 체와 같은 구조가 호흡 기능까지 갖게 되어 마침내 아가미 형태로 변형되었다. 즉, 소화계의 일부가 호흡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 후 호흡계의 일부가 변형되어 허파로 발달하고, 그 허파는 위장으로 이어지는 식도 아래쪽으로 뻗어 나갔다. 한편,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는 콧구멍에서 입천장을 뚫고 들어가 입과 아가미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진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폐어(肺魚) 단계의 호흡계 구조이다.

이후 진화 과정이 거듭되면서 호흡계와 소화계가 접하는 지점이 콧구멍 바로 아래로부터 목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 결과 머리와 목구멍의 구조가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흡계와 소화계가 점차 분리되었다. 즉, 처음에는 길게 이어져 있던 호흡계와 소화계의 접친 부위가 점차 짧아졌고, 마침내 하나의 교차점으로만 남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인간을 포함한 고등 척추동물에서 볼 수 있는 호흡계의 기본 구조이다. 따라서 음식물로 인한 인간의 질식 현상은 척추동물 조상형 단계를 지나 자리 잡게 된 허파의 위치—당 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을—때문에 생겨난 진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진화는 반드시 이상적이고 완벽한 구조를 창출해 내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화 과정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최선의 구조가 선택되지만, 그 구조는 기존의 구조를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낸 최상의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진화는 불가피하게 타협적인 구조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순간순간의 필요에 대응한 결과가 축적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질식의 원인이 되는 교차된 기도와 식도의 경우처럼, 진화의 산물이 우리가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9. 위 글에 따라, '폐어 단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호흡계 구조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05-본수-25)



- ① a, b, c ② a, b, d ③ b, d, e
 ④ a, b, c, d ⑤ a, c, d, e



문자는 사물이나 자연 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림 문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림 문자를 추상화하고 모양을 간략하게 한 것이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이다. 표의 문자는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글자로 표시해야 했기 때문에 점점 수가 늘어나 기억하기가 불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표의 문자보다 글자 수가 훨씬 적으며, 글자를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발음 표시 기호로 사용하는 표음 문자가 만들어졌다. 이 표음 문자는 음절 전체를 하나의 글자로 나타낸 음절 문자와, 더 나아가 자음과 모음 각각을 글자로 나타낸 음운 문자로 다시 나뉜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자 중에서 음절 문자에는 일본의 가나가, 음운 문자에는 영어 알파벳이 있다.

한글은 문자 발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음운 문자에 속한다. 그런데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점, 가획을 통해 소리를 자형(字形)과 관련시키고 있는 점 등 매우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들 중 특별히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음운 문자와는 별도로 '자질 문자'를 설정하고 한글을 여기에 귀속시키기도 한다. 즉, 발음 위치가 같은 쌍인 'ㄱ, ㅋ'과 'ㄷ, ㅌ'에서 추가된 획은 '거셈'이라는 자질을 나타내므로 한글을 자질 문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질 문자'란 명칭은 자질 자체를 글자로 만든 것에 붙여야 한다. 다시 말해, '거셈'이라는 자질이 자형에 반영되기만 해서 안 되고, 이 자질이 하나의 독립된 글자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글을 완전한 의미의 자질 문자로 보기는 어렵다.

문자 발달사의 단계가 반드시 문자의 우수성의 정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글이 자질 문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사실 각 문자 부류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의 문자는 음성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쉽다는 장점을, 음절 문자는 실제 말소리의 단위인 음절을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진

다. 음운 문자는 적은 수의 글자로 문자 생활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며, 더욱이 한글처럼 자질 문자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으면 자형끼리의 유사성에 의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까지 추가로 가지게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글이 몇 가지 문자 부류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문자가 서로 다른 문자 부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는 흔히 발견된다. 한자는 표의 문자이지만, '印度, 伊太利[나라 이름]처럼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에는 주로 글자의 음을 이용하므로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한글은 음운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음과 모음을 한 글자로 모아 씌으로써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글은 문자 발달사의 각 단계 문자 부류들이 보여 주는 장점들을 다른 문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음운 문자이므로 효율적이고,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배우기가 쉬울 뿐 아니라, 모아쓰기를 함으로써 음절 문자의 장점도 취하고 있는 것이다.

30. 한자와 한글을 대비하기 위하여 위 글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ㄱ~ㄷ에 들어갈 말은? (05-본수-45)

<보 기>

| 비교 항목 | 한자 | 한글 |
|---------------|-------|------------------|
| 문자 분류 | 표의 문자 | 표음 문자 (음운 문자) |
| 자형에 반영된 특성 | 언급 없음 | (ㄱ) |
| 문자 운용에 이용된 특성 | (ㄴ) | (ㄷ) |

- | | | |
|---------|-------|-------|
| ㄱ | ㄴ | ㄷ |
| ① 자질 문자 | 음운 문자 | 음절 문자 |
| ② 음절 문자 | 음운 문자 | 자질 문자 |
| ③ 자질 문자 | 음절 문자 | 음절 문자 |
| ④ 음운 문자 | 자질 문자 | 음절 문자 |
| ⑤ 자질 문자 | 음운 문자 | 음운 문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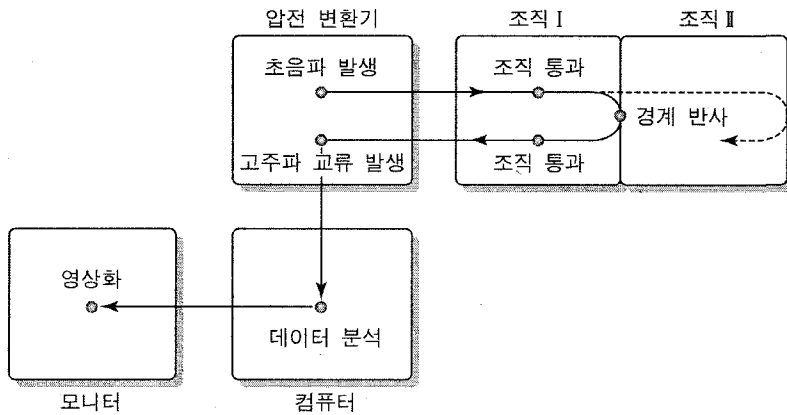


초음파 진단 장치는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소리를 사용한다. 일반적인 소리는 사람의 귀로 감지할 수 있지만 초음파는 진동수가 20,000 Hz가 넘어서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이다. 인체를 진단하는 도구로 초음파를 사용하게 된 것은, 그것이 짧은 파장을 가지므로 투과성이 강하고 직진성이 탁월할 뿐 아니라 미세한 구조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 진단 장치에는 초음파를 만들어 내고 감지하기 위한 압전(壓電) 변환기라는 특수한

장치가 있다. 압전 변환기의 핵심 부품인 압전 소자는 압력을 받으면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압전 효과라고 한다. 초음파를 압전 소자에 가해 주면 압전 소자에 미치는 공기의 압력이 변하면서 압전 효과로 인해 고주파 교류가 발생한다. 역으로 높은 진동수의 교류 전압을 압전 소자에 걸어 주면 압전 소자가 주기적으로 신축하면서 초음파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역압전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압전 소자는 압전 변환기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음파를 감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압전 변환기는 마이크와 스피커의 역할을 모두 하는 셈이다.

31. 그림은 초음파 진단 장치의 작동 과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나타나는 단계는? (08-6모-28)



- ① 초음파 발생
- ② 경계 반사
- ③ 고주파 교류 발생
- ④ 데이터 분석
- ⑤ 영상화

B03 정보(개념, 인물) 간의 관계 파악



(다) 그날 황혼 천하에 공지(空地) 없음을 한탄하며 뉘 집 이층에서 저물어 가는 도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실로 덕수궁 연못 같은, 날만 따뜻해지면 제 출몰에 해소될 영성한 공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참 ㉠ 훌륭한 공지를 하나 발견하였다.

○○보험회사 신축 용지라고 대서특서한 높다란 판장(板牆)으로 둘러막은 목산(目算)*법 천 평 이상의 ㉡ 명실상부의 공지가 아닌가.

잡초가 우거졌다가 우거진 채 말라서 일면이 세피아 빛으로 덮인 실로 ㉢ 황량한 공지인 것이다. 입주의 여지가 가히 없는 이 대도시 한복판에 이런 인외경(人外境)의 감을 풍기는 적지 않은 공지가 있다는 것은 기적 아닐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제법 교외로 산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세상 인심이 좋아서 모두들 묵허(默許)를 해 주니까 향유할 수 있는 사치다. 하나도 공지가 없는 이 세상에 어디로 갈까 하던 차에 이런 ㉣ 공지다운 공지를 발견하고 저기 가서 두 다리 쪽 뺨고 누워서 담배나 한 대 피웠으면 하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보험회사가 이윤을 기다리고 있는 건조물인 것을 깨달았다.

봄이 왔다. 가난한 방안에 왜꼬아리 분(盆) 하나가 철을 찾아서 요리조리 싹이 튼다. 그 닳끔 한 되도 안 되는 흙 위에다가 늘 잉크병을 올려놓고 하다가 싹트는 것을 보고 잉크병을 치우고 겨우내 그대로 두었던 낙엽을 거두고 맑은 물을 한 주발 주었다.

그리고 천하에 공지라곤 요 분 안에 놓인 땅 한 군데밖에는 없다고 좋아하였다. 그러나 두 다리를 뺨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기에는 이 ㉤ 동글납작한 공지는 너무 좁다.

- 이상, 「조춘점묘(早春點描)」 -

32. (다)의 ㉠~㉤ 중, 같은 장소를 가리키지 않는 것은? (06-본수-29)

- ① ㉠ ② ㉡ ③ ㉢ ④ ㉣ ⑤ ㉤



용왕 왈,
 [A] “이 곡조는 용궁에도 옛날에는 없더니 과인의 만딸이 경하강(涇河江) 용왕의 아들에게 시집갔다가 옥을 당하매 유의(柳毅)*가 편지로 전하거늘, 전당강(錢塘江)에 사는 아우가 경하강에 가 싸움해 이기고 여아를 데려오니 궁중 사람이 글을 만들어 전당 파진악(錢塘破陣樂)과 귀주 환궁악(貴主還宮樂)이라 하여 이따금 궁중 잔치에 쓰더니, 이제 원수께서 남해 태자를 이기고 부녀 서로 모임이 전일과 방불할새 이 곡조를 내고 이름을 고쳐 원수 파진악(元帥破陣樂)이라 하나이다.”

33. [A]는 '유의전'의 이야기를 빌려와 쓴 부분이다. '구운몽'과의 대응 구조를 표로 나타낼 때, ㉠, ㉡에 알맞은 것은? (07-6모-26)

| | 유의전 | 구운몽 |
|-------|------------|-------------|
| 구출자 | ㉠ | 양소유 |
| 적대자 | 경하강 용왕의 아들 | ㉡ |
| 구출 대상 | 동정호 용왕의 맏딸 | 동정호 용왕의 작은딸 |

- | ㉠ | ㉡ |
|--------------|------------|
| ① 육관 대사 | 남해 태자 |
| ② 남해 태자 | 동정호 용왕의 아우 |
| ③ 남해 태자 | 동정호 용왕 |
| ④ 동정호 용왕 | 남해 태자 |
| ⑤ 동정호 용왕의 아우 | 남해 태자 |



예술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베토벤의 교향곡이나 ㉠ 발레 '백조의 호수' 같은 것이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물론 이 대답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질문이 이것들 모두를 예술 작품으로 특징짓는 속성, 곧 예술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그 대답은 무엇이 될까?

사실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 어떤 그룹에 속한 것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속성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다면 대체 이들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예술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도 이러한 가정 하에서 전개되었다. 그래서 예술은 곧 모방이라는 서양의 전통적 시각이나, 예술은 감정의 표현이라는 주장, 또 예술은 형식이라는 주장까지 모두 예술의 본질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정답으로 경쟁한다면, 그 중 어느 것이 정말 예술의 본질인가?

20세기 들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이 문제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비트겐슈타인은 '게임'을 예로 든다. 누군가가 게임의 본질적 속성을 '경쟁'으로 본다고 해 보자. 곧 반례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은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졌지만 게임은 아니다. 한편 게임 중에도 경쟁이 아닌 것이 있다. 무료한 시간에 ㉢ 혼자 하는 카드놀이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져 가다 보면 모든 게임에 공통적인 하나의 본질을 찾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이 바로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한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게임은 본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게임이라 불리는 것들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성립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경우 발견되는 유사성을 '가족 유사성'이라 부르기 해 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머니와 나와 ㉣ 동생의 외양은 이런저런 면에서 서로 닮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셋이 공통적으로 닮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비슷한 예로 실을 꼬아 만든 **밧줄**은 그 밧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실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실들**의 연속된 연계를 통해 구성된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전혀 만나지 않는 실들도 같은 밧줄 속의 실일 수 있다.

미학자 와이츠는 예술이라는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장한다. 그에게 예술은 가족 유사성만을 갖는 ‘열린 개념’이다. 열린 개념이란 주어진 대상이 이미 그 개념을 이루고 있는 **㉔ 구성원 일부와 닮았다면**, 그 점을 근거로 하여 얼마든지 그 개념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만큼 테두리가 열려 있는 개념을 말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예술론인 표현론이나 형식론은 있지도 않은 본질을 찾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된다. 와이츠는 표현이니 형식이니 하는 것은 예술의 본질이 아니라 차라리 좋은 예술의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는 열린 개념으로 예술을 보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창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예술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접이라고 주장한다.

34. ㉔에서 ‘밧줄’과 ‘짧은 실’의 관계로 보아 ㉔~㉔ 중, 문맥상 이질적인 하나는?

(07-9모-52)

- ① ㉔ ② ㉔ ③ ㉔ ④ ㉔ ⑤ ㉔



심해 열수구 지역의 우점종은 ‘리프티아’라고 불리는 커다란 관벌레인데, 매우 독특하게 진화된 영양 방식을 갖고 있어서 입이나 소화 기관이 없다. 그 대신에 관벌레는 ‘영양체(trophosome)’라고 불리는 매우 특수한 기관이 있는데, 그 안에는 **㉔ 세균**이 가득 차 있다. 리프티아의 몸통은 기다란 관의 안쪽에 들어 있다. 관의 바깥쪽으로 돌출된 밝고 붉은색의 깃털구조는 아가미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산화탄소와 산소, 그리고 황화수소를 교환한다. **㉔ 관벌레**의 순환계는 매우 잘 발달되어 있고, 순환계 속의 혈액은 황화수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특수한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관벌레는 황화수소를 세균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그 세균들은 화학 합성을 통해서 관벌레에게 먹이가 될 유기물을 공급하며, 관벌레는 세균이 필요로 하는 황화수소를 비롯한 무기물을 공급한다.

35. ㉔과 ㉔의 관계가 나타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08-6모-38)

- ① 갑각류의 일종인 등각류의 일부 종들은 산호초 지역에 서식하는 어류의 표피에 붙어서 그 체액을 빨아 먹고 산다.
- ② 열대 산호초에 사는 놀래기는 곰치의 입 안에 남아 있는 찌꺼기나 곰치의 표피에 있는 기생충을 먹고 산다.
- ③ 바닷가에 사는 집게류는 소라고둥의 껍데기 안에 사는데, 성장하면서 더 큰 소라고둥의 껍데기로 옮긴다.
- ④ 바닷가에 서식하는 현화식물인 잘피는 많은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거나 어류에게 산란 장소를 제공한다.
- ⑤ 이빨 고래류는 물개와 같은 해산 포유류나 다랑어와 같은 어류를 먹이로 삼기도 한다.

B04 핵심 정보의 파악



여러분, 대개 어린이가 어른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목소리가 높죠? 오늘은 목소리의 높낮이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죠. 진동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진폭과 진동수인데요. 진폭은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가의 문제이고, 진동수는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폭이 크면 소리가 크고, 진동수가 높으면 소리가 높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진동수가 높을수록 목소리가 높죠. 어린이가 어른보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목소리가 높은 것도 어린이와 여성 목소리의 진동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의 성인 남성 목소리의 진동수는 150~160헤르츠 정도이고 성인 여성은 240~250헤르츠 정도입니다.

목소리의 진동수가 이렇게 다른 주된 이유는 성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대가 길면 저음을 내고 성대가 짧으면 고음을 내죠. 실로폰의 긴 음판이 짧은 음판보다 더 낮은 음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변성기 이전에는 성대의 길이가 0.8센티미터로 남녀가 비슷하지만, 변성기를 거치면서 남성의 성대는 1.8에서 2.4센티미터까지 길어지고, 여성의 성대는 길어 봐야 1.7센티미터 정도까지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36. (물음) 이 강의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07-본수-2)

- ① 어린이와 어른의 성대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
- ② 소리의 진폭과 진동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③ 변성기 남녀의 성대 길이는 어떻게 다른가?
- ④ 남녀의 목소리는 언제부터 달라지는가?
- ⑤ 목소리의 높낮이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가) 제2차 세계 대전 중, 태평양의 한 전투에서 일본군은 미군 흑인 병사들에게 자신들은 유색인과 전쟁할 의도가 없으니 투항하라고 선전하였다. 이 선전물을 본 백인 장교들은 그것이 흑인 병사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급하게 부대를 철수시켰다. 사회학자인 데이비슨은 이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대중 매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제3자 효과(third-person effect)' 이론을 발표하였다.

(나) 이 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이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는 데에 있다. 곧 사람들은 수용자의 의견과 행동에 미치는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 때 어떤 후보에게 탈세 의혹이 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다고 하자. 그때 사람들은 후보를 선

택하는 데에 자신보다 다른 독자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현상을 데이비슨은 '제3자 효과'라고 하였다.

(다) 제3자 효과는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대중 매체가 건강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을 전달할 때보다 폭력물이나 음란물처럼 유해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람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크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수용자의 구체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제3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내용물의 심의, 검열, 규제와 같은 법적·제도적 조치에 찬성하는 성향을 보인다.

(라) 전통적으로 대중 매체 연구는 매체에 노출된 수용자의 반응, 즉 그들이 보이는 태도나 행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에 비해 제3자 효과 이론은 매체의 영향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차별적 인식 및 그에 따른 행동 성향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검열과 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어떠한 것인지도 짐작하게 해 준다.

(마) 제3자 효과 이론은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처럼 보이는 것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이론과 연결되면서, 여론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은 대중 매체의 전달 내용에 쉽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영향받을 것을 고려하여 자신의 태도와 행위를 결정한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서 소외되어 고립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37.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본수-20)

- ① (가): 제3자 효과 이론의 등장 배경
- ② (나): 제3자 효과의 개념
- ③ (다): 제3자 효과 이론의 유형
- ④ (라): 제3자 효과 이론의 의의
- ⑤ (마): 제3자 효과 이론의 응용



전 세계 해양의 평균 수심은 4,000 미터 가까이 되며, 심해저에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할 수 없어서 광합성을 하는 일차 생산자가 생존할 수 없다. 심해저에 서식하는 동물은 결국 바다의 표면에서 해저로 떨어져 내리는 유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해양 생물들이 분해되고 남은 잔존물로서 '바다의 눈(marine snow)'이라 불린다. 해양 생물이 죽게 되면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거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심해저에 도달할 때 썩으면 거의 남는 것이 없다. 그런 까닭에 심해저에 많은 수의 생물이 살기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생물은 항상 새로운 생존 방법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1977년 생물학 역사상 가장 흥분되는 발견 중의 하나가 있었다. 일단의 해양학자들은 잠수정 앨빈 호를 이용하여 동부 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 부근 해저 산맥에 있는 심해

열수구 지역을 탐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양 에너지가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뜻밖에 많은 생물의 군집을 발견하였는데, 모두가 처음 보고되는 새로운 생물이었다.

수천 미터 깊이의 심해저에 있는 열수구 지역은 지각 활동으로 인해 흘러나오는 뜨거운 용출수 때문에 주변의 해수에 비해 온도가 높다. 곳에 따라서는 열수구로부터 섭씨 350도가 넘는 해수가 뿜어져 나오기도 한다. 지각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고온의 해수에는 다양한 광물질이 녹아 있으며, 다량의 황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 지역에서는 검은색의 매연을 내뿜는 굴뚝과 같은 구조가 광물질의 침전으로 형성된다.

심해 열수구 지역의 우점종은 '리프티아'라고 불리는 커다란 관벌레인데, 매우 독특하게 진화된 영양 방식을 갖고 있어서 입이나 소화 기관이 없다. 그 대신에 관벌레는 '영양체(trophosome)'라고 불리는 매우 특수한 기관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세균이 가득 차 있다. 리프티아의 몸통은 기다란 관의 안쪽에 들어 있다. 관의 바깥쪽으로 돌출된 밝고 붉은색의 깃털구조는 아가미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산화탄소와 산소, 그리고 황화수소를 교환한다. 관벌레의 순환계는 매우 잘 발달되어 있고, 순환계 속의 혈액은 황화수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특수한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관벌레는 황화수소를 세균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그 세균들은 화학 합성을 통해서 관벌레에게 먹이가 될 유기물을 공급하며, 관벌레는 세균이 필요로 하는 황화수소를 비롯한 무기물을 공급한다.

이와 같이 심해 열수구에서는 화학 합성 세균이 해양의 표층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일차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수천 미터 깊이의 심해에서 태양 에너지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생물이 진화되어 왔던 것이다.

38. 위 글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표제와 부제는? (08-6모-37)

- ① 생명체의 신비
 - 심해저 생물의 생존 방식
- ② 심해저의 생태
 - 심해저 생물종 간의 먹이 사슬
- ③ 해양 생물의 역사
 - 심해 열수구 진화의 현장
- ④ 심해저의 신비와 아름다움
 - 바다의 오아시스인 심해 열수구 지역
- ⑤ 생물학의 역사를 바꾼 일대 사건
 - 앨빈 호 탐사의 생물학적 성과

B05 조직과 구성 원리 파악



남학생 : 주변 상점들 단체 티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5천 원에서 만 원 사이야. 어제 애들이 추천했던 가게로 가 보자.

여학생 : 이왕이면 디자인 예쁘고, 질 좋은 걸로 해야지.

(가게 문을 열 때 종소리 들림)

아저씨 : 어서 오세요.

남학생 : 안녕하세요. 다음 주가 우리 학교 체육 대회라서요. 단체 티를 맞추려고요.

아저씨 : 그래, 잠깐 기다려 봐라. 여기 견본 있다. 마음에 드는 걸 골라 보렴.

여학생 : 와, 종류가 참 많네요. 근데 요즘 어느 게 잘 나가요?

아저씨 : 이건 값이 싸서 부담은 없는데, 합성 섬유라서 촉감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이걸 가볍고 땀 흡수도 잘 돼서, 요즘 단체 티로 많이 나가.

남학생 : 좋아 보이네요. 얼마예요?

아저씨 : 그리 안 비싸. 만 원이야.

여학생 : 너무 비싸요. 저희도 품질 좋은 걸로 하고 싶은데, 학생인 저희들로서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6천 원에 해 주시면 안 돼요?

아저씨 : 많이 사면 모르지만, 몇 장 사는데 그 가격에 주기는 힘들지. 학생들이니까 내가 9천 원까지는 깎아 주지.

남학생 : 저희 두 반만 해도 70장이 넘는 걸요. 또 다른 반 애들도 여기 디자인이 예쁘다고 가격만 적당하다면 여기서 사겠대요. 가서 얘기 잘 할게요. 그러니까 6천 원에 해 주세요.

아저씨 : 그래도 6천 원에는 힘들지.

남학생 : 그럼 옷에 학급 로고를 새겨 주시면, 7천 원에 살게요.

아저씨 : 로고라…….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돈이 좀 드는데. 음, 로고를 그냥 해 주는 대신 9천 원에 하지. 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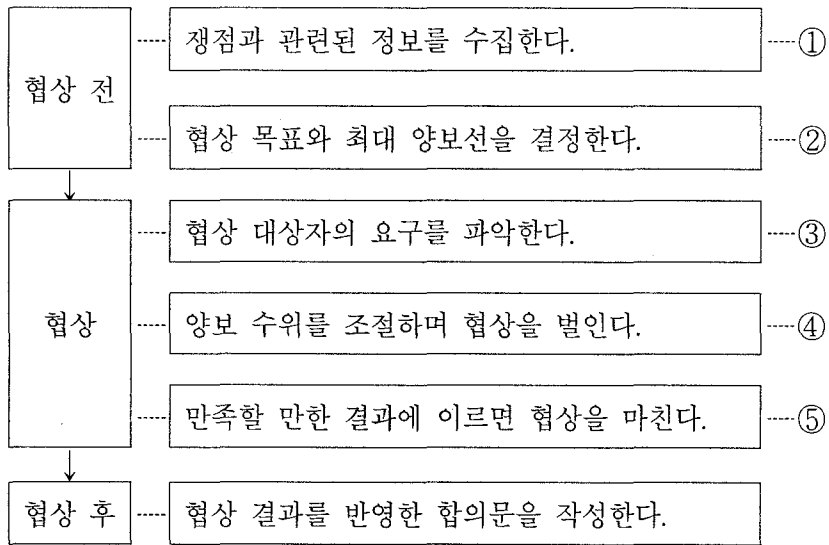
여학생 : 어우, 그래도 비싸요. 아저씨, 체육 대회 때 쓸 모자도 여기서 단체로 살 테니까 조금 더 깎아 주세요. 네?

아저씨 : 좋아. 그러면 8천 원에 하자. 대신 다른 애들한테도 말 잘해 줘야 돼.

남학생 : 좋아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되겠죠?

아저씨 : 그럼. 이제 계약서를 적어 볼까? 8천 원에 학급 로고 새겨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 됐지?

39. (물음) 학생들이 거친 협상 단계가 아닌 것은? (08-6모-4)



C. 추론적 사고

C01 숨은 정보의 추론



발명의 이론으로 알려진 트리즈(TRIZ)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으로서, 구 소련의 겐리히 알츠슐러에 의하여 탄생하였다. 그는 4만 건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우수한 특허는 모두 모순을 극복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그 후, 알츠슐러는 모순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계속한 끝에 모순을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으로 유형화하여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기술적 모순이란 두 개의 기술적 변수의 값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가령 비행기의 속도를 높이려면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 그런데 출력을 높이려면 엔진이 커져야 하고, 그에 따라 엔진은 무거워진다. 결국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하면 비행기의 무게가 증가하여 속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가벼운 엔진을 장착하면 출력의 한계 때문에 속도를 증가시키기 어렵다.

트리즈에는 이와 같은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40가지 발명의 원리가 있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기술 문제에 발명의 원리를 하나씩 적용한다면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비행기의 속도 문제 해결에 '복합 재료를 사용하라'는 40번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된 예가 있다. 당시, B1 폭격기의 무게를 줄여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은 항공기 제작 회사는 금속 재료 대신 에폭시 계열의 플라스틱 복합 재료로 비행기의 날개를 만들어 폭격기 전체 무게의 15%를 줄였으며 비용도 절감하였다. 이렇게 무게가 줄면 동일한 엔진으로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물리적 모순이란 하나의 변수가 서로 다른 값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비행기는 이착륙 시에 바퀴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비행 중에는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퀴가 없어야 하는 모순을 갖는다. 비행 중에도 바퀴가 동체에 그대로 붙어 있는 초창기 비행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오늘날 초음속 비행기에서 동체의 바퀴는 엄청난 공기 저항을 유발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비행 중에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츠슐러는 '시간에 의한 분리' 등 몇 가지의 원리를 제안하였다. 시간에 의한 분리를 설명하기 위해 앞에서 예로 든 비행기 바퀴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우선 이륙하기 위하여 비행기는 바퀴로 활주로를 달린다. 비행기가 완전히 이륙하면 바퀴를 동체에 접어 넣어 비행 중에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을 누구나 쉽게 알아내고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기술자가 우선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기술적 모순이다. 그런데 기술적 모순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물리적 모순이 문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술적 모순의 해결도 의미가 있지만 바탕에 깔린 물리적 모순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40.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06-6모-37)

- ① 문제 상황을 물리적 모순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 ② 트리즈에는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여러 개의 원리가 있다.
- ③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은 하나의 문제 상황 속에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 ④ 물리적 모순은 사물의 상태를 시간차를 두고 변화시킴으로써 해결되기도 한다.
- ⑤ 기술적 모순은 주로 복잡한 기계에서 발생하지만 물리적 모순은 그렇지 않다.



아이슬란드는 지진과 화산 분출 같은 지각 변동이 매우 활발한 화산섬이다. 동서로 약 540 km, 남북으로 약 350 km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슬란드는 일부 지역이 지난 2만 년 동안 쌓인 용암으로 뒤덮여 있다. 활발한 지각 변동 덕분에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화산의 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고, 온천수로 작물을 재배하며, 화산 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등 지질학적 특성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판구조론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인 위치는 매우 특수하다.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슬란드는 북아메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의 경계선인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해 있다. 대서양의 해저에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은 북극해에서부터 아프리카의 남쪽 끝까지 긴 산맥의 형태로 뻗어 있다. 대서양 중앙 해령의 일부분이 해수면 위로 노출된 부분인 아이슬란드는 서쪽은 북아메리카 판, 동쪽은 유라시아 판에 속해 있어 지리적으로는 한 나라이지만, 지질학적으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판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구에서 판의 경계가 되는 곳은 여러 곳이 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육지 위에서 두 판이 확장되는 희귀한 지역이다. 아이슬란드가 위치한 판의 경계에서는 새로운 암석이 생성되면서 두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는 다른 판의 경계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지질학적 현상이 나타난다. 과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중심부를 지나는 대서양 중앙 해령의 갈라져 있는 틈이 매년 약 15cm 씩 벌어지고 있다. 이 벌어지는 틈으로 해양 지각의 하부에서 고온의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지각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생성된 해양 지각은 멀어져 가는 판의 일부가 되어 이동한다. 그 결과로 북아메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은 아이슬란드가 위치해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확장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판의 절대 속도를 잴 수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북아메리카 판에 대한 유라시아 판의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를 추정하여 판의 이동 속도를 측정한다. 그러나 이렇게 알아낸 판의 이동 속도는 이동하는 판 위에서 이동하는 다른 판의 속도를 잰 것이다. 이는 한 판이 정지해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판의 속도, 즉 상대 속도이다. 과학자들은 상대 속도를 구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판의 절대 속도, 즉 지구의 기준점에 대해서 판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도 알고자 했다. 판의 절대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판의 운동과는 독립적으로 외부에 고정되어 있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의 맨틀 깊숙이 위치한 마그마의 근원

지인 열점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판의 절대 속도를 구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100여 개의 열점을 찾아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아이슬란드에 있다.

41. 위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9모-25)

- ① 아이슬란드는 지열 산업이 발달해 있을 것이다.
- ② 아이슬란드의 크기는 서서히 커지고 있을 것이다.
- ③ 북아메리카 판이 유라시아 판보다 이동 속도가 빠를 것이다.
- ④ 아이슬란드의 화산 분출은 판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 ⑤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의 해저 산맥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C 02 전개될/전개된 내용 추론

42. <보기>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건의문의 서두이다. 이어서 쓸 내용을 구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6모-8)

—<보 기>—

존경하는 학교 운영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장 ○○○입니다. 위원장님께 우리 학교 급식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실은 학생 수에 비해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이 식사를 끝내는 데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립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올리면 급식실로 다투어 뛰어갑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활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 ① 급식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요구 사항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제시해야겠어.
- ② 급식실로 뛰어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학생의 사례를 언급해야겠어.
- ③ 학교 환경 개선이 쾌적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을 지적해야겠어.
- ④ 점심을 빨리 먹고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도서관의 자리도 부족함을 건의해야겠어.
- ⑤ 식사를 늦게 해서 점심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해 오후 수업 시간에 졸았던 학생의 경험을 소개해야겠어.



사회자(남): 지금까지 대한대학교 최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선호 현상을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크게 정리하면 유명 브랜드가 자아 표현의 수단이고, 유명 브랜드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민국대학교의 장 교수님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장 교수(여): 예, 물론입니다. 저로서는 최 교수님 말씀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명 브랜드 소비가 자신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자아 표현을 꼭 유명 브랜드로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유명 브랜드 선호를 비판하시는 이유는 뭐 더 없으신가요?

장 교수: 당연히 있죠. 최 교수님은 이 문제의 부정적 측면을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요즘 청소년들조차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선호합니다. 그에 따른 과소비도 큰 문제지만,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 역시 커다란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 교수(남):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저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회자: 잠깐만요, 최 교수님. 교수님 입장은 저희가 앞서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만큼 장 교수님께도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자, 장 교수님?

장 교수: 저는 최 교수님이 주장하신 경제적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최 교수님은 유명 브랜드 선호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유명 브랜드는 수입품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된 자료를 좀 더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많이 키워야 한다는 최 교수님 말씀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소비자들이 광고의 이미지만을 좇아 외국 브랜드를 더 좋아하는 우리의 소비 현실에서 과연 세계적 브랜드를 쉽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너무 기업의 시각으로만 보시려는 최 교수님의 선입견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 선입견이요? 그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장 교수: 최 교수님은 저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이 결국은 특정 기업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소비자가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교육의 측면에서 보자는 것이지요.

43. (물음) 이 장면 이전에 최 교수가 발언했을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07-9모-5)

- ① 유명 브랜드 선호는 자아 표현의 방식이다.
- ② 유명 브랜드 선호가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준다.
- ③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많이 키워야 한다.
- ④ 유명 브랜드 선호의 부정적 측면은 소비자 교육으로 극복된다.
- ⑤ 유명 브랜드 선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특정 기업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자(여) :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주의의 전망과 미래 사회』를 저술하신 김철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문화주의가 뭐죠?

교수(남) : 네, 오늘날엔 한 사회 내부에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죠. 여러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이론을 말합니다.

기자 : 그러면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교수 :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체로 문화 차이에 따른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자 : 말씀을 들으니, 다문화주의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네요.

교수 : 네, 많은 국가들이 다문화주의를 수용하여 국가 정책을 강구합니다. 하지만 그 실현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국가를 단일 민족 국가나 단일 이념 국가라고 여기는 경우엔 다문화주의가 단일성을 훼손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반감은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사실 소수 문화가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 문화를 정책적으로 배려하자는 데에는 사회 구성원 간에 의견이 저마다 다릅니다.

기자 :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시대에 다문화주의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교수 : 소수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은, 이주민이나 이주 노동자 등 소수자들의 문화를 발전시켜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분열도 완화될 수 있고, 사회도 발전하겠지요.

기자 :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정책으로 마련해 나가는 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 :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44. (물음) 인터뷰에서 교수의 마지막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8-6모-3)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

- ① 단일성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② 각 문화의 가치와 의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 ③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 ④ 새로운 문화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⑤ 각 문화 집단 간의 경제적 차이를 좁혀야 합니다.

C03 세부 정보의 추론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45.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06-본수-53)

- ① 압착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 ② 압착기를 빌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 ③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 ④ 압착기 임대 계약금을 돌려받기 쉬워지기 때문에
- ⑤ 압착기의 임대료가 계약한 수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테니스 선수 그라프는 1992년에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숙적인 셀레스에게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그라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에 의해 자신의 위치적 보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이는 다른 경쟁자

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자들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린다면,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유인은 커진다.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46. ㉠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08-6모-21)

<보 기>

- ㄱ. 다른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 ㄴ. 집단 내 경쟁자들의 이익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 ㄷ.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의 효력이 강하다.
- ㄹ. 경쟁자들은 위치적 보상이 성과 향상을 위한 지출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ㄹ ⑤ ㄷ, ㄹ



예술은 인간 감정의 구현체로 간주되곤 한다. 그런데 예술과 감정의 연관은 예술이 지닌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는 데 쓰이기도 했다. 즉, 예술은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비합리적 활동, 심지어는 광기 어린 활동으로 여겨지곤 했다. 그렇지만 예술과 감정의 연관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입장도 유구한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톨스토이와 콜링우드를 들 수 있다.

콜링우드는 톨스토이와 생각이 달랐다. 콜링우드는 연대감이나 형제애를 사회에 전달하는 예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체주의적 대규모 집회에서 드러나듯 예술적 효과를 통한 연대감의 전달은 때론 비합리적 선동을 강화하는 결과를 ㉡ 낳는다. 톨스토이 식으로 예술과 감정을 연관시키는 것은 예술에 대한 앞서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콜링우드는 감정의 전달이라는 외적 측면보다는 감정의 정리라는 내적 측면에 관심을 둔다.

콜링우드에 따르면, 언어가 한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수단인듯이 예술은 한 개인의 감정을 정리하는 수단이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감정도 그러하다. 일상사에서 벌컥 화를 내거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보면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낸 듯하여 썩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분노나 슬픔은 공책을 펴 놓고 논리

적으로 곰곰이 추론한다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은 염주 알처럼 진행되지만, 감정은 불쑥 솟구쳐 오르거나 안개처럼 스멀스멀 밀려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감정은 그와 생김새가 유사한 예술을 통해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토벤이 인생의 파란만장한 곡절을 「운명」 교향악을 통해 때론 용솟음치며 때론 진저리치며 굽이굽이 정리했듯이, 우리는 자기 나름의 적절한 예술적 방식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술을 통해 우리의 감정이 정리되었으면 굳이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예술은 그 소임을 충분히 완성한 것이다.

47. 영국의 시인 키츠가 <보기>와 같이 말한 이유를 콜링우드의 견해를 바탕으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08-6모-47)

<보 기>

불면의 밤을 보내며 완성한 시를 아침 해를 바라보며 불태워 버려도 좋다.

- ① 창작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② 창작 작업에 근본적인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 ③ 혼란한 감정을 시를 통해 정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④ 아침 해를 바라보며 불같은 열정을 새롭게 느꼈기 때문이다.
- ⑤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C04 생략된 정보의 추론



(가) 탁월함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탁월함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품의 탁월함은 비이성적인 것이어서 가르칠 수 없고,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

(나) 그는 좋은 성품을 얻는 것을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리라(lyra)를 켜므로써 리라를 켜는 법을 배우며 말을 탐으로써 말을 타는 법을 배운다. 어떤 기술을 얻고자 할 때 처음에는 교사의 지시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반복 연습을 통하여 그 행동이 점점 더 하기 쉽게 되고 마침내 제2의 천성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진실되고 관대하며 예의를 차리게 되는지 일일이 배워야 한다.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 그런 행위들을 연마하다 보면 그것들을 점점 더 쉽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다) 그는 올바른 훈련이란 강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즐기게 되고,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싶어하게 되며,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성품의 탁월함이란 사람들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그리고 한두 번 관대한 행동을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늘 관대한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성향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관대함에 관하여 성품의 탁월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생각해 보자. 갑돌이는 성품이 곧고 자신감이 충만하다. 그가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다수의 사람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다수의 행동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그렇게 하는 데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한편, 수줍어하고 우유부단한 병식이기도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 역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병식이는 일어나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고 자신과 힘든 싸움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병식이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우리는 병식이가 용기 있게 행동하였다고 칭찬할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성품의 탁월함을 가진 사람은 갑돌이다. 왜냐하면 ㉠

48.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08-6모-34)

- ① 그는 옳은 일을 하는 천성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 ② 그는 주체적 판단에 따라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 ③ 그는 내적인 갈등이 없이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 ④ 그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 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누이트(에스키모) 하면 연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글루이다. 그들의 주거 시설에는 빙설을 이용한 집 외에도 목재나 가죽으로 만든 천막 등이 있다. 이글루라는 말은 이러한 주거 시설의 총칭이었으나, 눈으로 만든 집이 외지인의 시선을 끌며 그것만 일컫는 말이 되었다. 이글루는 눈을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반구 모양으로 쌓은 것이다. 눈 벽돌로 만든 집이 어떻게 얼음집으로 될까? 이글루에서는 어떻게 난방을 할까?

일단 눈 벽돌로 이글루를 만든 후에, 이글루 안에서 불을 피워 온도를 높인다. 온도가 올라가면 눈이 녹으면서 벽의 빈틈을 메워 준다. 어느 정도 눈이 녹으면 출입구를 열어 물이 얼도록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눈 벽돌집을 얼음집으로 변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눈 사이에 들어 있던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얼음 속에 갇히게 된다. 이글루가 뿌옇게 보이는 것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기체에 부딪힌 빛의 산란 때문이다.

이글루 안은 밖보다 온도가 높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글루가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지면보다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적도 지방이 극지방보다 태양 빛을 더 많이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른 이유로 일부 과학자들은 온실 효과를 든다.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은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의 단파이지만, 지구가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의 장파이다. 단파는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지만, 복사파인 장파는 지구의 대기에 의해 흡수된다. 이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를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온실 유리가 복사파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글루도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장파인 복사파가 얼음에 의해 차단되어 이글루 안이 따뜻한 것이다.

이글루 안이 추울 때 이누이트는 바닥에 물을 뿌린다.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을 것이다. 여름철 마당에 뿌린 물은 증발되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것이지만, 이글루 바닥에 뿌린 물은 곧 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올라간다. 물의 물리적 변화 과정에서는 열의 흡수와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찬물보다 뜨거운 물을 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바닥에 뿌려진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고 표면적이 넓어져서 증발이 빨리 일어나고 증발로 물의 양이 줄어들어 같은 양의 찬물보다 어느 온도까지 빨리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누이트가 용해와 응고, 복사, 기화 등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글루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눈으로 구조물을 만들었으며, 또한 물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였다. 이글루에는 극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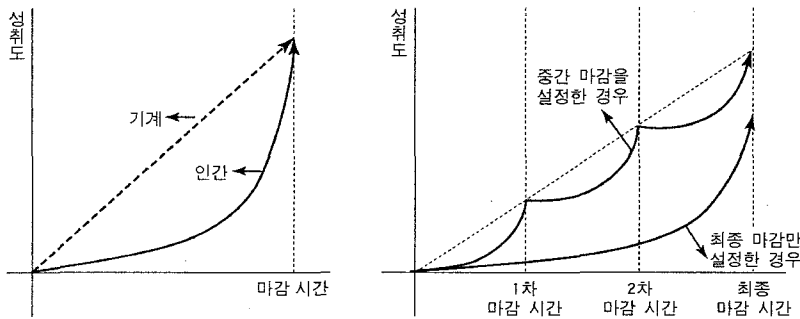
49. 위 글로 미루어 답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06-본수-37)

<보 기>

ㄱ. 호수가 어는 날씨에도 바다는 왜 얼지 않는가?
 ㄴ. 냉동실에서 얼린 얼음의 가운데 부분은 왜 뿌옇게 보이는가?
 ㄷ. 겨울에 세차를 위해 자동차에 온수를 뿌리면 왜 바로 어는가?
 ㄹ. 겨울에 실외에 놓은 음료수가 얼면서 병이 깨지는 것은 왜일까?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0. 다음 그래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부'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이끌어 낼 수 있는 논지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07-6모-7)



<보 기>

ㄱ. 꾸준히 노력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없다.
 ㄴ. 중간에 가끔씩 쉬면서 공부하는 것이 성적 향상에 효과적이다.
 ㄷ.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있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다.
 ㄹ.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일별, 주별 공부량을 정해서 공부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 검사하고자 하는 인체 부위에 압전 변환기를 접촉시킬 때에는 그 부위에 젤리를 발라 준다. 이는 압전 변환기와 피부 사이에 공기층을 없애 반사로 인한 음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압전 변환기에서 나온 초음파는 상이한 생체 조직을 각기 다른 속력으로 통과하며, 각 조직 사이의 경계 부위를 지날 때에는 부분적으로 반사된다. 반사되어 압전 변환기로 돌아오는 초음파의 세기는 통과한 조직의 밀도와 두께가 클수록 약해진다. 이렇게 각 조직이나 기관에서 다층적으로 반사된 초음파는 수신 모드로 전환된 압전 변환기에서 시간차를 두고 각기 다른 세기의 교류 전기 신호를 발생시킨다. 컴퓨터는 이 전기 신호들의 세기와 지체 시간을 분석하여 모니터 화면에 영상을 만들어 낸다.

51. [A]에서 설명된 초음파 진단 장치의 원리로부터 유추해 낼 수 없는 음향 현상은?
(08-6모-29)

- ① 물속과 공기 중에서 소리의 전파 속도는 다르다.
- ② 벽을 두껍게 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줄어든다.
- ③ 관의 굵기와 길이에 따라 관에서 나는 소리의 높낮이가 다르다.
- ④ 가까운 곳에서 생긴 메아리가 먼 곳에서 생긴 것보다 빨리 들린다.
- ⑤ 눈을 감고 있어도 자기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위치가 야외인지 실내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C 06 개념/원리의 구체적 적용



[A]

선별 효과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미디어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며, 선택적으로 기억한다. 예를 들면, ‘가’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 후보의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의 부정적인 면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효과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의견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태도와 의견을 보장하는 차원에 머무른다. 가령 ‘가’ 후보의 정치 메시지는 ‘가’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킨다. 이 두 이론을 종합해 보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 [A]에서 제시한 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5-본수-31)

- ① 조카가 원래 좀 거친 편인데 폭력 영화를 보더니 더 거칠어졌다.
- ② 언론이 야간 범죄의 위험성을 보도하니까 아무도 문밖으로 나오지 않더라.
- ③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아도 역시 멋있기만 하더라.
- ④ 나는 ‘가’ 후보를 지지하는데, 텔레비전 토론을 보니 역시 ‘가’ 후보가 설득력 있게 잘 하더라.
- ⑤ 아내가 나한테 금연 광고를 보여 주면서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데, 90세가 넘으신 우리 할머니는 하루에 두 갑을 피우면서도 아직 정정하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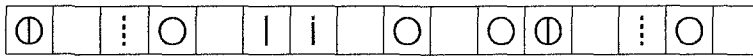
오늘날 불리는 가곡의 종류는 모두 41곡으로 남자가 부르는 남창(男唱)에 26곡, 여자가 부르는 여창(女唱)에 15곡이 있다. 그러나 그 레퍼토리는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데, 한 가지의 선율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시조시(時調詩)를 얹어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초삭대엽(初數大葉)’이라는 곡이 있다면, 그것의 선율에 ‘동창이 밝았느냐……’의 가사를 얹어 부르기도 하고, 다른 시조인 ‘동짓달 지나긴 밤을……’의 가사를 얹어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노래 가사 바꾸기’와 유사하다.

실제 노래를 부를 때는 맨 첫 곡인 ‘초삭대엽’부터 끝 곡인 ‘태평가’까지 한꺼번에 이어서 부르는 연창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연창의 무대를 접하기는 힘들고 프로그램에 가곡을 한두 곡 정도 끼워 넣어 들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곡의 장단에는 16박(拍)과 10박의 두 가지가 있다. 장단은 장구로 치는데, 복판을 치지 않고 주로 변죽을 쳐 다른 악기들과의 음량을 조절한다. 16박과 10박 모두 10점(點)으로 장단을 친다. 그래서 ‘10점 16박’, ‘10점 10박’ 등으로 일컫는다. 10점이라고 하는 것은 장구에 손이 가서 소리를 내는 타점(打點)이 10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16박과 10박에는 장단의 기본 형태인 덩(㉠), 쿵(○), 덕(丨), 기덕(丨), 더러러러(∴) 등이 10번 들어 간다는 말이다.

10점 16박 장단의 보기

(1칸 20~40 빠르기)



10점 10박 장단의 보기

(1칸 75~80 빠르기)



위의 그림에서 10점 16박의 빠르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 칸이 서양 음악의 빠르기를 기준해서 20~40이다. 음악의 빠르기는 특정 음표 하나를 1분에 지정하는 수만큼 연주하라는 것이다. 빠르기가 20이라면 1박은 3초가 소요되고, 30이라면 1박은 2초가 된다. 보통 빠르기가 90~110 정도인 서양 음악과 비교하면 가곡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실제 가곡을 들어 보면, 그 가사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들다.

이처럼 가곡의 가사를 알아듣기 어려운 데는 노래 가사에 한문구(漢文句)가 종종 등장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지만, 무엇보다도 노래 가사가 모음 변화를 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즉, ‘아’는 ‘아으’로, ‘에’는 ‘어으이’ 등으로 발음한다. ‘청석령’이라는 노래 가사는 ‘청서—흐—억려——○’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 가사의 내용을 쫓아가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가곡이 성행하던 시대에도 그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가곡이란 명칭도 가사를 노래한다기보다, 곡조를 노래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 인내하며 눈을 지그시 감고, 첫 곡인 ‘초삭대엽’을 한번 끝까지 감상해 보라. 곡의 중반부를 지나기도 전에 시시콜콜한 일상의 잡념들은 사라지고, 해질 녘의 고즈넉한 평온이 조용히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곡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그 감흥에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53. 위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의 장단과 연주 시간을 나타내면? (06-9모-58)

<보 기>

(1칸 60 빠르기)

- | | <u>장단</u> | <u>연주 시간</u> |
|---|-----------|--------------|
| ① | 3점 3박 | 3초 |
| ② | 3점 3박 | 4초 |
| ③ | 3점 5박 | 4초 |
| ④ | 3점 5박 | 5초 |
| ⑤ | 5점 3박 | 5초 |



(나)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후(後) 채택 이론(post-adoption theory)’에 따르면, 정보 격차는 다차원으로 존재하며 지속된다. 저렴한 디지털 매체의 보급과 함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로 정보 격차를 설명하는 이분법적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보 격차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 디지털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물리적 접근의 격차는 감소하는 반면에 새로운 유형의 격차가 증가한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 격차가 해소되면서 또 다른 정보화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보 격차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은 크게 이용의 자주성과 사용 여건의 공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 이용의 자주성은 상황에 알맞게 디지털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이용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에서 비롯될 수 있다. ㉡ 디지털 시스템의 운용 장애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겪는 열등감도 문제이다. 나아가 디지털 매체에서 획득한 정보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 문제 해결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이용의 자주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이를 풍부하게 활용하기가 힘들다.

(라) 사용 여건의 공평성은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이용 기회의 균등성을 의미한다. 매체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더라도 주변 환경의 개선이 없다면 정보 격차는 지속된다. 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 활용법을 열심히 습득하였지만 자신의 희망과는 반대로 이용 기회가 적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디지털 매체의 이용 방법을 알고 활용을 원할지라도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보 격차는 발생한다.

(마) 오늘날 연구에 의하면, 정보 격차의 새로운 측면들은 소득, 교육, 연령, 성별, 지역, 신체적 장애 등과 같은 인구 사회적 변인과 결합된다. 이것은 보다 세부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정보 활용의 질적 차이를 낳아서, ㉤ 개인의 학업 성취도와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개인이 처한 상황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보 격차의 존재와 유형은 지금보다 훨씬 복잡적일 수 있다.

54. 문맥을 볼 때, 밑줄 친 ㉠~㉤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9모-41)

- ① ㉠: 동사무소나 우체국에서 무료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다.
- ② ㉡: 컴퓨터 사용 중에 발생한 프로그램 오류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
- ③ ㉢: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아져서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었다.
- ④ ㉣: 컴퓨터 자격증이 여럿 있지만 직장에서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다.
- ⑤ ㉤: 인터넷 검색법을 배우고 나서 유용한 자료를 더 빨리 수집하게 되었다.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 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에서 '안다'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전자의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55. 밑줄 친 말이 의미하는 바가 표상적 지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07-본수-34)

- ① 나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알아.
- ② 나는 세종대왕을 알아. 그분은 한글을 창제한 분이시지.
- ③ 우리 아저씨만큼 개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
- ④ 내 동생은 2를 네 번 더하면 8인 줄은 아는데, '2×4=8'은 모른다.
- ⑤ 퀴즈의 답이 '피아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紧张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

C07 개념/원리의 유추 적용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평소와는 매우 다른 특별한 순간들을 맞는다. 평소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이때에는 철저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오직 대상의 내재적인 미적 형식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마음의 작동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어가 ‘미적 무관심성’이다. 칸트가 이 개념의 대표적인 대변자인데, 그에 따르면 미적 무관심성이란 대상의 아름다움을 판정할 때 요구되는 순수하게 심미적인 심리 상태를 뜻한다. 즉 ‘X는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X의 형식적 측면이 우리의 감수성에 쾌·불쾌를 주는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무관심적 관심’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얻거나 알고자 하는 모든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X의 존재 가치는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있다.

대상의 개념이나 용도 및 현존으로부터의 완전한 거리 두기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순수 미적인 차원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정당화는, 쇼펜하우어에 이르러서는 예술미의 관조를 인간의 영적 구원의 한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사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불교에 심취한 그는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 개념에서 더 나아가 ‘미적 무욕성’을 주창했다. 그에 따르면 이 세계는 ‘맹목적 의지’가 지배하는 곳으로, 거기에 사는 우리는 욕구와 결핍의 부단한 교차 속에서 고통받지만, 예술미에 도취하는 그 순간만큼은 해방을 맞는다. 즉 ‘의지의 폭정’에서 벗어나 잠정적인 열반에 도달한다.

56. 위 글의 주요 개념을 사용하여 <보기>의 ‘ 쇤베르크의 음악’을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08-9모-35)

<보 기>

쇤베르크의 음악은 음의 높낮이와 리듬만으로 구성된 작은 단위들의 변형과 발전을 통해 구현되지만, 주음-부음 관계를 파괴하는 불협화음 전략에는 억압적 사회 구조로 인한 고통, 이에 대한 폭로와 저항 등이 오묘하게 함축되어 있다.

- ① ‘미적 무관심성’에서 ‘미적 무욕성’으로 이행하는 음악의 발전 과정을 잘 보여 준다.
- ② ‘미적 무관심성’과 ‘미적 무욕성’이라는 조화되기 힘든 두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한다.
- ③ ‘미적 무관심성’과 예술의 ‘지적·실천적 역할’이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예술의 가치를 잘 드러낸다.
- ④ ‘미적 무관심성’에서 탈피하여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을 추구함으로써 음악의 ‘지적·실천적 역할’을 수행한다.
- ⑤ ‘미적 무관심성’을 극한까지 밀고 간 작품으로, ‘지적·실천적 역할’ 같은 음악 외적 요소의 개입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빈부 격차가 있듯이 디지털 정보사회에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가 있다. 디지털 매체의 도입 초기에는 ㉠ 매체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 격차가 곧 사라질 것으로 보는 낙관론이 우세하였다.

57. ㉠의 관점을 수용해서 '공연 문화 활성화'에 관한 글을 쓴다고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7-9모-42)

- ① 공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자.
- ② 공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공연 문화 학교를 운영하자.
- ③ 우수 공연 작품이 해외에 소개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자.
- ④ 다양한 관객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공연 작품을 기획하자.
- ⑤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료가 저렴한 공연장을 많이 만들자.

C 08 논거의 추론



[A] ‘사전’ 하면 흔히 ‘ㄱ, ㄴ, ㄷ’ 순으로 배열된 국어사전을 떠올리지만, 인간의 머릿속에도 사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머릿속 사전’이라 부른다. 그런데 책으로 된 종이 사전과 머릿속 사전의 조직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종이 사전은 한글 자모 순서로 단어들을 배열하는 것이 표준이다. 머릿속 사전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면 말실수를 할 때 한글 자모 순서상 가장 근접해 있는 단어가 선택될 것이다. 가장 가까이 있으므로 그 단어를 얼른 생각해 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진기’라는 단어 대신에, 사전에서 그 다음에 배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진선’이 선택되는 식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다.

58. [A]의 논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07-6모-44)

- ① “어-, 춥다. 문 들어온다, 바람 단아라.”
- ② “그는 상당한 언어 곤경, 아니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
- ③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동시에 떠올라) “곰사합니다.”
- ④ 갑: (하늘의 별을 보려고) “거기 현미경 좀 가져와 봐.”
을: “망원경 말하는 거야?”
- ⑤ 갑: “그거 있잖아, 그……. 생각이 날 듯한데. 장어, 쟁어, 정어, 정우 그제 뭐더라.”
을: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거야.”



종래에는 의병이 봉기한 이유를 주로 유교 이념에서 비롯된 ‘임금에 대한 충성’의 측면에서 해석해 왔다. ㉠ 실제로 의병들을 모으기 위해 의병장이 띄운 격문(檄文)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일면 타당하다. 의병장은 거의가 전직 관료나 유생 등 유교 이념을 깊이 체득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킨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일반 백성들이 의병에 가담한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치 못하다.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느닷없이 임진왜란을 당했던 데다가, ㉡ 전쟁 중에 보였던 조정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당시 조선 왕조에 대한 민심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오로지 임금에 충성하기 위해서 의병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병장의 참여 동기도 단순히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는 명분적인 측면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의병장들은 대체로 각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갖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그러한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 의병장들이 지역적 기반을 계속 유지하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유교적 명분론과 결합하면서 의병을 일으키는 동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한편 관군의 잇단 패배로 의병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 조정에서는 의병장에게 관직을 부여함으로써 의병의 적극적인 봉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관료가 되어야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관직 임명은 의병장들에게 큰 매력이 되었다.

59. ㉠~㉣ 중, <보기>의 역사 자료 ㄱ과 ㄴ을 그 근거로 제시하기에 적절한 것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07-9모-58)

<보 기>

ㄱ. 왜적이 대동강변에 나타나자 조정의 대신들은 피난을 떠나기 위해 먼저 평양성을 나섰다. 이에 성안의 아전과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 칼을 빼어 들고 그 길을 막으면서 크게 꾸짖어 말하였다. “너희들은 평소에 나라의 녹봉만 훔쳐 먹다가 이제 와서는 나랏일을 그르치고 백성들을 속임이 이와 같으냐?”

ㄴ. “진실로 기운을 내고 떨쳐 일어나, 우리 조상 임금님들께서 남기신 은덕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창고에 가득한 물건과 벼슬자리를 나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는 아름다운 칭송이 있을 것이고, 자손에게까지 은택이 흘러 전해질 것이니, 어찌 홀륭하지 않으랴!”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19세기 후반에 망원경 관측을 바탕으로 한 화성의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특히 1877년 9월은 지구가 화성과 태양에 동시에 가까워지는 시기여서 화성의 표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보였다. 영국의 아마추어 천문학자 그린은 대기가 청명한 포르투갈의 마테이라 섬으로 가서 13인치 반사 망원경을 사용해서 화성을 보이는 대로 직접 스케치했다. 그린은 화성 관측 경험이 많았으므로 이전부터 이루어진 자신의 관측 결과를 참고하고, 다른 천문학자들의 관측 결과까지 반영하여 당시로서는 가장 정교한 화성 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런데 이듬해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스키타파렐리의 화성 지도가 나오면서 이 지도의 정확성이 도전받았다. 그린과 같은 시기에 수행한 관측을 토대로 제작한 스키타파렐리의 지도에는, 그린의 지도에서 흐릿하게 표현된 지역에 평행한 선들이 그물 모양으로 교차하는 지형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키타파렐리는 이것을 ‘카날리(canali)’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해협’이나 ‘운하’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였다.

① 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그린의 스키타파렐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우선 스키타파렐리는 전문 천문학자였지만 화성 관측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게다가 그는 마테이라 섬보다 대기의 청명도가 떨어지는 자신의 천문대에서 관측을 했고, 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8인치 반사 망원경을 사용했다. 또한 그는 짧은 시간에 특징만을 스케치하고 나중에 기억에 의존해 그것을 정교화했으며, 자신만의 관측을 토대로 지도를 제작했던 것이다.

60. ㉠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본수-47)

- ① 보이는 대로 직접 그림
- ② 지리학의 방식대로 채색함
- ③ 더 높은 배율의 망원경을 사용함
- ④ 다른 관측자의 관측 결과를 반영함
- ⑤ 관측 조건이 더 양호한 곳에서 관측함



전 세계 해양의 평균 수심은 4,000미터 가까이 되며, 심해저에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할 수 없어서 광합성을 하는 일차 생산자가 생존할 수 없다. 심해저에 서식하는 동물은 결국 바다의 표면에서 해저로 떨어져 내리는 유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해양 생물들이 분해되고 남은 잔존물로서 '바다의 눈(marine snow)'이라 불린다. 해양 생물이 죽게 되면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거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심해저에 도달할 때 썩으면 거의 남는 것이 없다. 그런 까닭에 심해저에 많은 수의 생물이 살기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생물은 항상 새로운 생존 방법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1977년 생물학 역사상 가장 흥분되는 발견 중의 하나가 있었다. 일단의 해양학자들은 잠수정 엘빈 호를 이용하여 동부 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 부근 해저 산맥에 있는 심해 열수구 지역을 탐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양 에너지가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뜻밖에 많은 생물의 군집을 발견하였는데, 모두가 처음 보고되는 새로운 생물이었다.

수천 미터 깊이의 심해저에 있는 열수구 지역은 지각 활동으로 인해 흘러나오는 뜨거운 용출수 때문에 주변의 해수에 비해 온도가 높다. 곳에 따라서는 열수구로부터 섭씨 350도가 넘는 해수가 뿜어져 나오기도 한다. 지각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고온의 해수에는 다양한 광물질이 녹아 있으며, 다량의 황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 지역에서는 검은색의 매연을 내뿜는 굴뚝과 같은 구조가 광물질의 침전으로 형성된다.

심해 열수구 지역의 우점종은 '리프티아'라고 불리는 커다란 관벌레인데, 매우 독특하게 진화된 영양 방식을 갖고 있어서 입이나 소화 기관이 없다. 그 대신에 관벌레는 '영양체(trophosome)'라고 불리는 매우 특수한 기관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세균이 가득 차 있다. 리프티아의 몸통은 기다란 관의 안쪽에 들어 있다. 관의 바깥쪽으로 돌출된 밝고 붉은색의 깃털구조는 아가미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산화탄소와 산소, 그리고 황화수소를 교환한다. 관벌레의 순환계는 매우 잘 발달되어 있고, 순환계 속의 혈액은 황화수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특수한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관벌레는 황화수소를 세균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그 세균들은 화학 합성을 통해서 관벌레에게 먹이가 될 유기물을 공급하며, 관벌레는 세균이 필요로 하는 황화수소를 비롯한 무기물을 공급한다.

이와 같이 심해 열수구에서는 화학 합성 세균이 해양의 표층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일차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수천 미터 깊이의 심해에서 태양 에너지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생물이 진화되어 왔던 것이다.

61. 위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보기>의 천문학자가 ㉠와 같이 추론했다고 할 때 이 추론의 개연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증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08-6모-39)

<보 기>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광합성에 충분한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기 어렵다. 유로파의 표면은 두꺼운 얼음 층으로 덮여 있으며, 그 아래에는 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990년대 후반 우주 탐사선 갈릴레오 호는 유로파의 표면 사진들을 지구로 전송하였다. 이 사진들을 조사한 천문학자들은 ㉠ 유로파의 밝은 얼음 층 밑의 물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 ① 유로파에 소행성이 충돌했다는 증거
- ② 유로파가 지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
- ③ 유로파의 대기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
- ④ 유로파가 태양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
- ⑤ 유로파의 얼음 층 밑의 물이 지구의 바다만큼 깊다는 증거

C 09 전제의 추론



(가) 제2차 세계 대전 중, 태평양의 한 전투에서 일본군은 미군 흑인 병사들에게 자신들은 유색인과 전쟁할 의도가 없으니 투항하라고 선전하였다. 이 선전물을 본 백인 장교들은 그것이 흑인 병사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급하게 부대를 철수시켰다. 사회학자인 데이비슨은 이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대중 매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제3자 효과(third-person effect)’ 이론을 발표하였다.

(나) 이 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이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는 데에 있다. 곧 사람들은 수용자의 의견과 행동에 미치는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 때 어떤 후보에게 탈세 의혹이 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다고 하자. 그때 사람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에 자신보다 다른 독자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현상을 데이비슨은 ‘제3자 효과’라고 하였다.

(다) 제3자 효과는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대중 매체가 건강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을 전달할 때보다 폭력물이나 음란물처럼 유해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람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크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수용자의 구체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제3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내용물의 심의, 검열, 규제와 같은 법적·제도적 조치에 찬성하는 성향을 보인다.

(라) 전통적으로 대중 매체 연구는 매체에 노출된 수용자의 반응, 즉 그들이 보이는 태도나 행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에 비해 제3자 효과 이론은 매체의 영향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차별적 인식 및 그에 따른 행동 성향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 검열과 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어떠한 것인지도 짐작하게 해 준다.

62. ㉠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보기 어려운 것은? (07-본수-23)

- ①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
- ② 대중 매체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 ③ 유해한 내용일수록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④ 검열과 규제가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⑤ 대중 매체에 쉽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다.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 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에서 ‘안다’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전자의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표상적 지식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경험적 지식이란 감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지식으로,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가 그 예이다. 물리적 사물들의 특정한 상태, 즉 사과의 둥근 상태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고, 인지 과정을 거쳐 하나의 표상적 지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 따라서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63. ㉠으로부터 ㉡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07-본수 -35)

- ① 귀납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해 있다.
- ② 귀납추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
- ③ 귀납추리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 ④ 귀납추리는 지식이 경험 세계를 넘어서도록 한다.
- ⑤ 귀납추리의 결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C 10 함축적 의미 파악



(나)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

(다)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앞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64. (나)의 ‘하늘’과 (다)의 ‘미타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08-6모-15)

- ①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가 몸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하늘’은 숭고함을, ‘미타찰’은 비장함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 ③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 ④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 ⑤ ‘하늘’은 자연의 영원성을,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대상의 개념이나 용도 및 현존으로부터의 완전한 거리 두기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순수 미적인 차원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정당화는, 쇼펜하우어에 이르러서는 예술미의 관조를 ㉡ 인간의 영적 구원의 한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사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불교에 심취한 그는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 개념에서 더 나아가 ‘미적 무욕성’을 주창했다. 그에 따르면 이 세계는 ‘맹목적 의지’가 지배하는 곳으로, 거기에 사는 우리는 ㉢ 욕구와 결핍의 부단한 교차 속에서 고통받지만, 예술미에 도취하는 그 순간만큼은 해방을 맞본다. 즉 ‘의지의 폭정’에서 벗어나 ㉣ 잠정적인 열반에 도달한다.

미적 무관심성은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옹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추구될 경우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을 또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독립 선언이 곧 ㉤ 고립 선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65. ㉠~㉤의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9모-33)

- ① ㉠: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대상의 유용성, 실재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을 철저히 도외시하는 심리적 태도
- ② ㉡: 개별적 취향의 만족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인간 정신의 구원으로까지 고양되는 경지
- ③ ㉢: 끊임없이 무엇을 얻고자 하나, 완전한 만족 대신에 부족함만이 지배하는 상태의 지속
- ④ ㉣: 예술미에 침잠하여 잠시나마 모든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쁨의 상태
- ⑤ ㉤: 예술가들이 작품 창조를 위해 세속으로부터 고립된 별도의 작업 공간을 요구하는 선언

C 11 요소의 기능과 효과 파악



향단(香丹)아 ㉠ 그넛줄을 밀어라
머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66. <보기>를 참고할 때, ㉠~㉤ 중에서 (다)의 ‘띠집’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07-9모-30)

<보 기>

윤선도는 ‘띠집’을 짓고 나서 문집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집이 나로 하여금 표연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신선이 되어 날
아가는 뜻을 지니게 하면서도, 끝내는 나로 하여금 부자(父子)
와 군신(君臣)의 윤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다) 우리 집 이웃의 늙은 부부는 늦게야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자기네가 목불식정(目不識丁)*인 것이 철천의 한이 되어서 아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글을 시켜 보겠다고, 어려운 살림에도 아들을 서당에 보내고 노상 “우리 서당 애, 우리 서당 애.” 하며 아들 이야기를 했었다. 그의 집 단칸방에 있는 다 깨어진 질화로 위에, 점심 먹으러 돌아오는 예(例)의 서당 아이를 기다리는 따뜻한 토장찌개가 놓였음은 물론이다. 그 아들이 『천자문』을 읽는데, ‘질그릇 도(陶), 당국 당(唐)’이라 배운 것을 어찌 된 셈인지 ‘꼬끼요 도, 당국 당’이라는 기상천외의 오독을 하였다. 이것을 들은 늙은 ‘오마니’가, 알지는 못하나마 하도 괴이하여 의의(疑義)를 삽(插)한즉, 늙은 영감이 분연(憤然)히,

“여보 할멈,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 마소. 글에 별소리가 다 있는데, ‘꼬끼요 도’는 없을라고.”

하였다. 이렇게 단연(斷然)히 서당 아이를 변호한 것도 바로 질화로의 찌개 그릇을 둘러앉아서였다. 얼마나 인정미 넘치는 태고연(太古然)한 풍경이나.

사랑에 놓인 또 하나의 질화로는 이와는 좀 다른 풍경을 보였다. 머슴, 소배(少輩)들이 모인 곳이면, 신 삼기, 등우리 만들기에 질화로를 에워싸 한창 분주하지마는, 팔씨름이라도 벌어지는 때에는 쌍방이 엮디어 서로 버티는 서슬에 화로를 발로 차 온 방안에 재를 쏟아 놓기가 일쑤요, 노인들이 모인 곳이면, 고담 책 보기, 시절 이야기, 동네 젊은 애들 버릇없어져 간다는 이야기들이 이 질화로를 둘러서 일어나는 일이거니와, 노인들의, 입김이 적어서 꺼지기 쉬운 장죽은 연해 화로의 불돌 밑을 번갈아 찾아갔었다. 그리하여 기나긴 겨울밤은 어느덧 밝을 녘이 되는 것이다.

돌이켜 우리 집은 어떠했던가? 나도 5, 6세 때에는 서당 아이였고, 따라서 질화로 위에는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찌개 그릇이 있었고, 사랑에서는 밤마다 아버지의 담뱃대 터시는 소리와 고서(古書)를 읽으시는 소리가 화로를 둘러 끊임없이 들렸었다. 그러나 내가 다섯 살 되던 해에 그 소리는 사랑에서 그쳤고, 따라서 바깥 화로는 필요가 없어졌고, 하나 남은 안방의 화로 곁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대학(大學)』을 구수(口授)하시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마저 내가 열두 살 되던 해에 그 질화로 옆을 길이 떠나가시었다. 그리하여 서당 아이는 완전한 고아가 되어, 신식 글을 배우러 옛 마을을 떠나 동서로 표박(漂泊)하게 되었고, 화로는 또다시 찾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다.

질화로의 찌개 그릇과 또 하나의 질화로에 깊이 묻히던 장죽, 노변(爐邊)의 추억은 20년 전이 바로 어제와 같다.

67. (다)의 ‘질화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본수-56)

- ① 글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이다.
- ③ 가난을 환기하는 소재로 설정되어 있다.
- ④ 정감이 넘치는 풍경을 연상시키고 있다.
- 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다.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듯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 않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68. 일제 강점기에 미쓰꼬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에서 ‘미쓰꼬시 옥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9모-41)

- ①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 ②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 ③ ‘회탁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한다.
- ④ ‘나’와 ‘회탁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 ⑤ ‘회탁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선전관 전우치 재주 과인(過人)하기로 신 등이 우치로 임금을 삼아 만민을 평안케 하려 하더니, 하늘이 돕지 않아 발각되었으니 죄사무석(罪死無惜)*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때 우치 문사낭청(問事郎廳)*으로 있더니, 뜻밖에 이름이 역도(逆徒)의 진술에 나오는지라. 상이 대로하사,

“우치 역모함을 짐작하되 나중을 보려 하였더니, 이제 발각되었으니 빨리 잡아오라.”

하시니, 나졸이 명을 받들어 일시에 달려들어 관대를 벗기고 옥계 하에 꿇리니, 상이 진노하사 형틀에 올려 매고 죄를 추궁하여 왈,

“네 전일 나라를 속이고 도처마다 장난함도 용서치 못할 일이거늘, 이제 또 역적죄에 들었으니 변명한들 어찌 면하리오.”

하시고, 나줄을 호령하사 한 매에 죽이라 하시니, 집장과 나줄이 힘껏 치나 능히 또 매를 들지 못하고 팔이 아파 치지 못하거늘, 우치 아뢰되,

“신의 전일 죄상은 죽어 마땅하오나, 금일 이 일은 만만 애매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고, 심중에 생각하되, ‘주상이 필경 용서치 아니시리라.’ 하고 다시 아뢰기를,

“신이 이제 죽사올진대, 평생에 배운 재주를 세상에 전하지 못할지라. 지하에 돌아가오나 원혼이 되리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은 원을 풀게 하옵소서.”

상이 헤아리시되, ‘이놈이 재주 능하다 하니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고 가라사대,

“네 무슨 능함이 있어 이리 보채느냐?”

우치 아뢰기를,

“신이 본대 그림 그리기를 잘하니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짐승이 걸어가고 산을 그리면 초목이 나서 자라니 이러므로 명화라 하오니, 이런 그림을 전하지 못하고 죽사오면 어찌 원통치 아니리오.”

상이 가만히 생각하되, ‘이놈을 죽이면 원혼이 되어 괴로움이 있을까’ 하여 즉시 맨 것을 풀려 주시고 지필(紙筆)을 내리사 원을 풀라 하시니, ㉠우치 지필을 받자와 산수를 그리니 천봉만학과 만장폭포가 산 위로부터 산 밖으로 흐르게 그리고 시냇가에 버들을 그려 가지가지 늘어지게 그리고 그 밑에 안장 지은 나귀를 그리고, 붓을 던진 후 사은(謝恩)하매, 상이 묻기를,

“너는 방금 죽을 놈이라, 이제 사은함은 무슨 뜻이뇨?”

우치 아뢰기를,

“신이 이제 폐하를 하직하옵고 산림에 들어 여년을 마치고자 하와 아뢰나이다.”

하고, 나귀 등에 올라 산 동구에 들어가더니 이윽고 간 데 없거늘, 상이 대경하사 왈,

“내 이놈의 꾀에 또 속았으니, 이를 어찌하리오.”

- 「전우치전」 -

69. ㉠의 그림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08-9모-31)

<보 기>

- ㄱ.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통로이다.
- ㄴ. 의롭지 못한 자를 단죄하는 방법이다.
- ㄷ. 주인공의 능력을 보여 주는 수단이다.
- ㄹ.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방편이다.

-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ㄱ, ㄴ, ㄹ

C 12 필자의 관점/태도/심리/의도의 추론



(가) 피테는 젊은 시절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면서 “나의 조국을 알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가노라.” 하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어를 통해서 한국어에 없는 문법 장치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언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때로는 한국어의 고유성에 대한 재확인 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나) “철수가 축구를 하였다.”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문장으로는 화자가 ‘철수가 축구를 한 것’을 직접 보았는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들었는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콜롬비아의 토속어인 투유카 어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장치가 있다. 화자의 목적 여부가 동사에 형태적으로 표시되는데 그것을 ‘증거법’이라고 부른다.

dūga apéwi (그가 축구를 한 것을 내가 보았다.)

dūga apéti (그가 축구를 한 것을 내가 소문은 들었지만 보지 못했다.)

dūga apéyi (그가 축구를 한 것을 내가 알지만 보지는 못했다.)

dūga apéyigi (그가 축구를 한 것을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dūga apéhiyi (그가 축구를 한 것을 나는 짐작했다.)

○ 증거법의 구성 요소 = {wi=시각적, ti=비시각적, yi=명백함, yigi=전해 들음, hiyi=짐작함}

(다) 위 예문들의 공통 의미는 ‘그가 축구를 하였다’이다. 그런데 투유카 어의 문장으로 이 의미만을 표현할 수는 없다. 투유카 어는 증거법의 형태들이 문장에 필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어에는 증거법이라는 문법 범주가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한국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문법 형태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단어나 문장 등 다른 차원의 언어적 장치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어로 사실을 표현하는 방식과 투유카 어의 그것이 다름을 보여 준다.

(라) 그러면 한국어는 어떠한가? 한국어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은 ‘높임법’이다.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말에는 ‘화자가 청자를 높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 있다. 한국어 화자들이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묵시적인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 ‘당신은 청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듣는 사람을 높입니까? 아니면 높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높임법을 보편적인 언어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 외국어는 자국어의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언어 간의 대조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사고 방식을 돌아켜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투유카 어의 증거법을 이해한 한국인들은 문장 속 동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국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는 산업화의 정도나 사용 인구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토착민의 언어든 문명국의 언어든 서로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언어들의 특징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언어의 그림’을 보다 객관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이다.

70. 위글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과 상통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06-본수-34)

<보 기>

- ㄱ. 언어는 본능의 일종이지만, 문자 언어는 본능이 아니다.
- 스티븐 핑커 -
- ㄴ. 인간은 유한한 문법 장치로 무한한 문장들을 생성해 낼 수 있다.
- 노암 촘스키 -
- ㄷ. 어떠한 언어도 혼자만으로는 인간이 이루어 낸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다.
- 에즈라 파운드 -
- ㄹ. 세계는 여러 시각이 모인 모자이크이다. 언어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그 모자이크 한 조각을 잃는 것이다.
- 아린 달리나 로드리게스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나는 10년 전에 금강산을 유람하여 한 달 동안 다니다가 돌아왔다. 바다는 출렁이고 산은 높이 솟아 그 광경은 무어라 말로 형용할 길이 없었다. 유람하는 이들은 줄지어 이어지고 안개와 구름은 무심하였다. 여기저기 신령스런 골짜기와 신비한 전각들, 이런 것들이 마침내 일대 장관으로 다가왔다. 구룡연·만물상·수미봉·옥경대 같은 여러 뛰어난 경치는 금강산에서도 특히 이름난 것이다. 그런데 경관이 기이하고 그윽한 언덕과 골짜기가 또 있어, 만일 이름을 붙여 널리 전파한다면 명승의 대열에 끼일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모두 거친 수풀과 우거진 넝쿨 사이에 가려지고 묻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생각하건대 사람 또한 이와 같다. 관각(館閣)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문화를 빛내고, 낭묘(廊廟)*에서 예복을 입고 왕정(王政)을 보좌하여, 육경(六經)의 참뜻이 못 백성에게 파급되게 하는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여항의 사람에 이르러서는 기릴 만한 경술(經術)이나 공적은 없지만, 그 언행에 후 기록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 그 시문에 후 전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도 모두 적막한 구석에서 초목처럼 시들어 없어지고 만다. 아아, 슬프도다! 내가 『호산외기(壺山外記)』를 지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친구인 겸산(兼山) 유재건(劉在建)이 나와 뜻이 통하여 여러 사람의 문집 속에서 더듬고 찾아서 이미 전(傳)에 오른 사람 약간 명을 얻었다. 그리고 전이 없는 사람은 겸산이 직접 전을 지었다. 그리하여 모두 280여 편이 된다. 정성스럽게 책을 만들어 제목을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이라 붙이고 나에게 서문을 요청하였다. 내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는가!

나라 수천 리 안에 인물이 번성하니 언행이나 시문으로써 후세에 전할 만한 사람이 어찌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하는 인멸되어 아는 이가 없게 되었다. 겸산은 흥금이 바다 같아 남의 좋은 점을 즐거워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그물질하듯 끌어 모았다. 또한 그 언행이나 시문 외에도 한 가지 기예, 한 가지 재능이라도 있으면 모두 기록하였다. 그 부지런한 뜻이 어찌 헛되겠는가?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책을 읽고 감동하고 분발함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니, 어찌 다만 한 사람의 글에 그치겠는가? 세상의 교화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이 뜻은 내가 명산(名山)에서 깨달아서 겸산의 글에 기록하여 두는 바이다. 아아! 숨은 빛을 찾아내어 찬연히 세상에 나오게 하였도다. 사관(史官)이 기록하여 석실(石室)에 보관한 역사 기록 이외에 태평한 시절 교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책에 있으리라.

- 조희룡, 「이향견문록 서(里鄉見聞錄序)」 -

71. 위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6-본수-40)

- ① 역사 기록의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
- ② 당대의 정치 이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저술의 교화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 ④ '겸산'의 인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여항 사람들의 행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간 사회와 더불어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기술은 산업혁명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에 따라 기술의 영향력은 날로 증대되어 오늘날 우리는 그 누구도 기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기술의 발전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를 진보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가? 그렇지 않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등장한 국가 기술 정책의 수단이 기술 영향 평가(technology assessment)이다. 기술 영향 평가는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및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한 다음,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창기의 기술 영향 평가는 이미 개발된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에 평가하고 처방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평가와 처방은 기술에 대한 '통제의 딜레마'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통제의 딜레마란, 비록 기술 영향 평가를 통해 어떤 기술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될지라도, 그 기술의 개발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중단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 딜레마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 결국 통제의 딜레마로 인해 사후적 기술 영향 평가는 기술을 통제하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기술 개발의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기술 변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사전적이고 과정적인 기술 영향 평가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기술이 일방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기술 변화의 내용이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술사회학적 인식이 그 배경이 되었다. 이 새로운 기술 영향 평가는 기술 개발의 과정에 초점을 둬으로써 기술 통제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기술 영향 평가에 비해 좀 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기술 영향 평가는 통제의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했는가? 이 질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방향은 불확실성이 많아 사전적이고 과정적인 평가조차도 기술의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설혹 잘 예측하여 기술 통제를 위해 적절한 기술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평가와 통제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이 기술 영향 평가는 현재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72.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08-9모-44)

- ① 기술과 사회는 상호 작용하는 관계이다.
- ② 과학적 기술 예측은 기술 통제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 ③ 기술 발전의 방향을 시장 원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 ④ 기술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기술 영향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평소와는 매우 다른 특별한 순간들을 맞는다. 평소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이때에는 철저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오직 대상의 내재적인 미적 형식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마음의 작동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어가 '미적 무관심성'이다. 칸트가 이 개념의 대표적인 대변자인데, 그에 따르면 미적 무관심성이란 대상의 아름다움을 판정할 때 요구되는 순수하게 심미적인 심리 상태를 뜻한다. 즉 'X는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X의 형식적 측면이 우리의 감수성에 쾌·불쾌를 주는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무관심적 관심'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얻거나 알고자 하는 모든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X의 존재 가치는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있다.

73. 영화에 대한 감상 중, 위 글의 칸트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08-9모-34)

- ① 이 영화는 그 시대의 모순 고발과 전망 제시라는 두 가지 숙제를 훌륭히 해내고 있는 우수작이야.
- ② 영화에 세상일을 개입시키려는 태도는 잘못이야. 영화는 보고 즐기는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니?
- ③ 이 영화의 색채 묘사나 카메라의 시점 처리 같은 대담한 형식 실험은 상식을 뛰어넘은 독특한 심미적 가능성을 열어 줬.
- ④ 이 영화의 흥행 가능성에 대해 난 매우 부정적이야. 주인공만 해도 어른들이나 좋아할 스타일이지, 우리가 보기엔 좀 어색하지 않니?
- ⑤ 영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미 소설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영화로 만드는 것은 낭비야.

C 13 화자의 심리/정서/태도/의도 추론



(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다)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중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구비 꿇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 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74. 작품의 내용과 정서를 고려할 때, (가)의 '나비'와 (다)의 화자가 나누었음직한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6-6모-19)

- ① (다)의 화자: 우리 둘은 각자 가고 싶은 곳이 있군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네요.
- ② (가)의 '나비': 제가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곳이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이기 때문이지요.
- ③ (다)의 화자: 당신은 이미 그 곳에 가 보지 않았던가요? 저는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 ④ (가)의 '나비': 저는 너무 순진하게 덤벼들었다가 큰 상처만 입었습니다.
- ⑤ (다)의 화자: 소망하면서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에 우리들은 슬프게 봅니다.



귀뚜리 저 귀뚜리 어여쁘다 저 귀뚜리
 어인 귀뚜리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節節)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울어 예어 사창(紗窓) 여윈 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고야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 동방(無人洞房)의 내 뜻 알 이는 저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75. ㉠과 ㉡에 함축되어 있는 화자의 심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06-6모-58)

- ① ㉠에는 '귀뚜리'를 찬미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② ㉠에는 '귀뚜리'를 연민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귀뚜리'를 야속해 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귀뚜리'를 불신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려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귀뚜리'를 동정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외로움을 이겨내려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가)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A]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벨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B]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 김지하, 「새」 -

76. [B]를 <보기>와 같이 해석할 때, [B]의 화자가 [A]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07-9모-29)

<보 기>

화자는 극한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삶이 존엄하고, 생명이 남아 있는 한 고통에 맞서야 한다고 본다.

- ① 꿈을 잃었다고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② 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 ③ 당신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④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이 좇는 꿈을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 ⑤ 당신이 꿈을 이루더라도 삶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C14 인물의 심리/성격/태도 추론



백호산군이 왈,

“대개 만물의 경중을 알고자 할진대 저울만 같음이 없고, 송사의 곡직을 알진대 양쪽의 말을 들음만 같음이 없나니, 한 쪽의 말만 듣고 선불선(善不善)을 가버이 판결치 못할지라. 소진*의 말로써 진나라를 배반함이 어찌 옳다 하며 장의*의 말로써 진나라를 섬김이 어찌 그르다 하리오. 소장(訴狀) 양쪽의 말을 같이 들은 연후에야 종횡을 쾌히 결단하리니, 다람쥐는 우선 옥으로 내리고 서대쥐를 즉각 잡아 와서 상대한 연후에 가히 밝게 분변하리라.”

하고, 오소리와 너구리 두 형졸로 하여금 서대쥐를 빨리 잡아 대령하라 분부하니 두 짐승이 명을 듣고 나올새 오소리가 너구리더러 일러 왈,

“내 들으니 서대쥐 재물이 많으므로 심히 교만하매 우리 매양 괴악히 알아 버르던 바 이러니, 오늘 우리에게 걸렸는지라. 이놈을 잡아 우리를 괘시하던 일을 분풀이하고 또 소송당한 쪽 전례는 위에서도 아는 바라. 수백 냥이 아니면 결단코 놓지 말자.”

하고 둘이 서로 약속을 정하고, 호호탕탕한 기분을 발호하고 예기는 맹렬하여 바로 구궁산 팔괘동에 이르러 토굴 밖에서 소리 높여 부르며 가로되,

“서대쥐 고소를 당함에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패자(牌子)*를 가지고 잡으러 왔나니 서대쥐는 빨리 나오고 지체 말라.” 독축이 성화 같은지라.

비복들이 이 말을 듣고 혼백이 흩어져 버리는 듯 놀라서 급급히 들어가서 서대쥐께 연유를 고할새 서대쥐 호흡이 급해지고 땀이 배어 등을 적시는지라. 모든 쥐들이 이를 보고 눈을 둥글고 두 귀 발록발록하여 허둥지둥하거늘 서대쥐 왈,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옛말에 일렸으되 칼이 비록 비수라도 죄 없는 사람은 해치지 못한다 하였으니 우리 본디 죄를 범한 바 없는지라 무엇이 두려우리오.”

인하여 자손과 노복쥐를 데리고 토굴 밖으로 나오니 오소리와 너구리가 서대쥐 나음을 보고 더욱 의기양양 하는지라. 서대쥐 오소리를 보고 혼연히 웃어 가로되,

“오 별감은 그 사이 평안하셨느뇨. 나는 충암절벽 한 곳에 토굴을 의지하고 그대는 천봉만학 절승처에 산군을 모시니 유현(幽顯)*의 길이 다른지라. 마음은 항상 그옥하나 승안접사(承顔接事)*를 일차 부득하더니 오늘 관고(官故)로 말미암아 누추한 곳에 왕립하여 의외로 청안(淸眼)을 대하니 패자에차는 서서히 수작하려니와 일배 박주(薄酒)*를 잠깐 나누기를 바라노니 허락함이 어떠리오.”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한지라, 서대쥐의 대접이 심히 관후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하던 마음이 춘산에 눈 녹듯이 스러지는지라. 서대쥐더러 왈,

“우리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서대쥐와 다람쥐로 더불어 재판코자 하여 빨리 잡아오라 분부 지엄하니 빨리 행함이 옳거늘 어찌 조금이나 지체하리오.”

장자쥐 왈,

“오 별감 말씀이 옳은지라, 어찌 두 번 청함이 있으리오마는 성인도 권도(權道)함이 있나니 원컨대 오 별감은 두 번 살피라.”

모든 쥐들이 일시에 간청하며 서대쥐는 오소리의 손을 잡고 장자쥐는 너구리를 붙들고 들어가기를 청하니,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심중에 생각하되,

‘만일 들어가는 경우에는 죄인 다루는 데 거북할 테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기왕 뇌물을 받으려면 툭툭히 실속을 차려야 한다.’

하며 소매를 떨치고 거짓 노왈,

“관령은 지엄하고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어느 때에 술 마시고 놀며 희롱 하리오. 관령이 엄한 줄 알지 못하고 다만 일배 박주에 팔려 형장(刑杖)이 이 몸에 돌아오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가. 나는 굴 밖에 있으리니 빨리 다녀오라.”

하고 말을 마치며 나와 수풀 사이에 앉아 종시 들어가지 않는지라. 서대쥐 이 말을 듣고 오소리더러 너구리를 청하라 권하매, 오소리 나아가 너구리를 이끌어 가로되,

“서대쥐 이처럼 간청하거늘 어찌 차마 거절하리오. 잠깐 들어가 동정을 봄이 좋도다.” 너구리 가로되,

“그러면 전례는 어찌한다 하느뇨.”

오소리가 너구리 귀에 대고 대강 이르니, 너구리 그제야 오소리와 더불어 가니 화려한 누각이 굉장한지라. 전각에 올라 서대쥐와 더불어 좌정 후에 다람쥐 송사한 일을 두어 마디 수작하더니 얼마 안 되어 안으로서 주찬이 나오는지라. 잔을 잡아 서로 권할새 수십 배를 지난 후에, 장자쥐 화각(畫角) 모반에 황금 스무 냥을 담아 서대쥐 앞에 드리니, 서대쥐 황금을 가져 오소리 앞으로 밀어 놓으며 가로되,

“이것이 대접하는 예는 아니나 서로 정을 표할 것이 없으며 마음에 심히 무정한고로 소소한 물건으로 옛정을 표하나니 두 분 별감은 혐의치 말고 나의 적은 정성을 거두소서.”

오소리 웃으며 왈,

“서대쥐의 관대함이 감사하던 중 이같이 후의를 끼치시니 받는 것이 온당치 못하오나 감히 물리치지 못할지라. 그러나 서대쥐는 조금도 염려치 말고 다람쥐와 결송케 하면 내일 재판할 때에 우리 둘이 집장(執杖)할 터이오니 어찌 다람쥐를 중죄(重罪)하여 서대쥐의 분풀이를 못하리오.”

하고 인하여 서대쥐와 더불어 떠나더라.

- 작자 미상, 「서동지전(鼠同知傳)」 -

77. 작중 인물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6-6모-25)

- ① 서대쥐: 두 형졸에 대한 나의 대접이 소홀하여 부끄럽다.
- ② 백호산군: 다람쥐 말만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③ 너구리: 이 기회에 서대쥐에게 돈을 뜯어내야겠다.
- ④ 장자쥐: 형편에 따라 원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 ⑤ 오소리: 평소 서대쥐의 행실이 불만스러웠다.



친구인 겸산(兼山) 유재건(劉在建)이 나와 뜻이 통하여 여러 사람의 문집 속에서 더듬고 찾아서 이미 전(傳)에 오른 사람 약간 명을 얻었다. 그리고 전이 없는 사람은 겸산이 직접 전을 지었다. 그리하여 모두 280여 편이 된다. 청성스럽게 책을 만들어 제목을 ㉠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이라 붙이고 나에게 서문을 요청하였다. 내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는가!

나라 수천 리 안에 인물이 번성하니 언행이나 시문으로써 후세에 전할 만한 사람이 어찌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마는 인멸되어 아는 이가 없게 되었다. 겸산은 흥금이 바다 갈아 남의 좋은 점을 즐거워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그물질하듯 끌어 모았다. 또한 그 언행이나 시문 외에도 한 가지 기예, 한 가지 재능이라도 있으면 모두 기록하였다. 그 부지런한 뜻이 어찌 헛되겠는가?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책을 읽고 감동하고 분발함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니, 어찌 다만 한 사람의 글에 그치겠는가? 세상의 교화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이 뜻은 내가 명산(名山)에서 깨달아서 겸산의 글에 기록하여 두는 바이다. 아아! 숨은 빛을 찾아내어 찬연히 세상에 나오게 하였도다. 사관(史官)이 기록하여 석실(石室)에 보관한 역사 기록 이외에 태평한 시절 교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책에 있으리라.

78. <보기>를 참고할 때, ㉠에 수록되었을 인물의 심정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은? (06-본수-42)

—<보 기>—

『이향견문록』은 조선 후기 중인(中人)들의 전기를 모아서 엮은 책이다. 중인은 여향인(閭巷人)이라고도 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의 신분이 사대부보다 낮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다. 동시에 그들은 나름대로의 포부를 지니고 있었고, 자신들의 재능에 대한 자긍심도 있었다.

- ① 반중(盤中) 조홍(早紅)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가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글로 설위하나이다
- ② 어리고 성긴 매화(梅花)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촉(燭) 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암향(暗香)조차 부동(浮動)터라
- ③ 삼동(三冬)에 배웃 입고 암혈(巖穴)에 눈비 맞아
구름 긴 별뉘도 췌 적이 없건마는
서산(西山)에 해 지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 ④ 농암(韓巖)에 올라 보니 노안(老眼)이 유명(猶明)이로다

인사(人事)가 변한들 산천(山川)이야 변할까
 암전(巖前)에 모수 모구(某水某丘)가 어제 본 듯하여라
 ⑤ 형산(荊山)의 박옥(璞玉) 얻어 세상 사람 보이러 가니
 곁이 돌이니 속 알 이 뉘 있으리
 두어라 알 인들 없으랴 돌인 듯이 있거라



초시는 전에 어떤 관상장이의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고 주먹을 쥐어야 재물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났다. 늘 그렇게 쥐노라고는 했지만 문득 생각이 나 내려다 볼 때는, 으레 엄지손가락이 알밋도록 밖으로만 쥐어져 있었다. 그래 드팀전을 하다가도 실패를 하였고, 그래 집까지 잡혀서 장전*을 내었다가도 그만 화재를 보았거니 하는 것이다.

“이놈의 엄지손가락아, 안으로 좀 들어가야, 켜—장.”

하고 연습 삼아 엄지손가락을 먼저 안으로 넣고 아프도록 두 주먹을 꽉 쥐어 보았다. 그리고 당장 내어 보낼 돈이면서도 그 십 전짜리를 그렇게 권 주먹에 단단히 넣고 담배 가게로 나갔다. (중략)

그러나 속으로는 박희완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끓었다.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하여서 제법 돈냥이나 걸힌 것 같으나 연구소를 내느라고 집을 뜯어 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다닌다 하느라고, 더구나 귀찮게만 아는 이 애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부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 이태준, 「복덕방」 -

79. <보기>는 1930년대 후반 ‘금광 투기 열풍’의 세태를 묘사한 글이다. 이런 세태에 대한 안초시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07-9모-17)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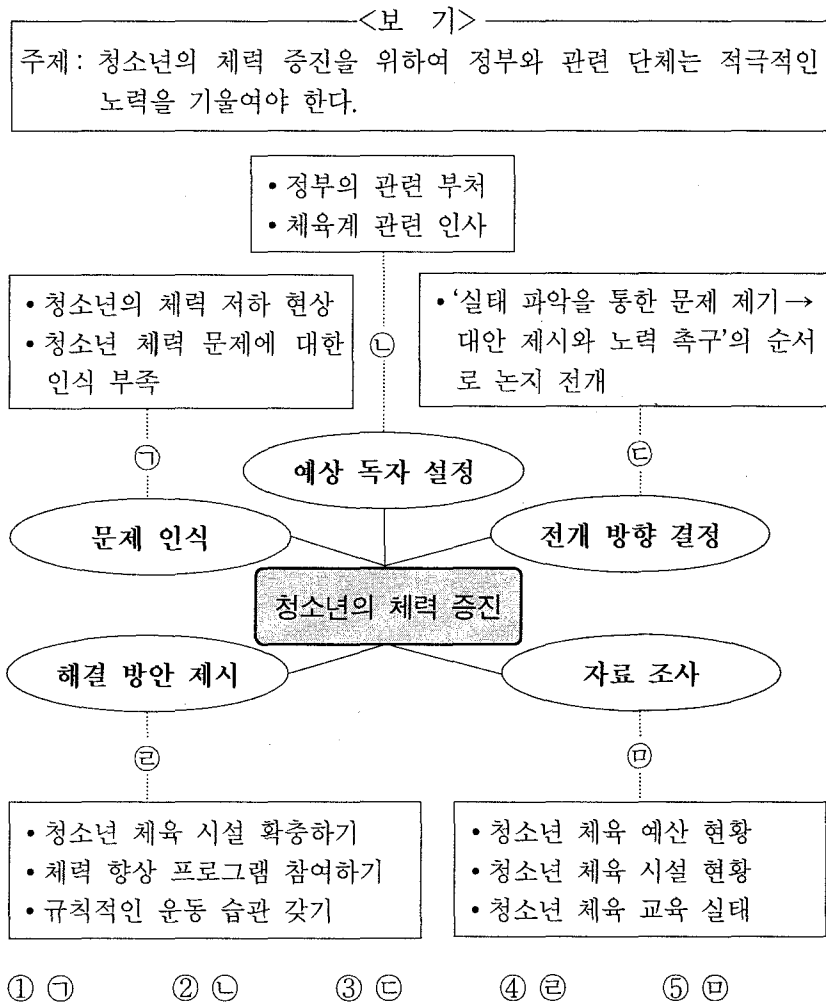
‘금’ ‘금’ ‘금’ 금값의 폭등이 잔칫집같이 조선을 발끈 뒤집어 놓았다. 그것은 확실히 획기적인 사실이다. 물론 금광으로 해서 망한 사람이 수도룩하니 많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몇 십만 원짜리 하다못해 몇 천 원짜리의 부자가 수도룩하게 쏟아져 나온 것이 더 잘 눈에 띈다. 또 그것으로 해서 소위 ‘경기’라는 것도 무척 좋아졌다. 지금 한 괴물이 조선 천지를 횡행한다. ‘금’이라는 놈이다.

- ① 나도 금광으로 큰돈 한번 벌어야겠군.
- ② 복덕방으로 벌어들인 돈 금광 부자에 비할까.
- ③ 내 손 안의 백통화 한 푼이 금광 열 개보다 낫지.
- ④ 나도 금광 부자가 될 수 있나 없나 화투패부터 떼 보자.
- ⑤ 금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텐데 어디서 구해 볼 길이 없을까.

D. 비판적 사고

D01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평가

80. <보기>의 주제에 따라 글쓰기 계획을 세워 보았다.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5-본수-9)



81. 지역 신문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글을 투고하고자 한다. <보기>의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9모-10)

<보 기>

- 제목: 등·하굣길 어린이의 교통안전
- 예상 독자: 지역 주민
- 내용 및 의도
 - 등·하굣길 교통사고의 실태
 -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인식 제고
 - 실천 가능한 예방책 제시

- ①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례를 소개하여 등·하굣길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음을 부각시켜야겠어.
- ②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우리 지역에 어린이 전문 병원을 유치하자고 제안해야겠어.
- ③ 다른 지역의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하여 운전자와 어린이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을 유도해야겠어.
- ④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부족함을 지적해야겠어.
- 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밝히고 '어린이 보호 구역'을 설정한 취지를 강조해야겠어.

D02 개요의 수정과 평가

82. <보기>의 개요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05-본수-8)

<보 기>

주제문: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자.

I. 서론: 유가가 급등하는 현실

II. 본론

1. 고유가 시대의 수출 전략

2. 대책 마련의 필요성

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

나. 소비자 물가 상승과 국민 실질 소득 감소

3. [㉠]

가. 에너지 자원 확보

1) 해외 유전 개발에 적극 참여

2) 안정적인 석유 공급원 확보

나.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1) 대체 에너지 개발

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III. 결론: 실천 촉구

- ① 주제문이 추상적이므로 '고유가 시대의 어려움을 에너지 자원 확보와 에너지 절약 생활화로 극복하자.'로 수정한다.
- ② 'II-1'은 논지 전개상 어색하므로 삭제한다.
- ③ [㉠]은 논지를 발전시키면서 하위 항목을 포괄하기 위해 '에너지난 극복 대책'으로 진술한다.
- ④ 'II-3-나-1'은 내용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II-2'로 옮긴다.
- ⑤ 결론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고유가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 촉구'로 수정한다.

83. <보기>와 같이 '해외 한국학 육성 방안'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 수정 방안이나 자료 제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6-본수-9)

<보 기>

I. 서론

- 한국학 강좌를 대학에 개설한 국가 수의 증가 ㉠
- 해외 한국학 육성을 위한 장기적 전략의 필요성

II. 본론

1. 해외 한국학 육성의 의의

- 다른 나라와의 문화적, 학문적 연대 증진 ㉡
- 세계 속의 한국 위상 제고

2. 해외 한국학 발전의 장애 요소

-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연구 재정 지원 부족
- 한국학에 대한 현지인의 관심 부족 ㉢
- 한국학을 연구할 전문 인력의 부족

3. 해외 한국학 지원 및 육성 방안

- 연구 재정의 투명한 관리 ㉣
- 한국학 국제 학술 대회 개최 등을 통한 관심 환기
- ㉤

III. 결론

- 해외 한국학의 전망

㉠: 한국학 강좌를 개설한 외국 대학들의 정확한 실태를 통계 수치로 제시한다.

㉡: 각국의 문화재 보존 현황을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 한국학에 대한 인지도가 일본학, 중국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 'II-2'를 고려하여 '정부의 지원 확대 및 민간 기업의 기부 활성화'로 수정한다.

㉤: 공의 안경성을 고려하여 '한국학 연구자 육성을 위한 장학 제도 마련'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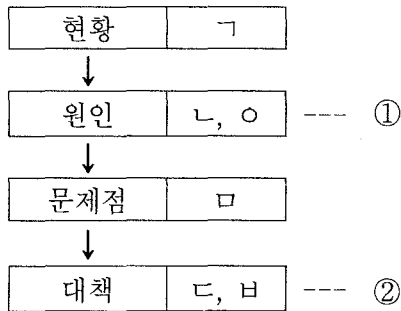
D03 글감 분류 및 활용

84. ‘남녀 고용 평등’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의 글감을 활용하여 (가)와 (나)의 과정으로 사고를 전개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05-9모-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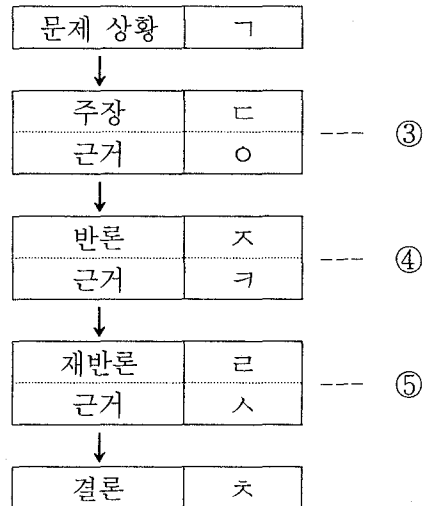
<보 기>

- ㄱ. 우리나라 남녀 전체의 평균 고용 비율 격차는 31.8%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
- ㄴ. 우리나라 여성 임금 근로자들은 결혼 후에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 ㄷ. 남녀 고용 평등의 확대를 위해 채용 목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ㄹ. 남녀 고용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될 때까지 여성에 대한 배려는 불가피하다.
- ㅁ.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낮아지고 남녀 고용 불균등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 ㅂ. 보육 시설을 확충하여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ㅅ. 대졸 이상 여성의 고용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 ㅇ. 채용 과정에서 여성이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 ㅈ. 고용 시 여성에게 일정 비율을 할애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 ㅊ. 강화된 법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계도와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 ㅋ. 성별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남성 45.3%, 여성 69.5%로 나타났다.

(가)



(나)



D04 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85. (나)가 (가)를 고쳐 쓴 글이라고 할 때, 검토한 사항이 아닌 것은? (08-6모-10)

(가)

우주인이 우주선에서 달리를 하려면 탄성이 좋은 끈으로 몸을 고착시켜야 한다. 무중력 상태라서 몸이 공중에 뜨기 때문이다. 끈에 묶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끈이 몸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몹시 불편한데 그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주인들은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몸에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 몸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 뼈와 근육의 밀도가 급속도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나)

우주인이 우주선에서 달리를 하려면 탄성이 좋은 끈으로 몸을 운동 기기에 고정시켜야 한다. 우주선은 무중력 상태라서 몸이 공중에 뜨기 때문이다. 그런데 몸이 끈에 묶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끈이 몸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몹시 불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인들은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몸에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 몸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 뼈와 근육의 밀도가 급속도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 ① 호흡이 긴 문장을 알맞은 길이로 나누어 준다.
- ② 어색한 번역 투의 피동 표현을 자연스럽게 고친다.
- ③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필요한 문장 성분을 보충한다.
- ④ 접속어를 사용하여 문장 간의 연결을 긴밀하게 한다.
- ⑤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적절한 단어로 대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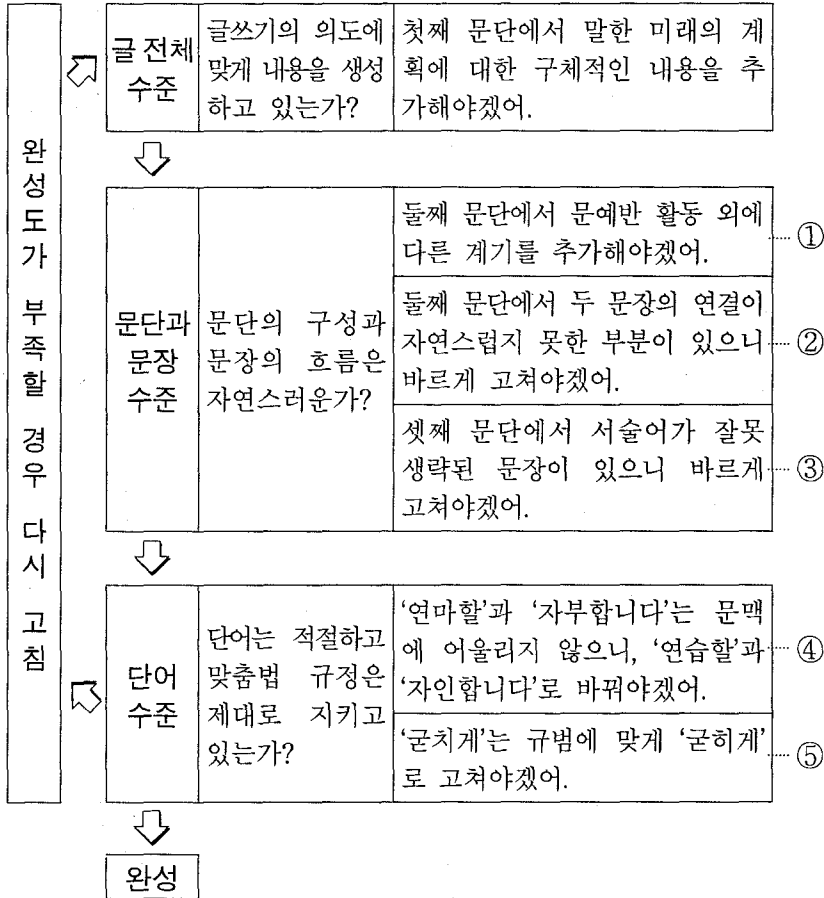


저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우리말과 글에 대한 관심도 컸고,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하게 해 왔으며,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 국문학과에서 제 소질과 능력을 연마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국어 국문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 데에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3년 동안 문예반 활동을 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문학 작품을 읽고 제 자신이 직접 창작도 해 보면서 우리 문학의 우수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국어 국문학 공부를 위해서는 우리말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도 잘 알아야 하고, 우리글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 분야에 대한 교양서적들을 널리 읽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국어 국문학에 대해 깊은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게 된다면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86. 고쳐 쓰기의 절차에 따라 '자기 소개서' 초고를 다듬으려고 한다. 고쳐 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6-본수-12)



D05 논지 전개(서술) 방식 평가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신문은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전통적으로 이 신문들은 후보의 정치적 신념, 소속 정당, 정책을 분석하여 자신의 입장과 같거나 그것에 근접한 후보를 선택하여 지지해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이 전통은 적잖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 또는 공정한 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등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유권자의 표심(票心)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195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뉴욕 포스트』가 록펠러 후보를 지지해 그의 당선에 기여한 유명한 일화가 있긴 하지만, 지지 선언의 영향력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 현상은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선별 효과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미디어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며, 선택적으로 기억한다. 예를 들면, ‘가’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 후보의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의 부정적인 면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보강 효과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의견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태도와 의견을 보강하는 차원에 머무른다. 가령 ‘가’ 후보의 정치 메시지는 ‘가’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킨다. 이 두 이론을 종합해 보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후보 지지 선언이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쟁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언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선거에서는 후보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선점하려는 비민주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 세력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을 정치 선전에 이용하는 문제점 또한 이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신문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신문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행위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따라서 신문은 지지 후보의 표명이 보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하며, 독자 역시 지지 선언의 함의를 분별할 수 있는 혜안을 길러야 할 것이다.

87.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바르게 묶은 것은? (05-본수-29)

<보 기>

- ㄱ. 사례를 든 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 ㄴ. 이론을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ㄷ. 상반된 두 주장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ㄹ.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가) 자본주의 사회에 빈부 격차가 있듯이 디지털 정보사회에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가 있다. 디지털 매체의 도입 초기에는 매체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 격차가 곧 사라질 것으로 보는 낙관론이 우세하였다. 물론 정보 격차에 관한 비판적 관점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매체 접근의 차이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정보 격차는 사회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접근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후(後) 채택 이론(post-adoption theory)’에 따르면, 정보 격차는 다차원으로 존재하며 지속된다. 저렴한 디지털 매체의 보급과 함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로 정보 격차를 설명하는 이분법적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보 격차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디지털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물리적 접근의 격차는 감소하는 반면에 새로운 유형의 격차가 증가한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 격차가 해소되면서 또 다른 정보화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보 격차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은 크게 이용의 자주성과 사용 여건의 공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 이용의 자주성은 상황에 알맞게 디지털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이용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디지털 시스템의 운용 장애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겪는 열등감도 문제이다. 나아가 디지털 매체에서 획득한 정보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이용의 자주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이를 풍부하게 활용하기가 힘들다.

(라) 사용 여건의 공평성은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이용 기회의 균등성을 의미한다. 매체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더라도 주변 환경의 개선이 없다면 정보 격차는 지속된다. 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활용법을 열심히 습득하였지만 자신의 희망과는 반대로 이용 기회가 적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디지털 매체의 이용 방법을 알고 활용을 원할지라도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보 격차는 발생한다.

(마) 오늘날 연구에 의하면, 정보 격차의 새로운 측면들은 소득, 교육, 연령, 성별, 지역, 신체적 장애 등과 같은 인구 사회적 변인과 결합된다. 이것은 보다 세부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정보 활용의 질적 차이를 낳아서, 개인의 학업 성취도와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개인이 처한 상황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보 격차의 존재와 유형은 지금보다 훨씬 복잡적일 수 있다.

88.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9모-39)

- ① (가): 논의 대상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논의 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다): 새로운 관점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
- ④ (라): 새로운 관점과 기존의 관점을 절충하고 있다.
- ⑤ (마): 논의 대상의 향후 전개 양상을 전망하고 있다.



언어는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야 지속된다. 그러므로 성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진 셈이다. 언어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추리하여 인류 역사에 드리워진 비극에 대해 경고한다. 한 언어학자는 현존하는 북미 인디언 언어의 약 80%인 150개 정도가 빈사 상태에 있다고 추정한다.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북부에서는 기존 언어의 90%인 40개 언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23%인 160개 언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90%인 225개 언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기존 언어의 50%인 대략 3,000개의 언어들이 소멸해 가고 있다고 한다.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약 600개의 언어들은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 있지만, 세계 언어 수의 90%에 달하는 그 밖의 언어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소멸할지도 모른다.

언어가 이처럼 대규모로 소멸하는 원인은 중첩적이다.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가 파괴되고, 종족 말살과 동화(同化)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 외에 '문화적 신경가스'라고 불리는 전자 매체가 확산되는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물론 우리는 소멸을 강요하는 사회적, 정치적 움직임들을 중단시키는 한편, 토착어로 된 교육 자료나 문학 작품,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함으로써 언어 소멸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라도 20세기의 히브리 어처럼 지속적으로 공식어로 사용할 의지만 있다면 그 언어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

합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나 식물 종들을 보존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언어를 보존할 수는 없으며, 어쩌면 그래서는 안 되는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언어 공동체가 경제적 발전을 보장해 주는 주류 언어로 돌아설 것을 선택할 때, 그 어떤 외부 집단이 이들에게 토착 언어를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공동체 내에서 이질적인 언어가 사용되면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전 세계 언어의 50% 이상이 빈사 상태에 있다면 이를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다.

왜 우리는 위험에 처한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가 지닌 언

어 능력의 범위를 보여 준다. 언어는 인간의 역사와 지리를 담고 있으므로 한 언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역사적 문서를 소장한 도서관 하나가 통째로 불타 없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또 언어는 한 문화에서 시, 이야기, 노래가 존재하는 기반이 되므로, 언어의 소멸이 계속되어 소수의 주류 언어만 살아남는다면 이는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해치는 셈이 된다.

89. 위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본수-58)

- ①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문제의 복잡성을 드러내기 위해 관점이 다른 견해도 소개하고 있다.
- ③ 대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권위 있는 전문가의 견해에 기대고 있다.
- ④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D06 서술상의 특징 파악



“천운 우습 깊은 밤에 모진 광풍이 일어나 바람은 우루루루루루 쇠…….”

「춘향가」 가운데 춘향이 갇혀 있는 옥방(獄房)의 광경을 묘사한 ‘옥중가’의 한 대목이다. 이 소리를 듣고 바람이 천장을 휘몰아서 마룻바닥을 스쳐 가는 음산한 옥방의 분위기가 느껴져 청중이 공감하게 되었다면, 창자(唱者)는 이 대목의 ‘이면’을 잘 그렸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렇다면 ‘이면을 그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린다’는 말은 소리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창자의 음악 행위를 나타내므로, 이면은 당연히 음악 행위에 의해 구현된 그 무엇에 해당한다. 창자는 소리를 통해 사실의 내용인 옥방의 광경을 묘사했으니, 이면이란 사실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면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옥방의 광경을 제대로 묘사하려면 그 음산하고 비감한 분위기,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의미까지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 이면을 잘 파악한 후 성음[음색], 조[음계], 장단 등을 복잡하게 선택하고 구성하여 사실 내용을 실감 나게 소리해야 이면에 맞는다는 평을 들을 수 있으니, 이면에 맞게 잘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면 찾다가 소리 못한다.”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사실 내용 그대로를 음악으로 표현해야만 이면을 그렸다고 생각하는 경우, 음악적 표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사실 내용에 대한 해석이 어떤 ‘권위’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면, 이면을 그리는 일이란 이미 고정되어 있는 해석을 음악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된다. 창자가 음악적 구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면 “이면에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판소리 유파나 계보의 음악적 특성을 의미하는 ‘제’나 ‘바다’가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사실 내용에 대한 해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이면을 그린다는 말에는 창자의 주체적 해석을 허용하는 의미도 포함된다. 따라서 창자는 사실 내용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기존의

음악적 구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판소리 전승상에 없던 독창적인 창법을 의미하는 ‘더늌’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생각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자칫 자신의 미숙한 소리를 합리화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도 있다.

사실 내용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든,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든 간에, 이면이란 [㉠]을/를 의미한다. 모든 판소리 창자들은 “이면을 잘 그렸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 말을 듣기란 쉽지 않다. 이면을 잘 그렸다는 찬사를 받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야만 명창(名唱)의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90. 위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대화로 바르지 않은 것은? (05-본수-48)

- ① 가람: 질문을 던지면서 화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 ② 나래: 예시를 통해서 화제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지.
- ③ 다희: 한편,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어.
- ④ 하늘: 그 과정에서 각각의 관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도 지적하고 있군.
- ⑤ 아영: 전체적으로는 화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가) 정한담과 최일귀 두 사람이 이때를 타서 천자에게 여쭙오되,

“폐하 즉위하신 후에 은덕이 온 백성에게 미치고 위엄이 온 세상에 진동하여 열국 제신이 다 조공을 바치되, 오직 토번과 가달이 강포함만 믿고 천명을 거스르니, 신 등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남적을 항복 받아 충신으로 돌아오면 폐하의 위엄이 남방에 가득하고 소신의 공명은 후세에 전하리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는 깊이 생각 하옵소서.”

천자 매일 남적이 강성함을 근심하더니, 이 말을 듣고 대희 왈,
“경의 마음대로 기병하라.”

하시니라.

이때 유 주부 조회하고 나오다가 이 말을 듣고 천자 앞에 들어가 엎드려 주왈,
“듣사오니 폐하께옵서 남적을 치라 하시기로 기병하신단 말씀이 옳으니까?”

천자 왈,

“한담의 말이 여차여차하기로 그런 일이 있노라.”

주부 여쭙오되,

“폐하, 어찌 망령되게 허락하였습니까? 왕실은 미약하고 외적은 강성하니, 이는 자는 범을 찌름과 같고 드는 토끼를 놓침이라. 한낱 새알이 천 근의 무게를 견디리까? 가련한 백성 목숨 백 리 사장(沙場) 외로운 혼이 되면 그것인들 아니 적악(積惡)이리오.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기병치 마옵소서.”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차에, 한담과 일귀 일시에 합주하되,
“유심의 말을 듣사오니 죽여도 애석하지 않으니, 오국 간신과 같은 무리로소이다. 대국을 저버리고 도적놈만 칭찬하여 개미 무리를 대국에 비하고 한낱 새알을 폐하에게 비하니, 일대의 간신이요 만고의 역적이라. 신 등은 저어하건대 유심의 말이 가달을 못 치게 하니 가달과 동심하여 내용이 된 듯하니 유심의 목을 먼저 베고 가달을 치사이다.”

천자가 허락하니,

한림 학사 왕공렬이 유심 죽인단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왈,

“주부 유심은 선황제 개국 공신 유기의 자손이라. 위인이 정직하고 일심이 충직하오니 남적을 치지 말자는 말이 사리에 당연하옵거늘, 그 말을 죄라 하와 충신을 죽이시면 태조 황제 사당 안에 유 상공을 배향하였으니 춘추로 제사 지낼 때에 무슨 면

목으로 뵈오며, 유심을 죽이면 직간할 신하 없사울 것이니, 황상은 생각하와 죄를 용서하옵소서.”

천자 이 말 듣고 한담을 돌아보니, 한담이 여쭙오되,

“유심을 죄하실진대 만 번 죽여도 애석하지 않으나 공신의 후에이오니, 죄목대로 다 못하오나 정배나 하사이다.”

천자

“옳다.”

하시고,

“황성 밖에 멀리 유배 보내라.”

(나) 이때 대원수가 금산성에서 적 십만 병을 한칼에 무찌르고 바로 호산대에 득달하여 적병을 씨 없이 함몰코자 행하더니, 뜻밖에 월색이 희미하며 난데없는 빗방울이 원수 얼굴에 내리거늘, 원수 괴이히 여겨 말을 잠깐 머무르고 천기를 살펴보니, 도성에 살기 가 득하고 천자의 자미성(紫微星)이 떨어져 번수 가에 비쳤거늘, 크게 놀라 발을 구르며 왈,
“이게 웬 변이냐?”

갑옷과 투구, 창검을 갖추고 천사마 위에 바삐 올라 산호 채찍을 높이 들어 채질하며 말에게 단단히 부탁하여 왈,

“천사마야, 너의 용맹 두었다가 이런 때에 아니 쓰고 어디 쓰리오. 지금 천자 도적에게 잡히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지라. 순식간에 득달하여 천자를 구원하라.”

천사마는 본디 천상에서 타고 온 비룡이라. 채질을 아니 하고 단단히 부탁하여 말해도, 비룡의 조화라 제 가는 대로 두어도 순식간에 몇 천 리를 갈 줄 모르는데, 하물며 제 입자 급한 말로 부탁하고 산호채로 채질하니, 어찌 아니 급히 갈까. 눈 한 번 깜짝이며 황성 밖을 얼른 지나 번수 가에 다다르니,

이때 천자는 백사장에 엎어지고 한담은 칼을 들고 천자를 치려 하거늘, 원수 이때를 당하며 평생에 있는 기력과 일생에 지를 호통을 힘을 다해 지르고, 천사마도 평생 용맹을 이때에 다 부리고, 변화 좋은 장성검도 삼십삼천 어린 조화 이때에 다 부리니, 원수 달는 앞에 귀신인들 아니 울며, 강산도 무너지고 하해도 뒤엎는 듯 혼백인들 아니 울리오. 온몸이 불빛 되어 벽력같이 소리하며 왈,

“이놈 정한담아, 우리 천자를 해치지 말고 내 칼을 받으라.”

하는 소리에 나는 짐승도 떨어지고 강신 하백(江神河伯)도 뉘을 잃어 용납지 못하거늘, 정한담의 혼백인들 아니 가며 간담인들 성할쏘냐. 호통 소리 지나는 곳에 두 눈이 캄캄하고 두 귀가 멍멍하여 댕던 말 들러 타고 도망하여 가려다가, 형산마 거꾸러져 백사장에 떨어지니 창검을 갈라 들고 원수를 겨누거늘, 구만 청천 구름 속에 번개같이 번쩍 하며 한담의 장창 대검이 부서지니, 원수 달려들어 한담의 목을 산 채로 잡아들고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엎드리니, 이때 천자 백사장에 엎어져서 반생반사 기절하여 누워 있거늘, 원수 붙잡아 앉히고 정신을 진정 한 후에 엎드려 주왈,

“소장이 도적을 함몰하고 한담을 사로잡아 말에 달고 왔나이다.”

- 작자 미상, 「유충렬전」 -

91. (가)와 (나)를 대비할 때,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06-본수-48)

| | (가) | (나) |
|---|-------------------------|-------------------------|
| ① | 사건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 |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 |
| ② | 사건이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건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 ③ | 배경이 되는 공간이 고정되어 있다. | 배경이 되는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 |
| ④ |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
| ⑤ | 주로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 주로 묘사를 통해 인물의 행동을 드러낸다. |

D07 말하기 방식의 평가



진행자(여) : 오늘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역사 소설 「곽재우」의 작가 이철수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가(남) : 예. 반갑습니다.

진행자(여) : 지금 선생님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 「홍의 장군-곽재우」가 방송되고 있는데요. 드라마는 자주 보시는지요?

작가(남) : 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곽재우 장군의 영웅적인 면모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액션 장면이 많아서 무협물 같기도 하고…….

(웃음)

진행자(여) : 그런데 곽재우 장군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영웅적인 인물인데, 그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 문제가 되나요?

작가(남) : 예, 드라마 연출자는 연출자대로 그 나름의 관점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한 영웅의 개인적인 고뇌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 싶었습니다.

진행자(여) : 아…… 예. 드라마와 선생님의 작품 사이에 약간의 시각차가 있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곽재우 장군의 개인적인 고뇌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작가(남) : 저는 사실 제 작품을 통해,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 앞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곽재우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를 버려 두고 의병장으로 거듭나기까지의 고민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겁니다. 가족의 운명, 생이별과 재회, 뭐 그런 걸 한번 그려 보자는 게 제 의도였죠.

진행자(여) : 선생님 말씀은, ‘홍의 장군 곽재우’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을 그려 보고 싶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군요. 그럼 청취자들을 위해 곽재우 장군이 어떤 분이었는지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가(남) : 잘 아시겠지만 곽재우 장군은 조선 중기인 1552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경상도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많은 전공을 세우셨지요. 어쩌나 날래고 용맹했던지, ‘홍의 장군’이란 소리만 들어도 왜병들이 줄행랑을 쳤다고 합니다.

진행자(여) : 아, 그렇군요. 저도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작품과의 만남이 인간 곽재우를 이해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가(남) : 네, 고맙습니다.

92. (물음)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5-본수-6)

- ① 진행자는 청취자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고 있다.
- ② 진행자는 작가와 다른 관점에서 드라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작가는 작품의 주제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자신의 집필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 ④ 작가는 원작의 집필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드라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⑤ 작가는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중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남학생 : 주변 상점들 단체 티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5천 원에서 만 원 사이야. 어제 애들이 추천했던 가게로 가 보자.

여학생 : 이왕이면 디자인 예쁘고, 질 좋은 걸로 해야지.

(가게 문을 열 때 종소리 들림)

아저씨 : 어서 오세요.

남학생 : 안녕하세요. 다음 주가 우리 학교 체육 대회라서요. 단체 티를 맞추려고요.

아저씨 : 그래, 잠깐 기다려 봐라. 여기 견본 있다. 마음에 드는 걸 골라 보렴.

여학생 : 와, 종류가 참 많네요. 근데 요즘 어느 게 잘 나가요?

아저씨 : 이견 값이 싸서 부담은 없는데, 합성 섬유라서 촉감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이견 가볍고 땀 흡수도 잘 돼서, 요즘 단체 티로 많이 나가.

남학생 : 좋아 보이네요. 얼마예요?

아저씨 : 그리 안 비싸. 만 원이야.

여학생 : 너무 비싸요. 저희도 품질 좋은 걸로 하고 싶은데, 학생인 저희들로서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6천 원에 해 주시면 안 돼요?

아저씨 : 많이 사면 모르지만, 몇 장 사는데 그 가격에 주기는 힘들지. 학생들이니까 내가 9천 원까지는 깎아 주지.

남학생 : 저희 두 반만 해도 70장이 넘는 걸요. 또 다른 반 애들도 여기 디자인이 예쁘다고 가격만 적당하다면 여기서 사겠대요. 가서 얘기 잘 할게요. 그러니까 6천 원에 해 주세요.

아저씨 : 그래도 6천 원에는 힘들지.

남학생 : 그럼 옷에 학급 로고를 새겨 주시면, 7천 원에 살게요.

아저씨 : 로고라…….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돈이 좀 드는데. 음, 로고를 그냥 해 주는 대신 9천 원에 하지. 어때?

여학생 : 어우, 그래도 비싸요. 아저씨, 체육 대회 때 쓸 모자도 여기서 단체로 살 테니까 조금 더 깎아 주세요. 네?

아저씨 : 좋아. 그러면 8천 원에 하자. 대신 다른 애들한테도 말 잘해 줘야 돼.

남학생 : 좋아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되겠죠?

아저씨 : 그럼. 이제 계약서를 적어 볼까? 8천 원에 학급 로고 새겨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 됐지?

93. (물음) 학생들이 사용한 협상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08-6모-5)

- ① 상점 주인의 제안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의 기대 수준을 낮춘다
- ② 상점 주인이 선호할 만한 제안들을 준비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 ③ 상점 주인과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만한 연결점을 찾아 부각시킨다.
- ④ 다른 상점들의 시세를 내세워 원하는 금액으로 타결되도록 유도한다.
- ⑤ 협상 기한이 촉박함을 내세워 상점 주인이 결정을 서두르게 한다.

D08 표현상의 특징 및 효과 파악



(가) 하늘이 드높아 가니 벌써 가을인가 보다. 가을이 무엇인지 내 모르되 잎이 진 지 오래고 뜰 앞에 두어 송이 황국(黃菊)이 웃는지라 찾아오는 이마다 가을이라 이르니 나도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촛불을 끄고 창 앞에 턱을 괴었으나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잎이 날아간다. 유위전변(有爲轉變)—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우주의 원리 유일의 실재에다 '멋'이란 이름을 붙여 놓고 잊지않 마시다 남은 머루술을 들이키고 나니 새삼스레 고개 끄덕여지는 밤이다. 산골 물소리가 어떻게 높아 가는지 열 어젯힌 창문에서는 달빛이 쏟아져 들고, 달빛 아래는 산란한 책과 술병과 방우자(放牛子)가 네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멋',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道)'라 하고 '일물(一物)'이라 하고 '일심(一心)'이라 하고 대중이 없는데, 하여간 도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늘 밤엔 '멋'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멋이 있었다.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이다.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멋을 세상 사람은 번뇌(煩惱)라 이르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라.

한 바리 밥과 산나물로 죽히 목숨을 이치고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시를 읊을 동쪽 두던이 있고 발을 씻을 맑은 물이 있으니 어 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뇨. 이는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 곧 행복이라, 다만 알려고 함으로써 멋을 삼노라.

- 조지훈, 「멋 설(說)」 -

94. (가)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로 거리가 먼 것은? (05-본수-39)

- ① 영탄적인 어조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구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이 다양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옛사람의 작품을 인용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예스러운 말투와 한자어의 사용으로 고풍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

(나)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나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짧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95.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7-본수-29)

- 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④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었디어
 있는 대로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A]

-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읍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읍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B]

- 박용래, 「월훈(月暈)」 -

96.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8-9모-16)

- ① [A], [B]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환기한다.
- ② [A], [B]는 모두 화자가 처한 무력한 현실을 상징한다.
- ③ [A], [B]에서는 모두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 ④ [A]는 [B]에 비해 공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 ⑤ [B]는 [A]에 비해 시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D09 작품의 공통적 특징 파악



(가) 하늘이 드높아 가니 벌써 가을인가 보다. 가을이 무엇인지 내 모르되 잎이 진 지 오래고 뜰 앞에 두어 송이 황국(黃菊)이 웃는지라 찾아오는 이마다 가을이라 이르니 나도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촛불을 끄고 창 앞에 턱을 괴었으나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잎이 날아간다. 유위전변(有爲轉變)—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우주의 원리 유일의 실재에다 ‘멋’이란 이름을 붙여 놓고 잊저녁 마시다 남은 머루술을 들이키고 나니 새삼스레 고개 끄덕여지는 밤이다. 산골 물소리가 어떻게 높아 가는 지 열어젖힌 창문에서는 달빛이 쏟아져 들고, 달빛 아래는 산란한 책과 술병과 방우자(放牛子)가 네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멋’,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道)’라 하고 ‘일물(一物)’이라 하고 ‘일심(一心)’이라 하고 대중이 없는데, 하여간 도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늘 밤엔 ‘멋’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멋이 있었다.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이다.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멋을 세상 사람은 번뇌(煩惱)라 이르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라.

한 바리 밥과 산나물로 족히 목숨을 이르고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시를 읊을 동쪽 두던이 있고 발을 씻을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뇨. 이는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 곧 행복이라, 다만 알려고 함으로써 멋을 삼노라.

- 조지훈, 「멋 설(說)」 -

(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뇌
이 중에 브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죽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올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슴 홀가.

천운대(天雲臺) 도라 드러 완락재(玩樂齋) 소쇄(瀟灑)흔디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하애라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닐러 므슴 홀고.

청산(靑山)은 엇제히여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엇제히여 주야(晝夜)에 굿지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히리라.

우부(愚夫)도 알며 히거니 괴 아니 쉬온가
성인(聖人)도 못 다 히시니 괴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9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05-본수-37)

- ① 글쓴이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③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의 상황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④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⑤ 현상에 얽매이는 태도를 비판하며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가)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킨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나)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슬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 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별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퇴어 올 맑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

(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98. (가)~(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06-본수-15)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 ④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를 통해 생명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D10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때, 함경도 곡산 땅에 한 사람이 있으되, 성은 김(金)이요 명은 덕령(德齡)이라. 힘은 능히 삼천 근을 들고 신장은 구 척이요, 검술과 육도삼략이 옛날 황석공의 도술을 당하는지라. 아깝도다. 이때는 부친의 초토(草土) 중에 있고, 모부인을 섬겨 하루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들으니 왜적이 백 리 안에 온다 하거늘 모부인에게 여쭙오되,

“국운이 불행하여 왜적이 산과 들에 가득 찼사오니, 소자가 비록 초토에 있사오나 지금은 국사가 망극하오니 신민의 도리로 어찌 편안하오리이까? 나아가 도적을 물리치고 즉시 돌아오리이다.”

부인이 책망하여 왈,

“너는 어찌 무지한 말로 어미를 놀라게 하느냐? 공자(公子)는 구 년 거상(居喪)이요, 군자(君子)는 육 년 거상이요, 대부(大夫)는 삼 년 거상이라. 네 어찌 무슨 지략으로 사정에 어두운 말을 하느냐? 만일 내 말을 거역하면 모자지의(母子之義)를 끊으리라.”

덕령이 다시 말을 못하고 마음을 억누르고 있더니, 수일 후 들으니 도적이 머지않아 들어온다 하거늘, 마음이 송구하여 슬하를 떠나 가등청정의 진에 자취도 없이 들어가 외쳐 왈,

“나는 조선 장수 김덕령이라. 왜적의 씨를 없이하려니와 천운이 불행하여 내 몸이 상중에 있기로 너희를 이제까지 살렸도다. 무지한 왜적은 천위를 모르고 외람되어 조선을 침범하였으니 목숨을 아끼거든 바빠 살아 가라. 너의 명이 내 수중에 달렸으니 빨리 돌아가라. 만일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일 오시(午時)에 올 것이니, 그때를 기다려 재주를 구경하되 백지를 오려 너희 군졸 머리 위에 날날이 붙이고 기다리라.”

하고, 마침 간데없거늘, 가등청정이 대로하여 수문장을 빼어 장대에 달고 왈,

“문을 어찌 지켜 요망한 놈이 임의로 출입하는가.”

하고, 군중에 전령하여,

“백지를 오려 머리 위에 날날이 붙여라. 내일 오시에 요망한 놈이 반드시 올 것이니, 동정을 살피되 일시에 함께 총과 활을 쏘아라.”

하고, 이튿날 오시가 되도록 종적이 없더니, 오시 후에 북쪽으로부터 일점 흑운이 일어나며 광풍이 대작하고 시석(矢石)이 날리며 큰 나무가 부러지며 천지가 뒤넘는 듯하더니 공중에서 한 소년이 상복을 입은 채 포선(布扇)을 들고 오른손으로 억만 군중 백화 발이 된 백지를 거두어 쥐고 천둥같이 호령 왈,

“너희는 내 재주를 보라. 내 몸이 상중이 아니면 너희 장졸의 머리를 이 종이같이 경각에 거두고자 하나니, 너희가 목숨을 아끼거든 빨리 퇴병하라. 만일 나의 말을 업신여기면 내 포선으로 너희를 씨도 없이하리라.”

하고 간데없거늘, 가등청정이 간담이 서늘하여 차탄 왈,

“내 팔 년 동안 도술을 배워 조선에 나왔으되 저러한 재주는 처음이라. 천신 같도다.”

하고, 진을 풀어 조섭의 진과 합하고자 하더라.

-작자 미상, 「임진록」-

99. 위 글과 <보기>는 같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 글과 <보기>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6모-44)

<보 기>

남원부 사람으로 전에 참봉을 지냈던 변사정이 의병을 모집하여 영남으로 가려고 할 때, 최척은 활쏘기와 말 타기를 잘했기 때문에 의병에 뽑혀서 동행하게 되었다. 최척은 진중에 있으면서 옥영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몸이 아프게 되었다. 혼례를 치르기로 약속한 날이 되어 소장(訴狀)을 올려 휴가를 청하자, 의병장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 이 어느 때인데 감히 혼사에 대해 말하느냐? 임금께서도 난리를 당하여 피난을 가서 풀숲을 방황하고 계시니, 이러한 때 신하 된 자는 마땅히 창을 베고 잘 겨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의병장은 이렇게 꾸짖으며 끝내 최척의 귀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옥영도 최척이 돌아오지 않자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날을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

- ① 위 글은 <보기>에 비해 통쾌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② 위 글은 <보기>에 비해 주인공이 능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 ③ <보기>는 위 글에 비해 사실성이 두드러진다.
- ④ <보기>는 위 글에 비해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진다.
- ⑤ <보기>는 위 글에 비해 개인의 애환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

100. <보기>는 (가)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토의
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본수-30)

<보 기>

【백과사전】

이육사: 시인. 190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항일 독립 투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함.

- 작품 경향: 저항 의식, 실향 의식과 비애, 초인 의지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삼고 있음.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보임.

- 「교목」: 1940년 『인문평론』 7월호에 발표.

【국어사전】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게 자라는 큰 나무.

【인터넷 자료】

- 『맹자』에 따르면, ‘교목’은 오랜 세월 덕을 닦아 임금을 도(道)로써 보필하여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를 의미한다.
- 시인은 빈궁과 투옥과 유랑의 사십 평생에 거의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문학청년은 아니었으나 삼십 고개를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시에 의탁해 꿈도 그려 보고 불평도 터뜨렸던 것이다.(『육사 시집』 발문)

- ① 이 시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시인의 절개와 기상을 표상한 것이다.
- ② 이 시의 행 배열과 연 구성에서도 이육사 시의 형식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 ③ ‘넓은 거미집’은 시인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끝없는 꿈길’은 시인의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함축하고 있다.
- ⑤ ‘바람’은 이국을 떠돌던 시인의 실향 의식과 저항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아내는 너 밤새워 가면서 도적질하러 다니느냐, 계집질하러 다니느냐고 발악이다.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병병하여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번 꺾 질러 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선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있다.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 듯싶이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 원 몇 십 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

냥 줄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팠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듯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나나 아내나 제 거동애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 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

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이상, 「날개」-

101.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9모 -43)

<보 기>

「날개」는 현대 문명과 불화를 겪고 있는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아내’와 ‘나’의 부조리한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여기서 ‘아내’는 현대 문명을, ‘나’는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상징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 소설에 나타나는 사물들과 사건들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① 도적질하거나 계집질한다고 ‘아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은 지식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적인 힘을 의미한다.
- ②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에 맞서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 ③ ‘나’가 ‘아내’에게서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
- ④ 자신도 모르게 아달린을 먹어 왔는지도 모른다는 ‘나’의 의구심은 자기의 이성이 자신도 모르게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 가는 데 대한 지식인의 두려움을 의미한다.
-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다고 한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의미한다.

D11 해석의 적절성 평가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에게 개인적 선호(選好)를 드러내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할까? 도덕 철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도덕적 정당화의 조건으로 공평성(impartiality)을 제시한다. 공평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신체와 생명, 복지와 행복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어떤 개인에 대해 행위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도덕적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공평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특정 개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상대가 가족인 경우는 개인적 인간관계의 친밀성과 중요성이 매우 강하다. 가족 관계라 하여 상대에게 특별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다음 두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철수는 근무 중 본부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동해안 어떤 항구에서 혐의자 한 명이 일본으로 밀항을 기도한다

는 첩보가 있으니 그를 체포하라는 것이었다. 철수가 잠복

끝에 혐의자를 체포했더니, 그는 하나밖에 없는 친형이었다. 철수는 고민 끝에 형을 놓아주고 본부에는 혐의자를 놓쳤다고 보고했다.

민수는 두 사람에게 각각 오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한 명은 삼촌이고 다른 한 명은 사업상 알게 된 영수였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오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고, 그보다 적은 돈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민수는 노력한 끝에 오천만 원을 마련하였고, 둘 중 한 명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민수는 삼촌의 빚을 갚았다.

철수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동일하게 간주해야 하는 공평성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민수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는 분명히 삼촌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했다. 민수가 공평주의자라면 삼촌과 영수의 행복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영수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삼촌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영수의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삼촌과 영수가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민수에게는 개인적 선호가 허용된다.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런 순간에도 주사위를 던져서 누구의 빚을 갚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적 선호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온건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개인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할 여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지가 개인적 선호의 허용 범위라는 것이다. 그들은 상황적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적 선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02.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대화를 접하고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7-6모-50)

<보 기>

A: 효심이 지극한 왕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면, 법의 집행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B: 당연히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여야겠지.
A: 그러면 왕이 그것을 막지 않겠습니까?
B: 왕이 사사로이 막을 수는 없지. 왕의 직분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A: 이런 상황에서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B: 내가 그 왕이라면 왕의 직분을 버리고 아버지와 도망가겠네.

- ①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허락한다면 그것은 개인적 선호가 작용한 거야.
- ② 집행관이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인다면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거야.
- ③ 왕이 사사로이 판단하더라도 지위를 버린다면 공평주의자들은 비난하지 않을 거야.
- ④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은 왕의 신분도 지키고 아버지도 구하는 길을 찾으려고 할 거야.
- ⑤ 온건한 공평주의자들이 볼 때,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금지하는 것은 '민수'의 행동과 차이가 없어.



예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베토벤의 교향곡이나 발레 '백조의 호수' 같은 것이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물론 이 대답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질문이 이것들 모두를 예술 작품으로 특징짓는 속성, 곧 예술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그 대답은 무엇이 될까?

사실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그룹에 속한 것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속성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다면 대체 이들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예술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도 이러한 가정 하에서 전개되었다. 그래서 예술은 곧 모방이라는 서양의 전통적 시각이나, 예술은 감정의 표현이라는 주장, 또 예술은 형식이라는 주장까지 모두 예술의 본질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정답으로 경쟁한다면, 그 중 어느 것이 정말 예술의 본질인가?

20세기 들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이 문제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비트겐슈타인은 '게임'을 예로 든다. 누군가가 게임의 본질적 속성을 '경쟁'으로

본다고 해 보자. 곧 반례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은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졌지만 게임은 아니다. 한편 게임 중에도 경쟁이 아닌 것이 있다. 무료한 시간에 혼자 하는 카드놀이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져 가다 보면 모든 게임에 공통적인 하나의 본질을 찾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이 바로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한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게임은 본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게임이라 불리는 것들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성립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경우 발견되는 유사성을 ‘가족 유사성’이라 부르기로 해 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머니와 나와 동생의 외양은 이런저런 면에서 서로 닮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셋이 공통적으로 닮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비슷한 예로 실을 꼬아 만든 밧줄은 그 밧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실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실들의 연속된 연계를 통해 구성된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전혀 만나지 않는 실들도 같은 밧줄 속의 실일 수 있다.

미학자 와이츠는 예술이라는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장한다. 그에게 예술은 가족 유사성만을 갖는 ‘열린 개념’이다. 열린 개념이란 주어진 대상이 이미 그 개념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일부와 닮았다면, 그 점을 근거로 하여 얼마든지 그 개념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만큼 테두리가 열려 있는 개념을 말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예술론인 표현론이나 형식론은 있지도 않은 본질을 찾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된다. 와이츠는 표현이니 형식이니 하는 것은 예술의 본질이 아니라 차라리 좋은 예술의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는 열린 개념으로 예술을 보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창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예술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접이라고 주장한다.

103. 위 글을 읽고 와이츠 예술론의 의의나 한계에 대해 토론했다고 할 때, 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은? (07-9모-50)

- ① 와이츠의 이론에 따르면 예술 개념은 아무런 근거 없이 확장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주장하는 셈이지.
- ② 와이츠는 예술의 본질은 없다고 본 거야. 예술이 가족 유사성만 있는 열린 개념이라면 어떤 두 대상이 둘 다 예술이면서 서로 닮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군.
- ③ 와이츠는 무엇이 예술인가와 무엇이 좋은 예술인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 같아. 열린 개념이라고 해서 예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까지도 포기한 것은 아니야.
- ④ 현대 예술은 독창성을 중시하고 예술의 한계에 도전함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예술의 영역을 크게 넓힐 수 있게 되었어. 와이츠 이론은 이러한 상황에 잘 부합하는 예술론이야.
- ⑤ 영화나 컴퓨터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새로운 창작 활동이 가능해지지. 미래의 예술이 그런 것들도 포괄하게 될 때, 와이츠 이론은 유용한 설명이 될 수 있어.



언어는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야 지속된다. 그러므로 성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진 셈이다. 언어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추리하여 인류 역사에 드리워진 비극에 대해 경고한다. 한 언어학자는 현존하는 북미 인디언 언어의 약 80%인 150개 정도가 빈사 상태에 있다고 추정한다.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북부에서는 기존 언어의 90%인 40개 언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23%인 160개 언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90%인 225개 언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기존 언어의 50%인 대략 3,000개의 언어들이 소멸해 가고 있다고 한다.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약 600개의 언어들은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 있지만, 세계 언어 수의 90%에 달하는 그 밖의 언어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소멸할지도 모른다.

언어가 이처럼 대규모로 소멸하는 원인은 중첩적이다.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가 파괴되고, 종족 말살과 동화(同化)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 외에 '문화적 신경가스'라고 불리는 전자 매체가 확산되는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물론 우리는 소멸을 강요하는 사회적, 정치적 움직임들을 중단시키는 한편, 토착어로 된 교육 자료나 문학 작품,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함으로써 언어 소멸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라도 20세기의 히브리 어처럼 지속적으로 공식어로 사용할 의지만 있다면 그 언어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

합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나 식물 종들을 보존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언어를 보존할 수는 없으며, 어쩌면 그래서는 안 되는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언어 공동체가 경제적 발전을 보장해 주는 주류 언어로 돌아설 것을 선택할 때, 그 어떤 외부 집단이 이들에게 토착 언어를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공동체 내에서 이질적인 언어가 사용되면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전 세계 언어의 50% 이상이 빈사 상태에 있다면 이를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다.

왜 우리는 위험에 처한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가 지닌 언어 능력의 범위를 보여 준다. 언어는 인간의 역사와 지리를 담고 있으므로 한 언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역사적 문서를 소장한 도서관 하나가 통제로 불타 없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또 언어는 한 문화에서 시, 이야기, 노래가 존재하는 기반이 되므로, 언어의 소멸이 계속되어 소수의 주류 언어만 살아남는다면 이는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해치는 셈이 된다.

104. 위 글의 논지에 비추어 <보기>를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 것은? (07-본수-59)

<보 기>

영어에는 1인칭 복수로 *we* 한 가지만 있으나, 자이세 어에서는 청자를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에 따라 *níy* 와 *níy* 로 구별되고, 체로키 어에서는 ‘화자+청자’를 가리키느냐 ‘화자+제3자’, ‘화자+복수의 타인’, ‘화자+청자+복수의 타인’을 가리키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

- ① 언어가 발전해 가면서 구분 체계도 복잡하고 정교해진다.
- ② 언어 간의 차이는 인류의 언어 능력이 풍부함을 보여 준다.
- ③ 문법적으로 더 세밀히 구분을 하는 언어일수록 생존에 유리하다.
- ④ 국제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언어 간의 차이를 줄여 가야 한다.
- ⑤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더 널리 쓰이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D12 수용의 타당성 평가



그런데 그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이미 가끔씩 노환으로 자리보전을 하던 석담 선생은 그날도 병석에서 일어나기 바쁘게 종지와 붓을 찾았다. 그것도 그 무렵에는 거의 쓰지 않던 대필(大筆)과 전지(全紙)였다. 벌써 몇 달째 종지와 붓을 가까이 않던 고죽은 그런 스승의 집착에 까닭 모를 심화를 느끼며 먹을 갈기 바쁘게 스승 곁을 물러나고 말았다. 어딘가 모르게 스승의 과장된 집착에는 제자의 방황을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드는 데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동안 뜰을 서성이는 사이에 그는 문득 늙은 스승의 하는 양이 궁금해졌다.

방에 돌아오니 석담 선생은 붓을 연직에 기대 놓고 눈을 감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바닥에는 방금 쓰다가 그만둔 것인 듯 ‘萬毫齊力(만호제력)’ 녀 자 중에서 앞의 석 자만이 씌어져 있었다.

“소재(蘇齋)*는 일흔여덟에 참깨 위에 ‘天下泰平(천하태평)’ 녀 자를 썼다고 한다. 나는 아직 일흔도 차지 않았는데 이 녀 자 ‘萬毫齊力’을 단숨에 쓸 힘도 남지 않았으니…….”

그렇게 탄식하는 석담 선생의 얼굴에는 자못 처연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러나 고죽은 그 말을 듣자 억눌렀던 심화가 다시 솟아올랐다. 스승의 그 같은 표정은 그에게는 처연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만함으로 비쳤다.

“설령 이 글을 단숨에 쓰시고, 여기서 금시조(金翅鳥)가 솟아오르며 향상(香象)*이 노닐듯, 그게 선생님을 위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고죽은 자신도 모르게 심술궂은 미소를 띠며 물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 채 기진해 있던 석담 선생은 처음 그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내 그 말의 참 뜻을 알아들은 듯 매서운 눈길로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소리냐? 그와 같이 드높은 경지는 글씨를 쓰는 이면 누구든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르러 보고 싶은 경지다.”

“거기에 이르러 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고죽도 지지 않았다.

“태산에 올라 보지도 않고, 거기에 오르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없을까를 근심하는구나. 그럼 너는 일찍이 그들이 성취한 드높은 경지로 후세에까지 큰 이름을 드리운 선인들이 모두 쓸모없는 일을 하였던 말이나?”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종이에 먹물을 적시는 일에 도가 있는들 무엇이며, 현묘(玄妙)함이 있는들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도로 이름하면 백정이나 도둑에게도 도가 있고, 뜻을 어렵게 꾸미면 장인이나 야공(冶工)의 일에도 현묘함이 있습니다. 천고에 드리우는 이름이 있다 하나 이 나[我]가 없는데 문자로 된 나의 껍데기가 낯모르는 후인들 사이를 떠돈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서화가 남겨진다 하나 단단한 비석도 비바람에 깎이는데 하물며 종지와 먹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것은 살아 그들의 몸을 편안하게 해 주지도 못했고 험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허망함과 쓰라림을 감추기 위해 이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어떤 경지를 설정하여 자기를 위로하고 이웃과 뒷사람을 홀렸던 것입니다…….”

그때였다. 고죽은 불의의 통증으로 이마를 감싸 안으며 엎드렸다. 노한 석담 선생이 앞에 놓인 벼루 뚜껑을 집어던진 것이다. 샘솟듯 솟는 피를 흠치고 있는 고죽의 귀에 늙은 스승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들려 왔다.

“내 일찍이 네놈의 천골(賤骨)을 알아보았더니라. 가거라. 너는 진작부터 저잣거리에 나왔아야 할 놈이었다. 용케 천골을 숨기고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이제 나가면 글씨 한 자에 쌀 뒷박은 후히 받을 게다…….”

결국 그 자리가 그들의 마지막 자리였다. 그 길로 석담 선생의 집을 나선 고죽이 다시 돌아온 것은 이미 스승의 시신이 입관된 뒤였다.

벌써 삼십여 년 전의 일이건만 고죽은 아직도 회미한 아픔을 느끼며 이제는 주름살이 덮여 흉터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왼쪽 이마 어름을 만져 보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떠오르는 스승의 얼굴은 미움도 두려움도 아닌, 그리움 그것이었다.

“아버님, 김 군이 왔습니다.”

다시 추수의 목소리가 그를 끝 모를 회상에서 깨나게 하였다. 이어 방문이 열리며 초헌(草軒)의 둥글넓적한 얼굴이 나타났다. 대할 때마다 만득자(晩得子)를 대하는 것과 같이 유별난 애정을 느끼게 하는 제자였다. 사람이 무던하다거나 이렇다할 요구 없이 일 년 가까이나 그가 없는 서실을 꾸러 가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글씨 때문이었다. 붓 쥐는 법도 익히기 전에 행서(行書)를 휘갈기고, 점획 결구(點劃結構)도 모르면서 초서(草書)며 전서(篆書)까지 그려 대는 요즈음 젊은이들 답지 않게 초헌은 스스로 정서(正書)로만 삼 년을 채웠다. 또 서력(書歷) 칠 년이라고는 하지만 칠 년을 하루같이 서실에만 붙어 산 그에게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닌데도 그 봄의 고죽 문하생 합동전에는 정서 두어 폭을 수줍게 내놓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글은 서투른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힘으로 충만돼 있어, 고죽에게는 남모를 감동을 주곤 했다. 젊었을 때는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윽하게 느껴지는 스승 석담의 서법을 연상케 하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이문열, 「금시조(金翅鳥)」 -

105. 위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6모-55)

- ① 예술이 갖는 효용성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군.
- ② 예술의 경지를 깨달아 가는 과정이 험난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군.
- ③ 예술가로서 스승과 제자의 만남과 헤어짐을 작가는 극적으로 그려 내었군.
- ④ 예술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 작가는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군.
- ⑤ 예술을 창조하는 이들이 겪는 정신적 고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군.



진행자(남): (음악)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프만 부인이 쓴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읽는 이(여): 나는 누에를 키운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나는 누에고치에서 누에나비들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는, 그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고치에 생긴 작은 구멍에서 누에나비가 긴 시간을 뽀뽀하며 용케 빠져나오는 것을 보던 나는,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그 가엾은 나비를 도와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누에고치 하나에 큰 구멍을 내 주었습니다. 좁은 구멍에서 나오는 다른 누에나비들이 날개가 찢기는 듯한 고통을 겪는 동안, 고치에 구멍을 내 준 나비는 쉽게 고치에서 나와 아무런 상처도 없이 아름다운 날개를 펴덕였지요. 나는 이 나비의 날갯짓을 보며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온 나비들은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공중으로 날아올랐지만, 큰 구멍으로 쉽게 나온 나비는 책상 위를 몇 번 맴돌더니 얼마 후 지쳐 쓰러졌습니다. 누에나비는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애쓰는 동안, 힘이 길러지고 물기가 알맞게 말라 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때 몰랐던 거죠. (음악)

106. (물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본수-1)

- ①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
- ② 겸손한 태도로 모든 일에 임해야 해.
- ③ 매사를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해.
- ④ 성숙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겪는 과정이 필요해.
- ⑤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피해를 주기도 해.



1894년, 화성에 고도로 진화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화성의 지도들에 나타난, ‘운하’라고 불리던 복잡하게 얽힌 선들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화성의 ‘운하’는 1878년에 처음 보고된 뒤 거의 30년간 여러 화성 지도에 계속해서 나타났다. 존재하지도 않는 화성의 ‘운하’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19세기 후반에 망원경 관측을 바탕으로 한 화성의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특히 1877년 9월은 지구가 화성과 태양에 동시에 가까워지는 시기여서 화성의 표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보였다. 영국의 아마추어 천문학자 그린은 대기가 청명한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섬으로 가서 13인치 반사 망원경을 사용해서 화성을 보이는 대로 직접 스케치했다. 그린은 화성 관측 경험이 많았으므로 이전부터 이루어진 자신의 관측 결과를 참고하고, 다른 천문학자들의 관측 결과까지 반영하여 당시로서는 가장 정교한 화성 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런데 이듬해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스키타파렐리의 화성 지도가 나오면서 이 지도의 정확성이 도전받았다. 그린과 같은 시기에 수행한 관측을 토대로 제작한 스키타파렐리의 지도에는, 그린의 지도에서 흐릿하게 표현된 지역에 평행한 선들이 그물 모양으로

교차하는 지형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키아파렐리는 이것을 ‘카날리(canali)’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해협’이나 ‘운하’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였다.

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그린의 스키아파렐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우선 스키아파렐리는 전문 천문학자였지만 화성 관측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게다가 그는 마테이라 섬보다 대기의 청명도가 떨어지는 자신의 천문대에서 관측을 했고, 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8인치 반사 망원경을 사용했다. 또한 그는 짧은 시간에 특징만을 스케치하고 나중에 기억에 의존해 그것을 정교화했으며, 자신만의 관측을 토대로 지도를 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승리는 스키아파렐리에게 돌아갔다. 그가 천문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존경받는 천문학자였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대다수의 천문학자들은 그들이 존경하는 천문학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형을 지도에 그려 넣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스키아파렐리의 지도는 지리학의 채색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그린의 지도보다 호소력이 강했다. 그 후 스키아파렐리가 몇 번 더 ‘운하’의 관측을 보고하자 다른 천문학자들도 ‘운하’의 존재를 보고하기 시작했고, 이후 더 많은 ‘운하’들이 화성 지도에 나타나게 되었다.

일단 권위자가 무엇인가를 발견했다고 알려지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관측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척도로 망원경의 성능보다 다른 조건들이 더 중시되던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수정되기 어려웠다. 성능이 더 좋아진 대형 망원경으로는 종종 ‘운하’가 보이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운하’ 가설 옹호자들은 이것에 대해 대형 망원경이 높은 배율 때문에 어떤 대기 상태에서는 오히려 왜곡이 심해서 소형 망원경보다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해명’하곤 했던 것이다.

107.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본수-49)

- ① 관측에서 사용하는 과학 장비의 우수성이 논쟁에서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군.
- ② 과학적 관찰 결과가 이론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군.
- ③ 어떠한 표현 방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과학적 주장의 설득력이 달라지기도 하는군.
- ④ 과학자들과 일반 대중의 인식 차이로 인해 과학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군.
- ⑤ 지금 널리 받아들여지는 과학 이론도 미래에는 틀린 것으로 밝혀질 수 있겠군.

D13 인물의 언행 평가



(음악)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인물 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속중·영조 때의 거문고 연주자 김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김성기는 본래 궁궐에서 활을 만들던 사람이었으나, 음률을 좋아하는 천성을 버리지 못하고 거문고를 배웠습니다. 거문고 연주에 뛰어난 기량을 보인 그는 매우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고, 새로운 곡을 만들어 명성을 더욱 높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비파와 통소를 연주하는 솜씨도 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자, 그는 '늑시하며 숨어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조은(鈞隱)'이라는 호를 짓고, 강가에서 낚시대를 드리우며 살았습니다. 김성기는 바람이 고요하고 달빛이 밝은 밤이면, 배를 저어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 통소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맑고 깨끗했는지 강가에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떠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재주가 빼어나더라도 재주를 팔지 않고서는 가난을 면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지체 높은 이들의 잔칫집에 불려 다녔지만,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함부로 자신의 재주를 팔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얽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거짓으로 역모를 고발하여 대단한 권세를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잔치를 벌이다 취흥이 올라 김성기를 불렀으나, 김성기는 병을 핑계 삼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불려도 방에 드러누워 꼼짝하지 않자 화가 난 권세가는 역정을 벌컥 냈습니다.

권세가 : (화를 내며) 만약 오지 않으면 내 장차 그 놈을 크게 벌하리라.

이 말을 들은 김성기는 말을 전한 사람에게 비파를 집어 던지며, 꾸짖었습니다.

김성기 : (준엄한 목소리로) 돌아가 그자에게 고하여라. 내 나이 칠십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소리도 모르는 자가 고발은 잘한다 하니, 나도 고발하여 죽여 보라고 일러라.

이 일이 있은 후 김성기는 더더욱 도성에 들어가는 발걸음을 끊고, 남 앞에서 연주하는 일도 드물었다고 합니다.

라디오 인물 열전,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08. (물음) 방송에서 소개하는 인물에 대해 청취자가 평가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06-본수-2)

- ① 재능이 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자존심도 잃지 않고 살았군.
- ② 통념과 관습을 거부하는 독특한 연주법으로 후대 예술가의 본이 되었군.
- ③ 자기 수양을 통해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여 예술가로서 일가를 이루었군.
- ④ 부단한 정진을 통해 부족한 재능을 뛰어넘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군.
- 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과 결별하고 세상을 조롱하며 살았군.



효과음 (바람소리 쉬익~)

해설: 태양이 작열하는 사막에 한 시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나태한 자신을 벗어 버리려 사막에 왔던 시인. 그러나 지금은 지쳐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낙타풀: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시인: (정신 차리며) 누구신지?

낙타풀: 전 낙타풀이에요.

시인: 어디 있나요? 모습을 보여 주세요.

해설: 시인은 머리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덩굴풀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인: 아! 놀랍군. 난 이 사막엔 생명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정말 반가워.

낙타풀: 아저씨는 뭐하시는 분이세요?

시인: 난 시인이란다. 내가 사는 곳에선 유명한 사람이지. 마음속에 스민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섬세한 언어에 담는 일을 해. 네가 하는 일도 좀 얘기해 줄래?

낙타풀: 정말 멋있군요. 음, 제가 하는 일은요, 이 사막에서 자라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 목을 적실 빗물도 거의 없지만, 전 이 사막에서 사는 것이 좋아요. 가시가 덜인 우리 몸도 사막의 기후를 견뎌 내기 위한 거죠. 혼한 일은 아니지만 길을 잃고 쓰러진 나그네들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처럼요. 전 그들이 다 제 길을 찾았으면 해요. 참, 굶주린 낙타들에겐 우리들이 양식이 되기도 하죠. 낙타들이 저혈 보고 반가운 콧소리를 터뜨릴 땐 우리들 마음은 무척 따뜻해지고 행복해진답니다.

시인: 낙타풀아! 너는~

109. (물음) 시인이 낙타풀에게 할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6모-3)

<보 기>

시인: 낙타풀아! 너는 ()

- ① 신중하게 처신하는구나.
- ② 친절한 마음을 가졌구나.
- ③ 어려운 환경에도 잘 적응했구나.
- ④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구나.
- ⑤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구나.

D14 견해의 타당성 비판



(가) 탁월함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탁월함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품의 탁월함은 비이성적인 것이어서 가르칠 수 없고,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

(나) 그는 좋은 성품을 얻는 것을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리라(lyra)를 꺾으로써 리라를 켜는 법을 배우며 말을 탐으로써 말을 타는 법을 배운다. 어떤 기술을 얻고자 할 때 처음에는 교사의 지시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반복 연습을 통하여 그 행동이 점점 더 하기 쉽게 되고 마침내 제2의 천성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진실되고 관대하며 예의를 차리게 되는지 일일이 배워야 한다.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 그런 행위들을 연마하다 보면 그것들을 점점 더 쉽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다) 그는 올바른 훈련이란 강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즐기게 되고,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싶어하게 되며,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성품의 탁월함이란 사람들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그리고 한두 번 관대한 행동을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늘 관대한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성향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관대함에 관하여 성품의 탁월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생각해 보자. 갑돌이는 성품이 곧고 자신감이 충만하다. 그가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다수의 사람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다수의 행동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그렇게 하는 데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한편, 수줍어하고 우유부단한 병식어도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 역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병식이는 일어나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고 자신과 힘든 싸움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병식이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우리는 병식이가 용기 있게 행동하였다고 칭찬할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성품의 탁월함을 가진 사람은 갑돌이다. 왜냐하면 그는 내적인 갈등이 없이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존경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가까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갑돌이와 같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110.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08-6모-35)

<보 기>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해도 행위자의 감정이나 욕구 또는 성향이 행위의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훌륭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도덕적인 행위는 아닌 것이다.

- ① 탁월한 성품에서 비롯된 행위는 행위자의 성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에 의해 결정된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②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내야 한다. 옳은 행동을 즐겨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탁월한 성품을 갖춘 사람을 찾기란 어렵다.
- ③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얼마나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품성이나 자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 ④ 훈련의 결과 언제나 탁월한 성품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탁월한 성품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본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
- ⑤ 훈련으로 얻어지는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은 대개 이성적 성찰을 거치지 않으므로,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예술은 인간 감정의 구현체로 간주되곤 한다. 그런데 예술과 감정의 연관은 예술이 지닌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는 데 쓰이기도 했다. 즉, 예술은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비합리적 활동, 심지어는 광기 어린 활동으로 여겨지곤 했다. 그렇지만 예술과 감정의 연관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입장도 유구한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톨스토이와 콜링우드를 들 수 있다.

톨스토이의 견해에 따르면, 생각이 타인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듯이 감정도 그러하다. 이때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 예술이다. 예술가는 자신이 표현하고픈 감정을 떠올린 후, 작품을 통해 타인도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 그런데 이때 전달되는 감정은 질이 좋아야 하며, 한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연대감이나 형제애가 그러한 감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톨스토이는 노동요나 민담 등을 높이 평가하였고, 교태 어린 리스트의 음악이나 허무적인 보들레르의 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좋은 감정이 잘 표현된 한 편의 예술이 전 사회, 나아가 전 세계를 감동시키며 세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콜링우드는 톨스토이와 생각이 달랐다. 콜링우드는 연대감이나 형제애를 사회에 전달하는 예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체주의적 대규모 집회에서 드러나듯 예술적 효과를 통한 연대감의 전달은 때론 비합리적 선동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

다. 톨스토이 식으로 예술과 감정을 연관시키는 것은 예술에 대한 앞서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콜링우드는 감정의 전달이라는 외적 측면보다는 감정의 정리라는 내적 측면에 관심을 둔다.

콜링우드에 따르면, 언어가 한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수단이듯이 예술은 한 개인의 감정을 정리하는 수단이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감정도 그러하다. 일상사에서 별걱 화를 내거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보면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낸 듯하여 썩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분노나 슬픔은 공책을 펴 놓고 논리적으로 꼼꼼이 추론한다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은 염주 알처럼 진행되지만, 감정은 불쑥 솟구쳐 오르거나 안개처럼 스멀스멀 밀려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감정은 그와 생김새가 유사한 예술을 통해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토벤이 인생의 파란만장한 곡절을 「운명」 교향악을 통해 때론 용솟음치며 때론 진저리치며 굽이굽이 정리했듯이, 우리는 자기 나름의 적절한 예술적 방식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술을 통해 우리의 감정이 정리되었으면 굳이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예술은 그 소임을 충분히 완성한 것이다.

톨스토이와 콜링우드 양자의 입장은 차이가 나지만, 양자 모두 예술과 감정의 긍정적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예술의 가치를 옹호하였으며, 이들의 이론은 특히 질풍처럼 몰아치고 노도처럼 격동했던 낭만주의 예술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111. <보기>의 관점에서 위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8-6모-48)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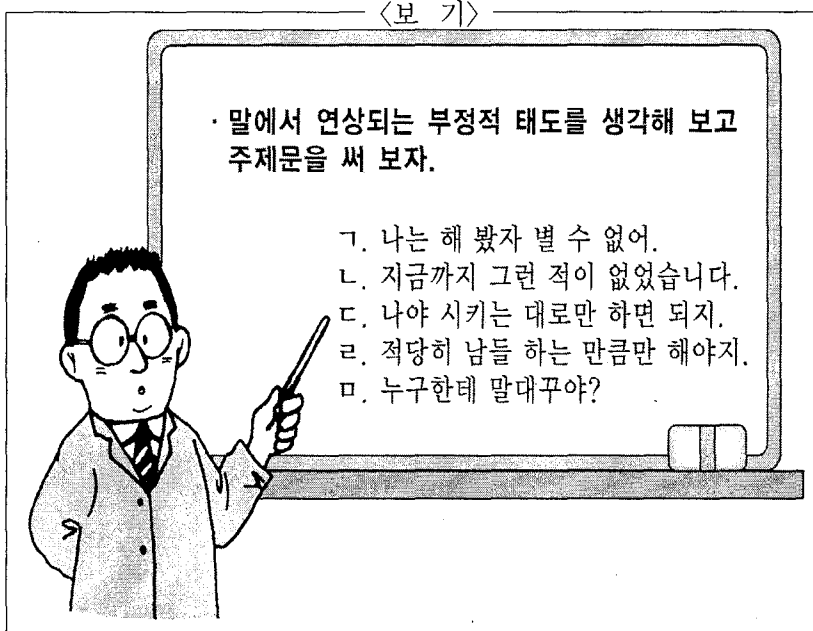
음악의 아름다움이란 음악의 형식을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움이다.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내용도 필요치 않고, 오직 독립적인 음들 및 그것들의 형식적 연관으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곧 음악적 아름다움이다. 매력 넘치는 소리들의 연관, 그 연관의 조화와 대립, 이탈과 도달, 상승과 소멸 등이야말로 우리 앞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나타나 만족을 주는 것들이다.

- ① 예술의 본질은 감정보다는 형식이다. 우리에게 미적 즐거움을 주는 원천은 예술 고유의 조형적 아름다움이지 않은가.
- ② 예술이 감정을 전달하려면 감정의 전달 수단인 형식도 중요하다. 아름다운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정치적 선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
- ③ 예술은 감정이 아닌 절대적 이념의 표현이다. 예술과 감정의 연관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예술이 지닌 숭고한 정신적 이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 ④ 용솟음치는 감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감정이 정형화된 형식을 넘어 예술을 통해 자유로이 분출됨으로써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 ⑤ 예술의 핵심은 감정이라기보다는 파란만장한 인간 삶의 형식을 묘사하는 일이다. 그러한 묘사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삶을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E. 창의적 사고

E01 연상을 통한 새로운 정보의 구성

112. <보기> 그림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생활 자세’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각각의 사례를 보고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5-9모-7)



| | 태도 | 주제문 |
|---|-----------|-----------------------------------|
| 가 | ㉠ |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 나 | 융통성 없는 태도 | ㉡ |
| 다 | ㉢ | 맡은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
| 라 | 무사 안일한 태도 | ㉣ |
| 마 | ㉤ |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

- ① ㉠: 소극적인 태도
- ② ㉡: 유연하고 창의적인 태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 ③ ㉢: 독선적인 태도
- ④ ㉣: 의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⑤ ㉤: 권위적인 태도

E02 조건에 맞는 내용 생성



[A]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께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멧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113. <보기>에 따라 '이효석 문학제'를 알리는 초청장을 만들려고 한다. 문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5-본수-58)

<보 기>

- [A]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그것을 작가의 작품 세계가 지닌 특징을 드러내는 데 활용한다.
- 비유를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인다.

- ① 역사와 전통 위에 지은 터전, 이효석 문학 마을로 오세요.
- ② 지친 현대인에게 소박한 농촌의 맛과 인심을 돌려드립니다.
- ③ 이효석, 그 서정과 낭만으로 빛은 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④ 서도(西道)의 애수와 가락이 있는 재전, 당신의 의자를 비워 두었습니다.
- ⑤ 우리들의 잃어버린 고향, 다시 못 갈 그 서러운 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114. 모둠 활동을 통해 '우리 고장을 빛낸 인물을 소개하는 글 쓰기'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과제 수행을 위해 논의한 내용 중, <보기>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06-6모-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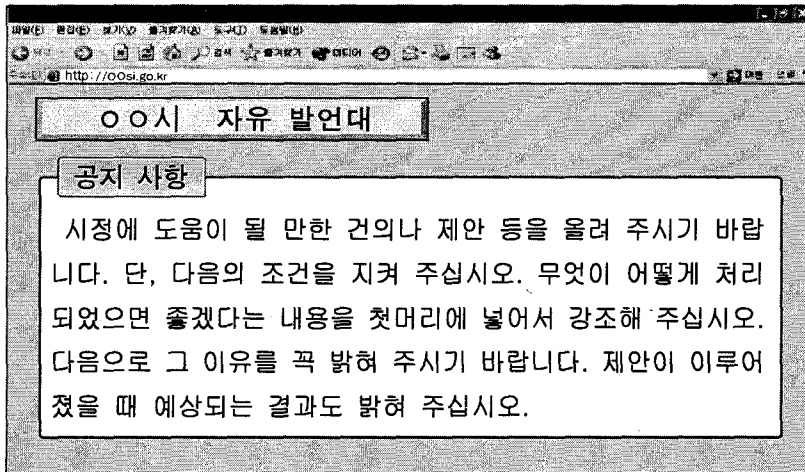
<보 기>

- 제목: ○○○의 생가를 찾아서
- 독자: 우리 고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예상 독자로 설정할 것.
- 형식: 관광 안내 소책자에 실을 글로 작성할 것.
- 내용: 인물의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게 구성할 것.
- 표현: 내용을 흥미롭게 진술하되 사실을 왜곡하지 말 것.
- 자료: 시각적 자료를 첨부할 것.

- ① 인물의 일화와 관련 있는 장소를 소개하여 인물의 자취를 느낄 수 있게 해야겠어.
- ② 글의 초점인 생가의 문화재적 가치를 밝히고, 보존 현황도 자세하게 소개해야겠어.

- ③ 인물의 활동 내용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진이나 삽화 등을 활용해야겠어.
- ④ 우리 고장 사람 중에 다른 고장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봐야겠어.
- ⑤ 인물에 관련된 미담이나 난관을 극복한 내용이 포함된 이야기가 있다면 감동적으로 구성해야겠어.

115. 다음은 시청 홈페이지 자유 발언대의 공지 사항이다. 공지 사항에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08-6모-8)



- ① 우리 시에도 문화 행사가 필요합니다. △△시는 봄꽃 축제를 열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이런 문화 행사를 할 때 지역 특산품도 함께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 ② ○○ 초등학교 앞은 불법 주차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요. 차들이 없어야 등굣길이 안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통학로 옆의 불법 주차를 단속해 주세요.
- ③ 우리 시에도 체육공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시청 옆의 공터나 강변을 체육공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④ 거리에 쓰레기통이 필요합니다. 버스 정류장이 쓰레기로 넘쳐 납니다. 보기에 안 좋다고 쓰레기통은 없애고,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에게만 과태료를 물리는 시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 ⑤ 홈페이지에 익명으로도 글을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혹 무슨 불이익이라도 있을까 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익명의 글도 허용해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은 문자 발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음운 문자에 속한다. 그런데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점, 가획을 통해 소리를 자형(字形)과 관련시키고 있는 점 등 매우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들 중 특별히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음운 문자와는 별도로 '자질 문자'를 설정하고 한글을 여기에 귀속시키기도 한다. 즉, 발음 위치가 같은 쌍인 'ㄱ, ㅋ'과 'ㄷ, ㅌ'에서 추가된 획은 '거셈'이라는 자질을 나타내므로 한글을 자질 문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질 문자'란 명칭은 자질 자체를 글자로 만든 것에 붙여야 한다. 다시 말해, '거셈'이라는 자질이 자형에 반영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자질이 하나의 독립된 글자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글을 완전한 의미의 자질 문자로 보기는 어렵다.

문자 발달사의 단계가 반드시 문자의 우수성의 정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글이 자질 문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사실 각 문자 부류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의 문자는 음성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쉽다는 장점을, 음절 문자는 실제 말소리의 단위인 음절을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음운 문자는 적은 수의 글자로 문자 생활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며, 더욱이 한글처럼 자질 문자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으면 자형끼리의 유사성에 의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까지 추가로 가지게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글이 몇 가지 문자 부류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문자가 서로 다른 문자 부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는 흔히 발견된다. 한자는 표의 문자이지만, '印度, 伊太利[나라 이름]'처럼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에는 주로 글자의 음을 이용하므로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한글은 음운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음과 모음을 한 글자로 모아 씌으로써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글은 문자 발달사의 각 단계 문자 부류들이 보여 주는 장점들을 다른 문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음운 문자이므로 효율적이고,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배우기가 쉬울 뿐 아니라, 모아쓰기를 함으로써 음절 문자의 장점도 취하고 있는 것이다.

116. <보기>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도토리]'라는 발음을 적어 보았다. 알맞은 것은? (05-본수-47)

<보 기>

- 음운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게 할 것.
- 모아쓰기를 할 것.

① □ □ △

② □ ◇ ◇

③ $\begin{matrix} \square & \square & \triangle \\ \times & \times & \times \end{matrix}$

④ $\begin{matrix} \square & \square & \triangle \\ \times & \times & \times \end{matrix}$

⑤ $\begin{matrix} \square & \ominus & \triangle \\ \times & \times & \times \end{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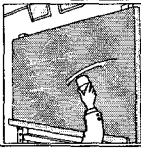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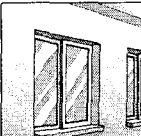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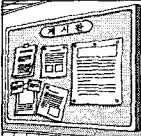

E03 자료 활용한 글감의 생성

117. 다음은 '사회 변화에 대비한 복지 정책'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다. 자료를 결합하여 해석하고 주제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7-본수-10)

| 항 목 | 1995년 | 2000년 | 2005년 |
|--|-------|-------|-------|
| ㄱ. 여성 취업자 중 전문·관리직 종사자 구성 비율 [단위: 백분율] | 11.4 | 14.0 | 17.5 |
| ㄴ.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 [단위: 명] | 1.65 | 1.47 | 1.08 |
| ㄷ. 전체 인구 중 30대 미혼 인구 비율 [단위: 백분율] | 1.71 | 2.40 | 3.75 |
| ㄹ. 평균 수명 [단위: 세] | 72.2 | 74.6 | 76.8 |

| | 자료 | 해석 | 주제 |
|---|-------|---|--|
| ① | ㄱ+ㄴ → | 출산보다는 사회 참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여성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 미혼 여성을 위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
| ② | ㄱ+ㄷ → |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날수록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약해지고 있다. | 독신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
| ③ | ㄱ+ㄹ → | 노인 부모를 부양하는 전문·관리직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 성별에 따른 보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
| ④ | ㄴ+ㄹ → | 어린이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요구된다. |
| ⑤ | ㄷ+ㄹ → |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118. 교실 안 사물에 착안하여 '현대인의 삶'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6모-6)

| | 착안점 | 문제 상황 설정 | 주제 구체화 |
|---|-----------------------------|--------------------------|---------------------------------|
|  | 쓴 내용이 쉽게 지워짐 | ㉠ | 유익한 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  | 밖은 보이지만 닫혀 있어서 소리는 잘 들리지 않음 | ㉡ | 진정한 인간관계를 위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  | 하루에 해야 할 일정이 빡빡하게 적혀 있음 | ㉢ | 바쁠수록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 |
|  | 학교의 지시 사항을 알림 | 현대인들은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 | ㉣ |
|  | 쓸데없는 물건이 넘쳐나고 있음 | 현대인들은 불필요한 것까지도 가지려고 한다. | ㉤ |

- ① ㉠: 현대인들은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그 대부분을 잊어버린다.
- ② ㉡: 현대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도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다.
- ③ ㉢: 현대인들은 여유 있는 시간을 갖기 어렵다.
- ④ ㉣: 세상의 변화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⑤ ㉤: 소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E04 매체 변용에 따른 내용 생성



(가)

매영(梅影)이 부딪힌 창에 옥인 금차(玉人金釵)* 비겼으니
이삼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잡아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빙자옥질(冰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 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동각에 숨은 꽃이 척족(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 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괘라 백설 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 안민영, 「매화사」 -

(나)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이는 산람(山嵐)*이라
천암(千巖) 만학(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나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짙으락
사양(斜陽)과 섞어지어 세우(細雨)조차 뿌리는구나
남여(藍輿)를 재촉해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綠楊)에 우는 황앵(黃鶯)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사이 우거져서 녹음(綠陰)이 엉킨 적에
백척 난간에 긴 조으름 내어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된서리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쳐진고
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물커늘
조물이 헌사하여 빙설(冰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 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에 별였어라
건곤도 풍성할사 간 데마다 경이로다

- 송순, 「면앙정가」 -

119. 옛 노래를 알리기 위해 (가)와 (나)를 소재로 영상물을 만들려고 한다.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6모-39)

- ① (가)는 조출한 술상을, (나)는 가마와 피리를 소품으로 준비해야겠어요.
- ② (가)는 구슬프게, (나)는 은은하게 느껴지는 배경 음악을 사용해야겠어요.
- ③ (가)는 늦겨울이나 초봄을, (나)는 사계절을 계절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 ④ (가)는 밤을 위주로, (나)는 낮부터 밤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 ⑤ (가)는 한옥의 뜰을, (나)는 주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나) 이때 대원수가 금산성에서 적 십만 병을 한칼에 무찌르고 바로 호산대에 득달하여 적병을 씨 없이 함몰코자 행하더니, 뜻밖에 월색이 희미하며 난데없는 빗방울이 원수 얼굴에 내리거늘, 원수 괴이히 여겨 말을 잠깐 머무르고 천기를 살펴보니, 도성에 살기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紫微星)이 떨어져 번수 가에 비쳤거늘, 크게 놀라 발을 구르며 왈, “이게 웬 변이나?”

갑옷과 투구, 창검을 갖추고 천사마 위에 바삐 올라 산호 채찍을 높이 들어 채질하며 말에게 단단히 부탁하여 왈,

“천사마야, 너의 용맹 두었다가 이런 때에 아니 쓰고 어디 쓰리오. 지금 천자 도적에게 잡히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지라. 순식간에 득달하여 천자를 구원하라.”

천사마는 본디 천상에서 타고 온 비룡이라. 채질을 아니 하고 단단히 부탁하여 말해도, 비룡의 조화라 제 가는 대로 두어도 순식간에 몇 천 리를 갈 줄 모르는데, 하물며 제 임자 급한 말로 부탁하고 산호채로 채질하니, 어찌 아니 급히 갈까. 눈 한 번 깜짝이며 황성 밖을 얼른 지나 번수 가에 다다르니,

이때 천자는 백사장에 엎어지고 한담은 칼을 들고 천자를 치려 하거늘, 원수 이때를 당하매 평생에 있는 기력과 일생에 지를 호통을 힘을 다해 지르고, 천사마도 평생 용맹을 이때에 다 부리고, 변화 좋은 장성검도 삼십삼천 어린 조화 이때에 다 부리니, 원수 달는 앞에 귀신인들 아니 울며, 강산도 무너지고 하해도 뒤엎는 듯 혼백인들 아니 울리오. 온몸이 불빛 되어 벽력같이 소리하며 왈,

“이놈 정한담아, 우리 천자를 해치지 말고 내 칼을 받으라.”

하는 소리에 나는 짐승도 떨어지고 강신 하백(江神河伯)도 냇을 잃어 용납지 못하거늘, 정한담의 혼백인들 아니 가며 간담인들 성할쏘냐. 호통 소리 지나는 곳에 두 눈이 깜깜하고 두 귀가 먹먹하여 댕던 말 둘러 타고 도망하여 가려다가, 형산마 거꾸러져 백사장에 떨어지니 창검을 갈라 들고 원수를 겨누거늘, 구만 청천 구름 속에 번개칼이 번쩍하며 한담의 장창 대검이 부서지니, 원수 달려들어 한담의 목을 산 채로 잡아들고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엎드리니, 이때 천자 백사장에 엎어져서 반생반사 기절하여 누워 있거늘, 원수 붙잡아 앉히고 정신을 진정한 후에 엎드려 주왈,

“소장이 도적을 함몰하고 한담을 사로잡아 말에 달고 왔나이다.”

- 작자 미상, 「유충렬전」 -

120.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삽화를 그리려고 한다. <보기>에서 (나)의 내용을 잘 반영한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06-본수-50)

<보 기>

- ㄱ. 유충렬이 천기를 살펴보는 호산대의 배경을 밝고 명량한 분위기로 표현하여 앞으로의 승리를 예감할 수 있도록 한다.
- ㄴ. 쓰러져 있는 천자에게서 무력함 또는 나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ㄷ. 정한담을 향해 달려가는 천사마는 역동적이면서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그린다.
- ㄹ. 장성검을 들고 진격하는 유충렬의 모습에서 천자를 구하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이도록 한다.
- ㅁ. 달려오는 유충렬을 보고 도망가는 정한담의 표정에서 여유와 의연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린다.

-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E05 유추를 통한 내용 생성

121. <보기>의 그림을 보면서 ‘효과적인 독서’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재생’을 ‘독서’라고 가정하고 연상했을 때, ㄱ~ㅁ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9모-7)

<보 기>

ㄱ. 빨리 감기: 독서하면서 필요한 정보가 있는 곳을 찾아가려면 건너뛰며 읽을 수도 있다.

ㄴ. 되감기: 다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부분으로 돌아가 다시 읽기도 한다.

ㄷ. 정지: 독서를 하다가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만들 수도 있다.

ㄹ. 일시 정지: 독서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읽기를 잠시 멈출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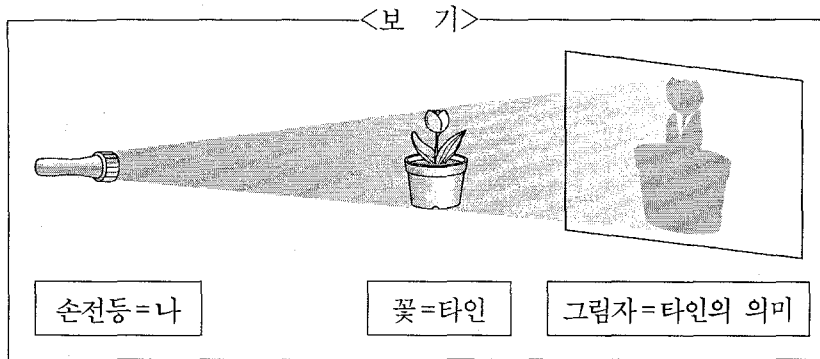
ㅁ. 녹음: 독서를 할 때에는 음악을 함께 듣는 것이 좋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22. ‘삶은 연극’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 위해 배우가 연극의 요소들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상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9모-7)

- ① (배우-무대): 나는 내 삶의 터전에서 꿈을 펼치며 살아갈 것이다.
- ② (배우-관객): 나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에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 ③ (배우-대본):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 ④ (배우-조명): 나는 주목을 받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늘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 ⑤ (배우-소품): 나는 타고난 능력과 소질을 살려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123. '인간관계'에 대하여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은 발상을 하였다. 연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본수-7)



- ① 손전등의 빛을 꽃에 비추어야 그림자가 생긴다.
 → 타인에게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상대방이 내게 의미 있게 된다.
- ② 손전등이 꽃에 가까워지면 그림자의 크기가 커진다.
 → 타인과의 거리를 더 가까이하면 상대방의 의미가 더욱 객관화된다.
- ③ 손전등의 빛이 밝아지면 그림자가 더욱 또렷해진다.
 → 타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상대방은 내게 더욱 깊은 의미를 띠게 된다.
- ④ 손전등의 렌즈에 얼룩이 묻으면 그림자가 왜곡된다.
 → 타인을 대할 때 편견이 개입하면 상대방을 참된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 ⑤ 손전등을 비추는 방향이 바뀌면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진다.
 →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상대방은 내게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

<부록> 정답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 | | | | | | |
|----|---|----|---|----|---|----|---|
| 1 | ③ | 16 | ⑤ | 31 | ① | 46 | ⑤ |
| 2 | ② | 17 | ③ | 32 | ③ | 47 | ③ |
| 3 | ③ | 18 | ⑤ | 33 | ② | 48 | ① |
| 4 | ① | 19 | ② | 34 | ② | 49 | ① |
| 5 | ② | 20 | ⑤ | 35 | ④ | 50 | ② |
| 6 | ① | 21 | ③ | 36 | ② | 51 | ① |
| 7 | ⑤ | 22 | ② | 37 | ④ | 52 | ④ |
| 8 | ⑤ | 23 | ① | 38 | ④ | 53 | ⑤ |
| 9 | ② | 24 | ⑤ | 39 | ② | 54 | ③ |
| 10 | ④ | 25 | ④ | 40 | ③ | 55 | ① |
| 11 | ④ | 26 | ④ | 41 | ① | 56 | ② |
| 12 | ① | 27 | ④ | 42 | ③ | 57 | ⑤ |
| 13 | ⑤ | 28 | ⑤ | 43 | ③ | 58 | ① |
| 14 | ③ | 29 | ④ | 44 | ⑤ | 59 | ④ |
| 15 | ② | 30 | ④ | 45 | ④ | 60 | ③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② | ① | ④ | ③ | ④ | ⑤ | ③ | ④ | ③ | ③ | ⑤ | ② | ① | ⑤ | ② | ① | ③ | ① | ⑤ | ③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⑤ | ② | ③ | ① | ④ | ⑤ | ① | ④ | ③ | ② | ① | ⑤ | ⑤ | ③ | ③ | ② | ④ | ① | ① | ④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④ | ② | ④ | ⑤ | ② | ② | ③ | ⑤ | ② | ① | ② | ④ | ③ | ② | ③ | ① | ② | ④ | ③ | ⑤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정답표(홀수형)

| 문항 번호 | 정답 | 배점 | 문항 번호 | 정답 | 배점 | 문항 번호 | 정답 | 배점 | 문항 번호 | 정답 | 배점 |
|----------|----|----|----------|----|----|----------|----|----|----------|----|----|
| 1 | ① | 1 | 16 | ④ | 1 | 31 | ② | 2 | 46 | ④ | 3 |
| 2 | ④ | 1 | 17 | ② | 2 | 32 | ② | 1 | 47 | ③ | 1 |
| 3 | ④ | 2 | 18 | ⑤ | 2 | 33 | ④ | 2 | 48 | ⑤ | 1 |
| 4 | ④ | 2 | 19 | ③ | 2 | 34 | ③ | 1 | 49 | ② | 2 |
| 5 | ③ | 1 | 20 | ① | 1 | 35 | ⑤ | 2 | 50 | ② | 2 |
| 6 | ② | 2 | 21 | ① | 2 | 36 | ① | 1 | 51 | ④ | 1 |
| 7 | ① | 1 | 22 | ① | 2 | 37 | ④ | 1 | 52 | ④ | 1 |
| 8 | ④ | 2 | 23 | ③ | 2 | 38 | ① | 3 | 53 | ⑤ | 2 |
| 9 | ④ | 2 | 24 | ⑤ | 1 | 39 | ④ | 2 | 54 | ① | 2 |
| 10 | ③ | 2 | 25 | ② | 1 | 40 | ① | 2 | 55 | ④ | 1 |
| 11 | ⑤ | 3 | 26 | ① | 2 | 41 | ② | 2 | 56 | ② | 2 |
| 12 | ⑤ | 2 | 27 | ② | 2 | 42 | ⑤ | 2 | 57 | ② | 2 |
| 13 | ③ | 2 | 28 | ⑤ | 1 | 43 | ③ | 1 | 58 | ③ | 1 |
| 14 | ⑤ | 1 | 29 | ① | 2 | 44 | ② | 1 | 59 | ③ | 2 |
| 15 | ⑤ | 2 | 30 | ① | 2 | 45 | ③ | 2 | 60 | ⑤ | 1 |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① | ③ | ④ | ④ | ① | ① | ④ | ② | ② | ④ | ② | ③ | ④ | ④ | ⑤ | ② | ⑤ | ② | ③ | ③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⑤ | ① | ③ | ⑤ | ① | ③ | ⑤ | ⑤ | ③ | ③ | ④ | ① | ⑤ | ① | ⑤ | ⑤ | ⑤ | ② | ② | ①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④ | ③ | ④ | ③ | ② | ③ | ④ | ④ | ① | ② | ② | ② | ⑤ | ① | ③ | ① | ④ | ③ | ⑤ | ③ |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③ | ① | ③ | ② | ⑤ | ① | ④ | ⑤ | ④ | ⑤ | ① | ② | ④ | ④ | ⑤ | ③ | ⑤ | ⑤ | ① | ③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③ | ⑤ | ③ | ① | ③ | ③ | ④ | ⑤ | ③ | ② | ③ | ④ | ② | ① | ③ | ④ | ④ | ② | ① | ②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① | ④ | ② | ⑤ | ① | ③ | ⑤ | ③ | ⑤ | ⑤ | ④ | ② | ④ | ② | ② | ① | ④ | ④ | ② | ③ |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표

| | | | | | | | | | | | |
|----|---|---|----|---|---|----|---|---|----|---|---|
| 1 | ⑤ | 1 | 16 | ④ | 3 | 31 | ③ | 1 | 46 | ③ | 1 |
| 2 | ① | 2 | 17 | ⑤ | 2 | 32 | ④ | 1 | 47 | ① | 1 |
| 3 | ① | 1 | 18 | ① | 1 | 33 | ⑤ | 2 | 48 | ② | 2 |
| 4 | ② | 2 | 19 | ② | 1 | 34 | ⑤ | 3 | 49 | ③ | 2 |
| 5 | ④ | 1 | 20 | ② | 2 | 35 | ③ | 2 | 50 | ④ | 2 |
| 6 | ② | 2 | 21 | ② | 2 | 36 | ⑤ | 1 | 51 | ① | 1 |
| 7 | ③ | 1 | 22 | ③ | 2 | 37 | ③ | 2 | 52 | ② | 2 |
| 8 | ④ | 2 | 23 | ① | 1 | 38 | ① | 1 | 53 | ⑤ | 1 |
| 9 | ② | 2 | 24 | ④ | 2 | 39 | ④ | 1 | 54 | ③ | 2 |
| 10 | ① | 1 | 25 | ③ | 2 | 40 | ② | 2 | 55 | ② | 1 |
| 11 | ④ | 2 | 26 | ④ | 1 | 41 | ② | 2 | 56 | ③ | 2 |
| 12 | ④ | 2 | 27 | ① | 2 | 42 | ⑤ | 2 | 57 | ③ | 2 |
| 13 | ④ | 2 | 28 | ⑤ | 2 | 43 | ① | 1 | 58 | ⑤ | 2 |
| 14 | ③ | 3 | 29 | ⑤ | 1 | 44 | ⑤ | 2 | 59 | ④ | 2 |
| 15 | ② | 2 | 30 | ② | 1 | 45 | ④ | 2 | 60 | ② | 1 |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⑤ | ③ | ① | ③ | ⑤ | ③ | ⑤ | ④ | ④ | ⑤ | ③ | ③ | ④ | ① | ⑤ | ② | ② | ② | ④ | ③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③ | ⑤ | ② | ⑤ | ② | ⑤ | ① | ① | ③ | ④ | ④ | ③ | ② | ① | ④ | ② | ② | ② | ② | ③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④ | ④ | ⑤ | ⑤ | ② | ④ | ⑤ | ② | ④ | ② | ① | ④ | ④ | ③ | ④ | ③ | ② | ① | ⑤ | ① |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① | ① | ④ | ③ | ④ | ② | ⑤ | ③ | ② | ② | ② | ① | ④ | ② | ③ | ⑤ | ③ | ④ | ② | ⑤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⑤ | ② | ① | ② | ③ | ② | ⑤ | ① | ④ | ① | ③ | ⑤ | ④ | ③ | ④ | ④ | ③ | ② | ④ | ②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③ | ⑤ | ① | ③ | ⑤ | ③ | ① | ⑤ | ② | ① | ④ | ② | ④ | ⑤ | ① | ① | ④ | ③ | ② | ⑤ |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정답표(홀수형)

| 문항 번호 | 정답 | 배점 | 문항 번호 | 정답 | 배점 | 문항 번호 | 정답 | 배점 | 문항 번호 | 정답 | 배점 |
|----------|----|----|----------|----|----|----------|----|----|----------|----|----|
| 1 | ㉔ | 2 | 16 | ㉔ | 2 | 31 | ㉓ | 2 | 46 | ㉔ | 1 |
| 2 | ㉕ | 2 | 17 | ㉔ | 3 | 32 | ㉔ | 1 | 47 | ㉔ | 2 |
| 3 | ㉔ | 1 | 18 | ㉔ | 2 | 33 | ㉔ | 1 | 48 | ㉔ | 2 |
| 4 | ㉔ | 2 | 19 | ㉔ | 1 | 34 | ㉓ | 2 | 49 | ㉔ | 2 |
| 5 | ㉔ | 1 | 20 | ㉓ | 2 | 35 | ㉓ | 2 | 50 | ㉕ | 1 |
| 6 | ㉑ | 2 | 21 | ㉕ | 1 | 36 | ㉑ | 1 | 51 | ㉔ | 2 |
| 7 | ㉔ | 2 | 22 | ㉔ | 1 | 37 | ㉔ | 1 | 52 | ㉑ | 1 |
| 8 | ㉓ | 2 | 23 | ㉑ | 2 | 38 | ㉔ | 3 | 53 | ㉔ | 2 |
| 9 | ㉓ | 2 | 24 | ㉑ | 2 | 39 | ㉕ | 2 | 54 | ㉕ | 2 |
| 10 | ㉔ | 3 | 25 | ㉔ | 2 | 40 | ㉕ | 1 | 55 | ㉔ | 2 |
| 11 | ㉕ | 2 | 26 | ㉑ | 1 | 41 | ㉔ | 1 | 56 | ㉓ | 1 |
| 12 | ㉔ | 1 | 27 | ㉑ | 1 | 42 | ㉓ | 2 | 57 | ㉔ | 1 |
| 13 | ㉑ | 2 | 28 | ㉕ | 2 | 43 | ㉓ | 2 | 58 | ㉓ | 2 |
| 14 | ㉕ | 2 | 29 | ㉑ | 1 | 44 | ㉔ | 2 | 59 | ㉔ | 2 |
| 15 | ㉑ | 1 | 30 | ㉕ | 2 | 45 | ㉑ | 1 | 60 | ㉓ | 1 |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 | | | | | | | | | | |
|----|---|---|----|---|---|----|---|---|----|---|---|
| 1 | ② | 2 | 16 | ① | 2 | 31 | ⑤ | 2 | 46 | ① | 1 |
| 2 | ① | 2 | 17 | ⑤ | 2 | 32 | ② | 2 | 47 | ③ | 2 |
| 3 | ③ | 2 | 18 | ① | 3 | 33 | ② | 2 | 48 | ① | 2 |
| 4 | ② | 2 | 19 | ③ | 1 | 34 | ③ | 2 | 49 | ⑤ | 2 |
| 5 | ② | 2 | 20 | ② | 2 | 35 | ① | 3 | 50 | ⑤ | 1 |
| 6 | ④ | 2 | 21 | ④ | 2 | 36 | ⑤ | 1 | | | |
| 7 | ⑤ | 2 | 22 | ③ | 2 | 37 | ① | 1 | | | |
| 8 | ⑤ | 2 | 23 | ③ | 2 | 38 | ② | 2 | | | |
| 9 | ④ | 3 | 24 | ④ | 2 | 39 | ② | 3 | | | |
| 10 | ② | 2 | 25 | ④ | 3 | 40 | ② | 2 | | | |
| 11 | ③ | 2 | 26 | ⑤ | 2 | 41 | ④ | 2 | | | |
| 12 | ④ | 2 | 27 | ⑤ | 2 | 42 | ① | 2 | | | |
| 13 | ② | 2 | 28 | ③ | 2 | 43 | ⑤ | 2 | | | |
| 14 | ④ | 2 | 29 | ③ | 2 | 44 | ④ | 2 | | | |
| 15 | ④ | 2 | 30 | ① | 2 | 45 | ① | 2 | | | |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③ | ⑤ | ⑤ | ④ | ④ | ① | ⑤ | ④ | ② | ② | ① | ⑤ | ② | ⑤ | ③ | ① | ③ | ③ | ④ | ②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⑤ | ① | ① | ④ | ④ | ③ | ② | ⑤ | ② | ③ | ② | ④ | ⑤ | ③ | ③ | ④ | ⑤ | ① | ① | ②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② | ④ | ② | ② | ② | ④ | ④ | ① | ④ | ⑤ | | | | | | | | | | |